

JULY 2013

월간

Gardenin

SALE COUPON

온라인으로

테르메덴 50% 할인권

Gardening
program

체험!
도시원에 속으로

Vacation
Item

맛있는 여름 휴가
가든 바비큐 파티

Garden in Life

정원과
함께 하는
건강한 일상



Monthly Gardening

- ✔ 이른 봄에 핀 꽃 채종
- ✔ 텃밭 작물 수확
- ✔ 농기구 관리

7월 텃밭 관리
페트병을 이용한 점적 관수



07>

10,000원

CHECK LIST





스페셜 믹스



스페셜 썬샤인



스페셜 핑크리본



우리드림 핑크



우리드림 화이트



우리드림 옐로



우리드림 오렌지



우리드림 레드

우리꽃이 개발하여 해외의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은 신품종 야생화 **코레우리**.
이제 한국의 농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꽃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진상미로 942-87
전화: 031)634-7990 / 팩스: 031)634-7991

July 2013 Garden in



9



12



30



18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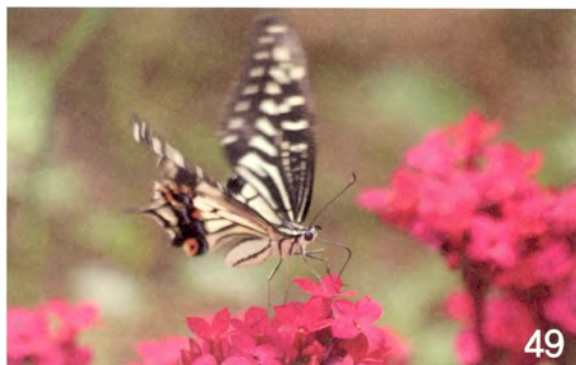
Contents

- | | | | |
|----|--|----|---|
| 6 |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정원은 주인을 낳는다. 우리꽃 정원은 시원하다. | 26 | 세계적인 3대 속근초화
호스타류, 원추리류, 저면 아이리스 |
| 12 | 휴가도 같이 떠나고 싶은 여름꽃...
가우라 & 자주달개비, 꽃나리의 유혹 | 30 | 박공영의 이달의 가든 관리
7월은 장마, 그리고 폭염과의 전쟁이다 |
| 16 | 화려하며 열정적인 경관식물
후록스의 모든 것 | 34 | 이선영의 베란다 꽃밭 관리
삼목은 타이핑이다 & 휴가시즌 물 관리 |
| 20 | 비상의 꿈 에키네시아
독특한 화형과 화색으로 마음을 흔치다 | 38 | 시즌 아이템 수국
물만 주면 다시 싱싱해지는 번덕쟁이 꽃 |
| 22 | 아름다운 상식
두상화란 앵다. 두상화가 맞다 | 40 | 정원 속 작은 생명체 다육 식물
정원 속 햇빛에 강한 꽃기린 |
| 24 | 시즌 아이템 휴케라
매력적인 색과 잎으로 나무 아래의 팔방미인 | 43 | 여름 최고의 아이템 수생식물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은 위험, 게으른 자가 잘 키운다 |

July 2013 Garden in



43



49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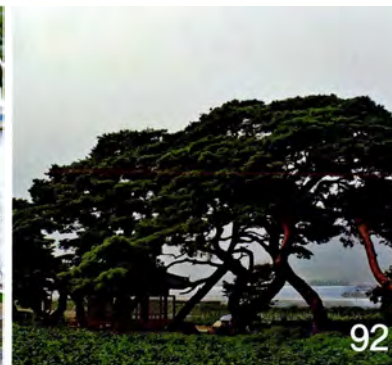
63



78



87



92



96



COVER

Echinacea

영원한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에키네시아. 인디언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원주민들은 방울뱀에 물렸을 때 에키네시아의 뿌리를 찢어서 상처에 붙여 해독했다고 한다.

- 46 **한국의 향기 식물**
달콤한 향기로 여름 더위를 잊게 해주는 식물
- 48 **내 정원 속의 나비**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은... 나비가 있는 정원 완성
- 52 **생활의 재발견 콘테이너 가드닝**
저렴하고 만들기 쉬운 플라스틱 & 나무 상자 가든
- 54 **그린 인테리어 테라리움**
여름 향기 물씬 나는 내방의 작은 정원을 꾸며보자
- 56 **도시농업경진대회**
도시 가드너들의 톡톡 튀는 생활 속 가든 아이디어
- 58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왕초보 박소영씨의 텃밭 가꾸기

- 60 **이달의 텃밭 농사 길잡이**
과채류 수확을 위해 필요한 것
- 62 **자구를 살리는 청소년 농부**
감자 수확편
- 64 **식물의 밤 '토양'**
식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필요 토양도 다르다
- 65 **과일 같은 채소 '토마토'**
텃밭에서 키운 토마토가 맛있다
- 68 **약이되는 잡초음식, 쇠비름**
인간에게 왕성한 생명력을 주는 최고의 잡초
- 70 **골프광 남편도 집에 머물다**
임천규 차영희 부부의 정원 '드림 하트'

- 74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악이 되는 정원의 강금순씨
- 77 **휴가 시즌, 가든 바비큐 파티**
바비큐의 모든 것, 방법에서부터 재료별 굽는 요령까지
- 82 **가든 카페**
국내 최초의 정원 유품 갤러리 & 소품 푸르너스
- 84 **세계의 식물원**
독일 정원 문화의 자존심 해넨하우저 가든
- 87 **시원한 여름을 찾아...**
7월 청량한 여름 꽃축제
- 90 **산에서 만나는 꽃 이야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꽃

- 92 **한국 정원의 대표 정원수 소나무**
소나무다움이란 무엇인가
- 94 **앗! 식물에도 진드기가?**
차병진 교수의 식물의 병해충 관리 요령
- 96 **우리꽃 아카데미의 체험! 도시원에**
도시 가드너들의 실습 현장 '살아있는 정보가 있다.'
- 100 **야매 가드너의 가든 다이어리**
무 대신 무꽃을 선택했다
- 102 **플랜트 사이언스**
식물, 스스로 방어한다
- 104 **Q&A, 뉴스**
전문가에게 답을 구하다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7월 정원은 하양과 보라 그리고 연분홍의 계절이다. 긴 장마와 그 터널에서 빠져나온 여름의 더위는 절정으로 치달는다. 주황색이나 노란색을 상상해 보자.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나 하양의 맑은 순수, 혹은 보랏빛 아침의 싱그러움을 생각해보자. 얼마나 시원한가. 그래서 나는 여름에는 하양이나 보라를 선택한다. 정원의 디자인은 그 정원의 주인과 닮아 있다. 우리꽃의 정원도 주인과 많이 닮았다. 항상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고객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한다.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것이 우리꽃 정원의 스토리다. 지금 막 피어나는 우리꽃 정원, 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자.



평면정원에 입체감을 더하는 무늬 역새와 하양의 꽃들로 조성된 화이트 정원. 난울 친 수목화에 색채를 입힌듯 우아함이 장관이다.



평지에 무늬 역새를 포인트로 하여 연분홍과 하양을 섞어 혼성할 디자인으로 연중 같은 느낌으로 피고 진다.



연꽃가의 꽃창포 종류들이 만개했다. 역시 보라색의 느낌이 시원하다.



노랑의 서양쑥부쟁이를 배색으로 피어난 하양의 에키네시아가 더욱 깨끗하게 보인다.



미니골프장을 테마로 한 정원의 출구, 소나무 아래에 어우러진 하양의 화색이 시원스럽다.

소나무와 꽃 군락의 향연

지난 5월과 6월호에서는 골프장을 테마로 한 미니 골프 정원을 입구에서부터 순서대로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호에서는 출구로 진입해 입구로 나오는 역주행 여정(?)을 선택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정원의 팔색조 매력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이다. 코스는 짧지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꽃 정원의 중심은 소나무이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특히 하양의 사모나리아 '코튼'의 향기는 더욱 심신을 안정시키는 듯하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소나무 아래도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간단하다. 부적포를 덮고 화산석으로 마무리 하여 겨울이 지나고 나면 떨어지는 소나무 잎과 소나무에서 내뿜는 휘발성 물질이 지표면에 도달되지 못한다.

그리고 항상 습윤 상태가 유지되고 퇴비를 충분히 하여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다. 이것이 바로 계절의 풍성함을 담아내고 있는 소나무 아래의 비밀이다. 여름날의 태양 아래 위풍당당 서 있는 소나무, 그 밑동을 감싸고 있는 꽃 무덤의 어우러짐이 장관이다.

컬러로 완성한 초콜릿 정원

초콜릿 정원 역시 우리꽃 정원의 대표 아이콘이다. 일반적으로 초콜릿 정원이라 함은 주로 초콜릿 향기가 나는 허브류를 심는 개념이 많다. 그러나 우리꽃은 '색(color)'으로 초콜릿 테마 정원을 연출했다. 초콜릿 색인 적색의 식물들을 배치했다. 적엽 리시마키아를 기본으로 적색 계



초콜릿 정원의 언저리에 표현된 아스틸베와 1년생 사루비아의 조화가 그렇게 더워보이지 않는다.

통의 아스틸베와 휴케라, 적엽 펜스테몬 그리고 붉은 가우라 등을 식재해 차별적 초콜릿 정원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초콜릿 개념의 정원으로 연중 적색과 초콜릿 느낌의 구간이다.

여름 그라스의 강한 야성미

왜성 꽃복숭아 터널을 지나면 작은 개울이 나타난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조팝나무의 행렬이 방문객을 반긴다. 하얀색의 시원함이 느껴진다. 우측으로는 그라스가 웃자랐다. 마초남 같은 그라스의 야성미가 보기 좋다 그냥 두었던 것이 정원사가 게으름을 피운 것처럼 무성하다. 조금만 더 방치하면 쓰러질 듯하고 그라스 고유의 제멋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쓰러지기 전 30cm 정도를 남기고 잘라 주어야 한다. 가을에 키가 낮은 식물이 되어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그라스 식물 중 여름에 개화하는 무늬새그라스의 개화 모습. 고급스럽게까지 한다.



하양의 백합이 더 아름다운 것은 빨강의 아스틸베가 받쳐주기 때문이다.

철쭉 속 순결함을 뽐내는 백합

꽃백합은 이용가치가 많다. 품종별로 꽃피는 시기가 달라 거의 연중 개화가 가능한 품목이다. 그리고 백합은 줄기가 곧게 서고 약간의 음지에 서도 잘 생육하므로 골프장이나 가정집의 철쭉



꽃백합은 철쭉이나 회양목, 조팝류 등의 군락지나 생울타리 등에 적용하면 한 장소에서 여러번 꽃을 볼 수 있다.



올해 우리꽃 정원에 새로운 포인트를 찍었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한국형 그늘막을 배경으로 동선의 조잡나무가 한창이다.

사이에 심으면 매우 좋다. 철쭉이 피고 지면 새순이 웃자라기 시작한다. 이때 새로 나온 순은 내년엔 꽃이 필 가지다. 그러나 세력이 좋아진 철쭉을 그대로 방치하면 쉽게 모양이 나빠지게 된다. 때문에 꽃이 지고 나면 깨끗하게 전정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백합의 키가 쑥 자라 나오면서 꽃을 피워낸다. 만약 백합이 자라서 전정을 할 수 없다면 백합이 지고 나면 곧바로 실시해도 내년엔 꽃을 피우는 데에는 상관이 없다.

다양한 화색의 조팝

조팝류는 꽃이 이른 봄에 피는 우리나라 토종의 조팝과 당조팝, 공조팝 등이 있다. 또 여름내 피어나는 우리의 덩굴조팝 혹은 참조팝이나 꼬리조팝계통이 있다.

주로 원예화된 분홍조팝, 하양조팝, 까실조팝, 황금조팝, 삼색조팝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들을 구간별 식재를 하면 꽃피는 시기도 다르고 화색도 달라 매우 좋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경계 펜스 대용이나 도로 생울타리용으로 매우 좋은 식물이다.

장마기에 볼륨감을 더하는 호스타

아리(ARI)가든을 지나면 침엽수 정원이 있고 다음 계단식 폭포로 연출된 작은 연못이 있다. 아스틸베는 이미 젖고 한창 꽃창종 종류가 피어나



키 큰 식물 주변에서 한달가 피워낸 초롱꽃 '체리벨'과 꼬리꽃 '리틀블루'의 매무새가 더욱 아름답다.



조팝나무의 종류를 구간별로 나누어 동선을 처리한 모습으로 하양의 꽃과 관목사이에 심어 여름에 효과적인 꽃백합이 어우러져 더 아름답다.



그라스 중 또 하나의 걸작, 무늬갈풀 '페세이'는 가을의 역새 무리를 능가하는 자태다.

고 있다. 연못 뒤 수벽이 해를 가려서 생겨난 음지에는 주로 잎이 무늬를 가진 호스타 종류가 많다. 그 포기도 제법 볼륨감이 있다. 역시 장마기 때는 호스타와 같은 시원한 잎과 좋은 무늬를 가지는 식물이 호평을 받는다. 이는 바로 북유럽 사람들이 무늬종에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북유럽의 날씨는 비가 많은 지역이라 햇빛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가을보다 더 진한 매력 그라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라스를 가을 식물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 그라스는 6월 전후, 그리고 가을에 피는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보통 7월 이전에 피는 그라스로는 파랑김의털, 털수염풀, 갈풀 '페세이' 산새풀, 새 블루마운틴,



간이 다리 난간에 설치된 포켓가든. 채소를 함께 심어 재미를 더했다.



파랑김의털은 은회색의 독특한 잎의 질감을 가지는 것으로 매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무늬새, 여우꼬리 그라스 등 오히려 정원에서 있어서는 가을에 피는 종류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을 역새가 매우 특징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라스를 가을 식물로 착각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라스의 볼 개화 식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채소와 화초로 멋을 낸 포켓가든

마지막으로 입구를 통해 나오면 만나는 도자기 작품이 오히려 좀 초라해진 모습이다. 간이 다리를 장식하고 있는 포켓가든은 연중 꽃을 피는 식물을 식재한다.

이번에는 채소와 함께 심었는데, 오히려 더 색다른 느낌으로 방문객들의 반응이 더 좋다. 물

론 완효성 비료는 듬뿍 주었다. 호박과 콩도 매우 잘 달린다. 이번에 소개한 평면에 배식한 정원은 가을 우리꽃 지식 나눔 축제를 위해 작년 11월에 조성되어 현재 만개를 시작한 정원이다. 정식 오픈이 기다려진다. [in](#)



입구로 나오면 도자가가 맞이한다. 이 도자기 조형은 원광대 청동훈 교수 작품이다.



제라늄과 겔들인 배추, 양배추가 더 재미있는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꽃 정원에 피어나는

이달의 야생화



꽃들레아



속근 코레우리 '레몬샤벳'



속근 코레우리 '미쓰메이'



속근 코레우리



속근 코레우리 '파파야'



코레우리 연구 포장



톱풀 '파스텔'



붉은왕동자



리아트리스



니포피아



스타치스



적엽칠경이



부처꽃 '탐'



거북머리



모나다



풍선초



가우라베이비

정원용 야생화의 대표 얼굴

휴가도 같이 떠나고픈

날아가는 나비가 내려앉은 꽃

가우라 Gaura

봄부터 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 피는 꽃

가우라는 우리꽃에서 선보인 이후 지금은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품종이다. 하양 분홍 빨강의 화색에 키가 70~80cm로 6월부터 10월까지 장기 개화하는 꽃이다. 군식, 열식, 혼합식재 어디에도 좋아 정원의 필수 품종이 되었다. 은은한 느낌의 화색이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특히 신품종 가우라 베이비는 기존 가우라의 특색은 살리면서 키는 작고, 줄기는 단단하게 했다. 또한 관리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바쁜 일정으로 커팅 시기를 놓쳐도 경관상 나쁘지 않다. 이러한 장점으로 가우라 베이비는 아리(ARI)가든의 포인트 식물로 인기가 있다. 혼합 식재 시 앞쪽 라인을 장식하는 대표 품종이기도 하다. 가우라의 뿌리는 굵고 곧아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에서 생육이 좋지만 건조한 곳, 그리고 약간의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가우라의 특징

- 꽃이 아름다운 장기 개화형으로 정원의 대표식물이다.
- 가우라는 품종에 따라 하양, 분홍, 빨강 등이 있고 키 작은 무늬종이 있어 무리지어 심거나 다른 식물과 섞어서 심으면 더욱 멋스러워 진다.
- 물 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한다.
- 약간의 반음지에서 잘 자란다.
- 대체로 내한성이 약하여 겨울 보온을 하거나 좋은 품종의 경우 이른 봄 식재한다.



가우라베이비



빨강가우라



분홍가우라



가우라

여름 꽃을 찾아서 ...

재배가 매우 쉬운 정원 식물

자주달개비 Tradescantia

반그늘에서 화려한 연출이 가능하다.

달의장꽃과 비슷하지만 꽃색이 보다 짙기 때문에 자주달개비라고 한다. 양달개비, 저로초라고도 한다. 북아메리카 원산이며 관상용으로 심는데, 꽃은 5월경에 피기 시작한다. 자줏빛 화색이 돌며 꽃줄기 끝에 모여 달리지만, 하늘색, 백색, 홍색 등의 화색도 있다. 꽃은 아침에 피어 오후에 시들고, 열매는 9월에 익는다. 물을 적절히 주고 영양제를 한 달에 한번 주면 더욱 큰 꽃과 많은 개화를 유도할 수 있다.

자주달개비는 약초로도 유용한데, 7~8월에 전초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리거나 또는 생것 그대로 사용한다. 전초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에 효험이 있다. 종기를 삭혀 주고 종독을 해독시켜 주는 작용도 한다.

자주달개비의 특징

- 축축하고 밝은 장소 혹은 반그늘이 좋다.
- 매일 아침에 피어 해가 강한 오후에는 빨리 시들 수 있으므로 약간의 차광이 된 곳에 식재하면 좋다.
- 혼합식재의 소재로 매우 좋다.
- 반그늘의 숲 가장자리 혹은 아파트 단지의 반음지 등에 매우 효과적이다.
- 물을 적절히 주고 영양제를 한 달에 한 번 주면 더욱 큰 꽃과 많은 개화를 유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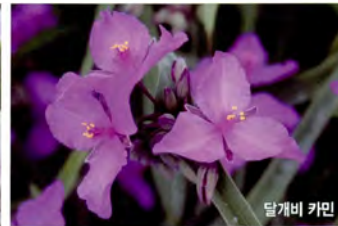
달개비 아이스



달개비 레드크레이프



달개비 사탕데



달개비 카민



달개비 블루

천사들의 꽃

꽃나리 Lil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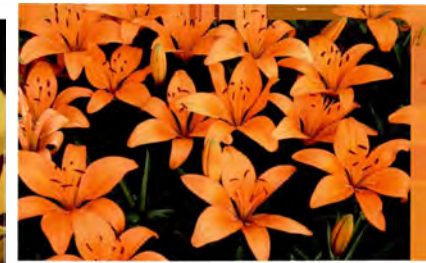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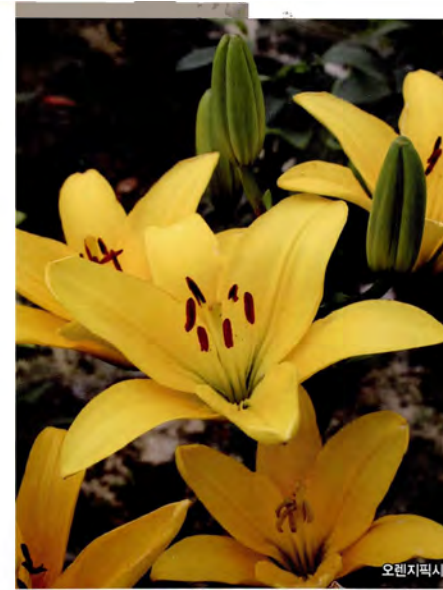
다른 식물과 함께 심으면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다.

꽃나리는 구근식물로 주로 아시아, 유럽, 북미
등지에서 자생하며 수많은 교배종이 있다. 우리
나라도 날개하늘나리 등의 특산식물을 비롯한
원산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철쭉 군생지 혼성

- 백합은 대체로 강건
하지만 딱정벌레, 진
딧물, 민달팽이, 각다
귀 애벌레 그리고 선
충, 토끼, 들쥐에 의해
서로 피해를 볼 수 있
다.
- 철쭉 군생지에 혼성
하거나 기타 여름 휴
면기를 갖는 식물과의
혼성 재배에 알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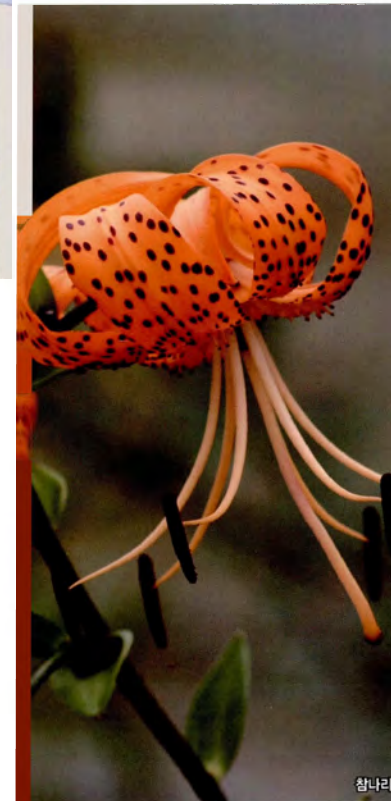


나리의 분류 나리는 크게 화색과 화
형에 따라 8군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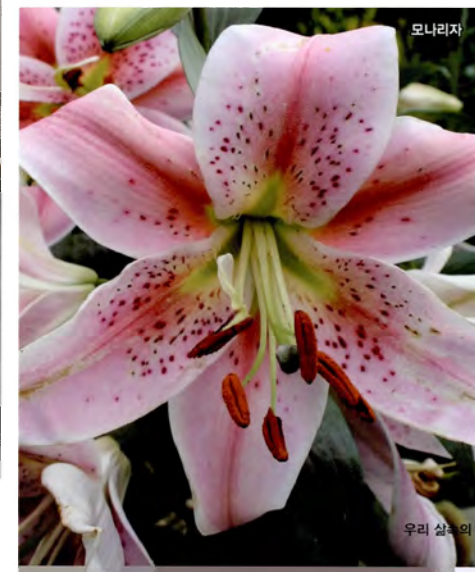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

- 종이 다양해 봄부터 가을
까지 꽃을 피운다.
- 단일 대군락 식물들과의
혼성 식재가 매우 유리하
다.
- 정원용 품종들은 1회 식
재 후 매년 기하급수적으
로 증식된다.



대부분 내한성이 강하나 어린 개체는 성장 중
냉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재배는 배
수가 잘되는 사질양토가 좋다. 대부분은 양지
를 좋아하지만 반그늘에서도 잘 지란다. 물은
충분히 주고 겨울에도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다. 종자로 번식을 하고자 할 때는 종자가
익자마자 파종을 하고 첫해는 잎이 나오고 개
화는 보통 18개월 이상 소요된다.



유기물 토양

- 토양은 물 빠짐이
양호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재
배한다.
- 많은 품종은 수림의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므로 잘 활용
하면 언제나 화려한
정원 연출이 가능해
진다.

나팔처럼 생긴 작은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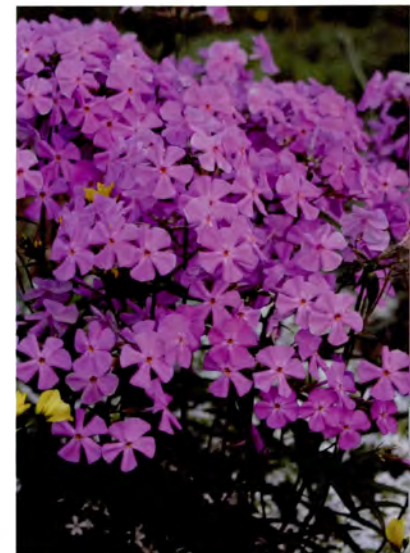
후룩스



후룩스

봄바람 & 봄맞이

후룩스 봄맞이와 같은 산림지에 자생하는 종은 주로 기는 듯 하다가 보통 꽃은 이른 여름에 꽃대를 올리고, 주로 활엽수 아래 그늘진 곳이나 숲 가장자리에 적응한다. 키가 큰 화단용 후룩스 종은 주로 축축한 강가 서식지에 불형과 원추형으로 큰 꽃차례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초여름부터 피고 주로 꺾꽂이나 포기나누기로 번식한다.



꽃잔디와 풀협죽도

우리는 이른 봄 개화하면서 쿠션을 형성하는 것을 꽃잔디. 여름에 피는 다년생 직립형의 키가 큰 것을 풀협죽도라 부른다. 꽃잔디란 이름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잔디라는 뜻인데 꽃이 피지 않을 때는 잔디를 덮았기 때문이다. 풀협죽도는 우리나라 남쪽지방에 자생하는 관목인 협죽도의 꽃을 닮았다 하여 초본 협죽도라는 뜻으로 풀협죽도로 불렀다. 매트를 형성하거나 쿠션을 형성하는 꽃잔디형은 건조하고 돌이 있는 서식지에서 자라고, 꽃은 봄 혹은 이른 여름에 핀다. 주로 암석화단 혹은 고산 식물원에 알맞고 건조한 경사지 혹은 그 가장 자리에서 자란다. 또한 골프장 혹은 도심 내 도로경사면과 같은 면적이 큰 곳에 적용을 많이 한다.



후룩스 Phlox



도홍황

우리꽃에서 개량한 후룩스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품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면 차별화된 연출이 가능하다.



기존 후룩스가 여름에 일시적으로 개화하는 반면 개량후룩스는 6월말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장기개화한다.



파라다



연지

우리꽃 후룩스

기존 후룩스는 개화시기에 흰가루병에 걸리게 되어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꽃에서 개발한 개량종은 흰가루병에 내병성이 있어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왜성홍단

다양한 색상과 탐스러운 꽃송이

후룩스는 일반적으로 하양, 보라, 분홍, 빨강, 주황 등 색상이 다양하고 꽃송이가 포도송이처럼 크고 탐스러운 형태를 띤다.



백설



자연

후룩스는 생육이 강건하며 꽃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여 어떤 속근초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다. 도로변에 군식해도 좋고 대면적의 후룩스원이나 혼합식재 등에 이용하면 좋다.



개인의 취향이나 주변 생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품종을 선택한다면 더 훌륭한 후룩스 고유의 멋을 감상할 수 있다.

飛上の 夢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는...

매우 거친 듯한 외관의 꽃과 다년생 식물로 9종으로 이루어진 속이다. 북미의 건조한 대초원, 자갈이 많은 언덕, 그리고 넓은 산악지에서 자라며 두껍고 강한 줄기, 그리고 많은 지하경을 가지고 있다.

혼성 식재 단골 메뉴

꽃잎에 둘러싸여 있는 꽃은 거친 솔방울과 같은 모양으로 그 강함을 더한다. 최근 많은 품종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빨강에서 하양까지와 파스텔 톤의 두상화, 그리고 겹꽃까지 매우 다양하다. 혼합 식재의 주요 품종으로 부상하고 있고, 혼성 식재시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포인트 식물은 물론 넓은 군식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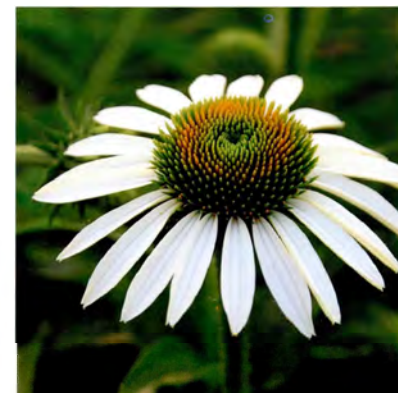
코튼캔디



밀크레이크



선셋



대부분 품종은 내한성이 뛰어나다. 대체로 강하여 그늘이 약간 있는 곳에서도 자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밝은 햇빛이 있는 곳에서 기른다.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되며 부식토가 충분한 토양에서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에키네시아는 허브로도 이용된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뱀에게 물렸을 때나 굼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 사용했다. 특히 피부병과 전염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고, 최근에는 면역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항바이러스 성분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알레르기를 줄인다는 기록도 보이면서, 에키네시아의 약효 성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철화용이나 화훼장식 포무리에도 사용된다. in

아름다운 상식 재미있는 가든

두상화란 없다

두상꽃차례 또는 두상화서가 맞다

일반적으로 국화와 식물을 두상화라 한다. 그러나 원래의 명칭은 두상화라는 말이 아닌 두상꽃차례 혹은 두상화서가 맞는 말이다. 화서는 우리말로 꽃차례를 뜻한다. 두상화란 말 그대로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꽃을 피운다는 뜻이다. 우리는 꽃차례를 화서라 한다. 꽃이 피는 순서와 달리는 모습을 말하는데 국화과는 무수히 많은 꽃들이 하나의 꽃처럼 모여서 순서대로 꽃을 피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청춘 남녀가 사랑을 고백할 때 혹은 축하를 할 때 장미꽃 100송이를 꽃다발로 만드는데 이 꽃다발이 국화와 꽃 하나와 같다. 그리고 장미 100송이를 감싸고 있는 안개초와 포장지가 바로 국화와 꽃들의 꽃잎으로 보면 된다.

거짓 꽃의 속임수, 진짜 꽃은 따로 있다

두상화서를 설명하는 데 해바라기보다 좋은 게 없을 것이다. 자, 그럼 두상화서를 배우기 위해 해바라기 꽃다발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해바라기는 우선 노란 거짓 꽃잎으로 많은 진짜 꽃을 감싸고 있다.

바깥에 있는 노란 해바라기의 꽃잎이 피면 이 노란 거짓 꽃잎에 둘러싸여진 진짜 꽃들은 맨 바깥라인에서부터 매일 차례대로 꽃을 피운다. 바둑판 모양을 한 안쪽의 완전화는 작지만 암술과 수술 그리고 이들을 감싸고 있는 왕관 같은 꽃잎을 볼 수 있다. 이 작은 꽃보다 매우 큰 꿀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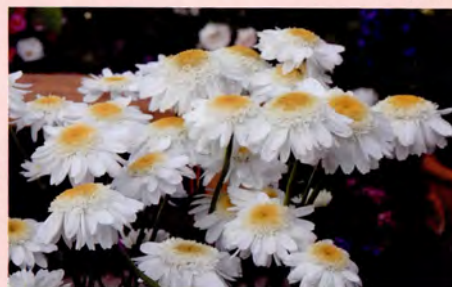
루드베키아
꽃의 모양을 잡고 관상화로 완전한 꽃모양을 갖추었다.



한 번 앉으면 매우 많은 꽃의 꿀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고 이 작은 진짜 꽃들은 수분이 되고 수정이 된다. 점차 씨앗이 되고 검은 빛으로 익어 간다. 매일 나선형으로 배열된 질서 정연한 꽃들은 차례를 지켜 피어나고 이러한 과정은 20일 이상 지속된다.

허의 모양을 닮은 가짜 꽃 '설상화'

그러나 한 번 핀 노란 거짓 꽃잎은 아직도 시들지 않고 비행하는 벌들을 안내한다. 벌의 입장에서 보면 멀리 하늘에서 이리저리 날아가는 중 노



샤스타 데이지
최근 육성된 품종으로 안쪽의 관상화를 설상화로 유도했다.



코레우리

란 꽃잎의 관제탑에서 착륙하라는 신호를 접하게 되고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선형으로 질서 정연한 꽃들이 만들어 낸 황주로를 따라 내리면 정확히 오늘 아침에 핀 작은 꽃에 안착할 수 있고 차례대로 꿀을 빨아 먹을 수 있다.

꽃 화관이 긴 관 모양인 진짜 꽃 '관상화'

우리는 벌과 나비를 유인하기 위해 하나의 꽃잎처럼 보이는 거짓 꽃을 일러 설상화라 한다. 하나의 완전한 꽃의 꽃잎이 합쳐져서 1개의 꽃잎처럼 된 꽃으로 허를 달았다 하여 설상화로 불려진다. 그러면 설상화로 둘러싸인 안쪽에 해바라기 하나의 씨앗을 만들게 되는 진짜 꽃은 관상화 혹은 통상화라 한다. 관상화는 꽃 화관의 형태가 가늘고 긴 관 또는 통 모양인 꽃을 말하는데 트럼펫과 같은 모양으로 보면 된다. 우리는 트럼펫을 관악기라 한다. 따라서 통상화를 관상화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민들레, 썸바귀, 설상화로만 이뤄진 꽃

국화와 식물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국화, 해바라기 등은 설상화와 통상화로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에 엉겅퀴, 배꼽채, 절굿대, 지칭개 등은 관상화만으로 이루어졌고, 민들레나 썸바귀류와 같은 꽃들은 설상화로만 이루어진 국화와 꽃들이다.

물론 이들 모두 군인을 혹은 식발한 남자머리 모양으로 한곳에 모여 핀다는 두상화서, 머리형의 꽃차례를 이루는 두상화이다. in



절굿대
관상화로만 이루어져 하나의 꽃으로 보인다.



속근해바라기
꽃 전체가 설상화로 변이된 품종이다. 이들은 종자를 거의 맺지 못한다.

반그늘의 귀족 휴케라

휴케라는 매력적인 색의 잎과 아름다운 꽃을 가진 식물로 반그늘 조건을 좋아하는 특성 때문에 정원의 나무 밑을 꾸미는 용도나 베란다에서 화분에 심어 가꾸기 좋은 식물이다. 이번 달에는 어디서든 지역할을 하는 팔방미인 휴케라에 대해 알아보자.

■ 글 · 사진 윤태훈



휴케라 레이블

붉은 바위취를 찾아라

휴케라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범의귀과 속근초로 우리에겐 '붉은 바위취'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 휴케라는 붉은 바위취라는 별명답게 아름다운 붉은 꽃이 피는 꽃이란 이미지가 강하지만, 유럽과 북미에서는 꽃보다는 잎을 감상하는 식물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그런 이미지답게 잎사귀 색은 흐린 녹색 말고도 품종에 따라 분홍색, 자주색, 금색, 호박색,



황록색, 짙은 자주색 등 다양한 잎사귀 색을 가지며 요즘에는 특이한 잎사귀 색을 가진 품종도 우리나라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휴케라는 잎 뿐만 아니라 꽃도 상당히 아름다운데 6~7월에 40cm 정도의 꽃대가 올라와 백색, 분홍색, 붉은색의 작은 꽃이 뭉쳐서 피며 꽃의 수명도 1달 이상

으로 오래가기 때문에 잎과 꽃을 모두 알차게 감상할 수 있다.

국내에선 '붉은 바위취'라는 이름으로 주로 유통되므로 구입 시 붉은 바위취로 찾아보자. 진짜 이름인 휴케라는 국내에선 아직 잘 통용되지 않고 있다.

구입정보

반그늘에 심도록 하자

휴케라는 태생적으로 나무그늘이나 반그늘을 좋아하는 식물로 양지 바른 곳보다는 나무그늘이나 오전만 해가 드는 곳에 심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루 중일 햇볕이 드는 곳에 심으면 잎이 잘 타

버리기 때문에 다른 식물과는 달리 양지 바른 곳에 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특성 때문에 휴케라는 나무 밑 빈 곳이나 베란대에 심어 가꾸기 좋은 식물이다. 참고로 잎사귀 색이 자주, 분홍 계열인 휴케라는 녹색종보다 직사광선에 더 강하고, 잎사귀 색이 노란색 계열인 휴케라는 녹색종보다 직사광선에 더 약하다. 휴케라를 심는 토양은 비옥하고 배수가 좋아야 한다. 토양의 배수가 나쁘면 겨울을 지내는 중 잘 얼어 죽기 때문이다.

비료 및 물주기

물은 마르지 않게 준다

휴케라는 친척 식물인 바위취나 수국처럼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겉흙이 마르면 곧 물을 주어야 한다.

가기에 배수가 좋은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물주기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이 문제는 휴케라를 심은 곳 흙 표면에 왕겨나 낙엽 등을 까는 행위인 멀칭을 해주면 해결된다. 멀칭을 하면 자연 강우만으로도 물주는 해결된다. 화분 재배 시에는 멀칭을 하지 말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바로 주면서 키운다.

휴케라는 비료를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자라기

때문에 가을에 퇴비 정도만 공급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원한다면 속효성 종합비료를 1000배로 희석해 한 달에 한 번 주어도 되지만 비료분이 과도하면 특유의 잎사귀 색이 사라지고 꽃이 잘 피지 않으며 조직이 연약해지므로 비료를 적절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울리는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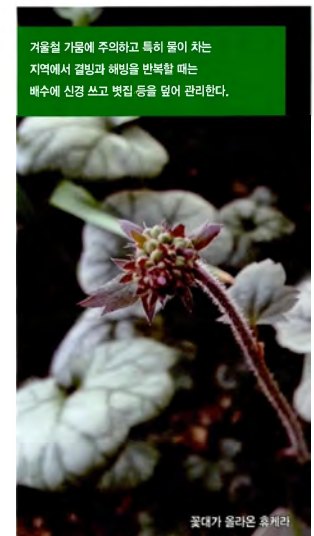
낙엽 활엽수가 좋다

휴케라는 나무그늘을 선호하는데 침엽수보다는 활엽수 밑에 심는 것이 좋고 상록수보다 낙엽수 밑에 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침엽수는 자신의 그늘 밑에 다른 식물이 잘 자랄 수 없게 하는 종류가 많고, 상록수는 휴케라에게 적합한 정도의 햇볕이 비치는 봄에도 그늘을 드리워 그리 좋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낙엽 활엽수 밑에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번식

주로 포기나누기로 번식한다

휴케라는 번식력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3~4년 키우면 포기가 늘어나기는 한다. 이 늘어난 포기를 나누어 심는다. 씨 뿌리기로 번식이 가능한데 열매가 잘 맺지는 않지만 열매가 생겼다면 씨를 받은 후 바로 파종하여 키우면 이듬해에 개화가 가능한 식물이다.



꽃대가 올라온 휴케라

병충해

토양 배수에 신경써야 한다

휴케라는 특별한 병충해는 없으나 배수가 좋지 않은 토양에 심을 시 습한 계절에 곰팡이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배수가 좋은 토양에 심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씩 달팽이가 잎과 줄기를 갉아먹기도 하므로 맥주 등을 이용한 방제를 하면 좋다.



곳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 단 배수가 나쁜 곳에 심었을 경우 겨울 동안 얼어 죽을 확률이 높다. in



앞치마 가든도구 7종 세트



가래 : 222500원

정원관리에 필요한 손도구를 앞치마에 넣어 한번에!

앞치마 가든도구 7종세트 구성

- 앞치마
- 모종삽
- 갈퀴 2종
- 파종기
- 장갑
- 전지가위

가든조아

031-712-7001

www.gardenjoa.com

세계적인 3대 숙근초화

세계적인 삼대숙근초화는 옥잠화류 종과 품종들(*Hosta spp.* & *cv.*)과 원추리류 종과 품종들(*Heimerocallis spp.* & *cv.*), 독일붓꽃 품종들(*Iris germanica cv.*)을 들고 있다. 이들의 잎과 꽃들은 매력적이다. 고급정원을 가진 선진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숙근초화다. 전원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있다면 권장할 만한 원예식물이다. 품종과 재배 및 관리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윤평섭



호스타류의 다양한 정원



호스타 '스트라이프' (Hosta 'Striped')



호스타 '와이드 브림' (Hosta 'Wide Brim')



호스타 '메디오바리에가타' (Hosta 'Mediovariegata')

호스타류(*Hosta spp.* & *cv.*)

호스타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것이다.

호스타속에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식물들로는 비비추속 식물들인데 이 속 식물들 중에는 일월 비비추, 주걱비비추와 참비비추, 산옥잠화, 비비추, 줄비비추, 흑산비비추 등 6종이 자생하며 중국이 원산인 옥잠화 1종이 옛날부터 토종으로 재배되고 있다.

호스타속(비비추속)에는 전 세계에 70종이 있으며 이들을 교배하여 육성한 원예품종들이 400

여종 이상이 재배하며 관상되고 있다.

호스타류가 가장 잘 자라는 좋은 조건이라 하면 나무 그늘이 지면서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드는 곳으로 배수가 잘 되는 적습지의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잘 자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낙엽수가 심겨진 개울가의 비탈진 면에 심으면 잘 자란다. 혹은 나무가 없는 곳이어도 습기가 있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면 된다. 그러나 질척한 곳은 아니다.

겨울이 추워도 숙근성으로 월동 또한 문제가 없

다. 또한 이들은 넓은 잎을 가지고 있어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게 잎 그늘에 가려 제압하고 자란다. 한 번 심어만 놓으면 잡초도 못자라는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이다.

한 포기 심으면 몇 년만 지나면 1m 정도 퍼져서 자라는 풍성한 지피 관엽의 관상가치를 가진 식물이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품종들이 소개되고 판매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아름다운 원예품종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호스타 '크리스마스 트리' (Hosta 'Christmas Tree')



호스타 '엘레강스' (Hosta 'Elegans')



호스타 '브레싱엄 블루' (Hosta 'Bressingham Blue')



호스타 '프랑세' (Hosta 'Francee')



호스타 '마미 미아' (Hosta 'Mama Mia')



호스타 '팔스 글로리' (Hosta 'Pal's Glory')



원추리류(*Hemerocallis* spp. & cv.)

원추리류는 원산지가 동남아시아의 온대지역으로 전 세계에 20종이 분포 자생하며 한국에는 6종이 자생한다.

원추리 꽃은 20개의 원종이 유전자자의 양친이 되어 3만종 이상이 원예품종으로 육성되어 관찰되고 있다. 꽃이 아름다워 꽃의 여왕이라고까지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원추리 애호가들이 모여 원추리 꽃 축제가 열린다.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싶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추운 겨울이 있어 활동이 안 되

는 식물이 많아 아름다운 화단을 가꾸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원추리는 내한성이 강하여 우리나라 화단을 가꾸는데 좋은 화훼 식물이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진딧물이 꽃대에 많이 붙게 되는데 이때에 소독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재배 및 관리는 비교적 토양은 가리지 않는 편이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면 좋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 꽃이 잘 핀다. 관수도 보통으로 관리하며 많은 품종이 시판되고 있다. 화형과 꽃색이 다양하다.



스티프드



보난자



조운 시니어



엘젤 오브 라이트



엘젤 오브 라이트



카메오 페인팅



버터드 랩콘



버터드 랩콘

저면아이리스(*Iris* × *germanica*)

저면아이리스는 일명 독일붓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꽃이 아름다워 오월의 기생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화려하다. 원산지는 불명확하지만 지중해 연안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친은 불분명하며 아마도 자연교잡종으로 추정하며 유럽 전체에 넓게 재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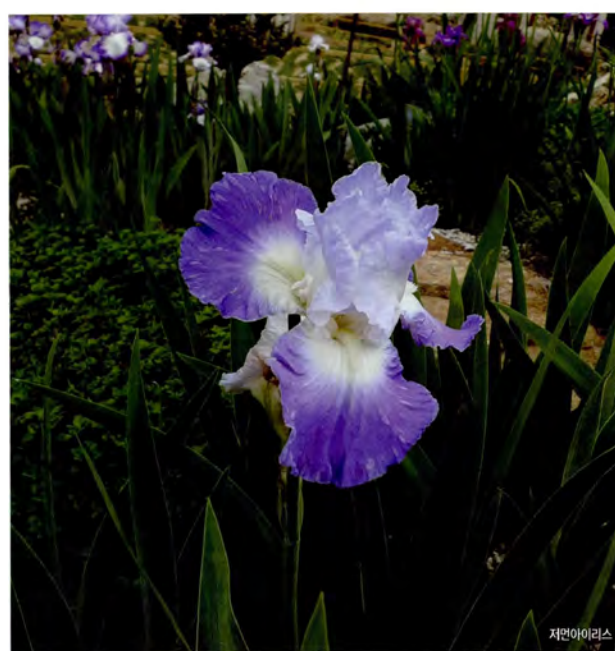
많은 품종이 육성되어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재배 및 관리는 비교적 알카리성의 건조지에서 잘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비가 많이와 배수가 잘 안되면 썩어 죽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고온에 습한 것은 금물이며 배수가 잘되는 비탈진 남쪽 경사면에 심어 놓으면 오래도록 관상할 수 있다.

번식은 실생 또는 분구 번식으로 한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불에 새싹이 나올 무렵 썩을 발로 밟아서 부러트려 놓으면 2~3개씩 새로 싹이 나와 그 해에 2~3개의 새싹을 얻을 수 있다. 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품종명은 생략한다. in



저면아이리스



저면아이리스



비안카



엘레강스



브루노

세계에서 로열티를 꽃 피우는 우리 야생화



규래우리 우리드림 오렌지



상록진디 패랭이



가우라베이비



우리꽃

031-634-7990 / www.uriseed.co.kr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삼리로 924번 길 87

7월은 장마 그리고 폭염과의 전쟁이다

돌도 자라게 한다는 장마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7월은 본격적인 장마의 계절. 그리고 다가 올 폭염은 정원의 모든 생명체들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정원의 장마는 일반적인 불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되어 초반에는 모든 식물들을 무성하게 키워낸다. 그래서 옛말에 마른 돌도 자란다고 했다. 돌이 자란다면 물러질 것이지만,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면 줄기는 상대적으로 가늘어져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폭염은 많은 식물을 고사시킬 것이다. 정원의 7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장마와 폭염과의 전쟁이다.

이른 봄에 핀 꽃의 채종 적기

6월에서 7월은 일 년의 반이다. 개화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른 봄에 핀 꽃들의 종자가 익고 많은 종들이 휴면에 들어가는 시기이



패랭이 등 장마철에 쉽게 썩을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따서 잘 말린 다음 냉장고 등에 보관한다.

다. 종자를 수확해 두어야 하는 시기이다. 어떤 종자를 어떻게 수확해야 할까. 간단하다. 정원 에 나가 누렇게 익은 것은 모두 지금이 채종 적기이다.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떤 것도 안정되어 있지 않다. 조금만 늦어도 꼬투리가 터져 달아나거나 아니면 꼬투리째 썩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열매가 달려서 발아되기도 한다. 정열의 왕귀비의 채종 적기가 지금이고, 안개초를 비롯한 끈끈이데나물, 수레국화 등 1, 2년생초와 금강화, 일찍 핀 패랭이 계통, 사스타 데이지, 영초, 꽃파, 매발톱 등 이른 봄에 핀 식물 대부분의 채종기로 보면 된다.



과일나무도 적정이상의 수량이 달렸거나 병해충의 흔적이 보이면 모두 따주는 것이 좋다.

착,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다.

잡초와의 전쟁, 정원을 지켜라

장마 중에는 모든 작업이 어렵다. 그러나 잡초는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정원 식물과 같은 속도, 오히려 더 빠른 생장을 보이는 것이 잡초이다. 잡초와의 싸움 결과에 따라 정원과 텃밭의 성공 여부는 결정이 된다. 작은 틈만 있어도 잡초 제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잡초는 어릴 때 잡으면 호미로 해도 되지만 방치하여 왕성한 생육을 자랑하는 큰 잡초로 자라게 되면 트랙터로 정원을 다시 갈아엎어야 할지도 모른다.



꽃이 진 후록스 불맞이와 같은 종들은 줄기의 2분의 1정도에서 새로운 싹이 트는데 바로 그 위치를 잘라주면 된다.

장마는 식물을 녹인다

커팅 & 순지르기 작업 시기

장마는 식물의 자람을 빠르게 한다. 줄기가 가늘어지고 물 문은 잎과 꽃들은 무거워진다. 바람이 불고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설지 못한다. 장마가 끝난 7월은 이들을 모두 녹여 버린다. 때문에 많은 정원 식물의 커팅이나 순지르기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 커팅이란 꽃이 져거나 꽃이 피려면 한창이나 남아 한꺼번에 싹둑 자른 것을 말하고, 순지르기란 식물이 튼튼하게 많은 가치를 내면서 풍성하게 품을 유지하도록 가지마다 자르는 방법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식물의 종류별 커팅법도 다르다

5월에 피어난 사스타데이지나 금계국 등은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한 커팅이 필요하다. 한창 피었던 후록스나 에케네시아, 코레우리 등은 2차 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르는 것이고, 가을에 필 억제 혹은 아스타 등은 너무 못자라



장맛비에 쓰러진 사포리리아 코튼. 이대로 방치하면 줄기와 잎이 썩고 주변식물에도 병해가 되므로 쓰러지기 전에 지주대 혹은 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쓰러질 위험이 있는 식물을 커팅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사스타와 같이 새로운 싹이나 잎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은 10cm 이내로 커팅하고 새로운 개화를 시키기 위한 것은 꽃이 핀 바로 아래 줄기를 잘라 주는 것이 좋다. 또 가을에 필 종류들은 식물의 전체 키에 따라 조금 다른데 대체로 20~30cm를 남기고 잘라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억새나 아스타 등의 키도 낮출 수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꽃이 피는 시기의 2개월 전에는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3~5매 남기고 성장점 따준다

순지르기는 보통 1년생 작물이나 키를 낮추고 가치를 높게 하여 꽃을 많이 피게 하기 위해서도 한다. 식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분얼 3~7매시 3~5매 남기고 성장점을 따준다. 일반적으로 ▲배게(일정 면적에 많은 묘목을 심는 것으로 빠른 기간 내에 많은 수량을 얻는 식재 방법의 하나) 심었을 때, ▲거름을 많이 주었거나 거름기가 많은 땅에 심었을 때, ▲일찍 심고 장마철 비가 많이 와서 못자랄 우려가 있을 때는 다른 식물들도 적절하게 커팅하거나 순지르기를 해준다. 또 과일나무 등도 여름 전정만 필요한데 여름 전정은 6월 상순에서 8월 초 사이에 나무의 세력 억제, 꽃눈분화 촉진, 나무 모양 유지, 못자람, 밀생지 전정 등을 위해서 진행한다. 전정의 대상은 배게 심겨진 나무, 결실기에 지나치게 영양생장을 하는 나무의 자람 가치를 속거나 또는 절단하여 잎 면적을 감소시킨다.

Step by Step

그라스 커팅하기

그라스 등은 잘라야 할 시기를 잘 살피는 것도 관상기간이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라스 등은 장마때 쉽게 쓰러지므로 커팅하여 방지하고 너무 늦지 않도록 자르는 것을 마쳐야 한다.



자른 직후의 모습



자른 다음 일주일 후





장마철에 유입된 빨과 염분의 치환을 위해서 물을 여러번 교체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물에 거품이 이는 것도 좋지 않은 징조이다.

장마철은 해충보다는 병해 피해가 크다

병해충 방제는 장마철에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예방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장마철이 끝나면 폭염으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식물이 죽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장마철에는 해충에 의한 피해보다는 병해에 의



열무는 파종후 3~5일이면 발아하는데 점차 자랄수록 속을하여 이용한다.



아스타 등 가을에 피는 키 큰 식물은 2~3회 컷팅을 해주어 쓰러짐을 방지하고 키를 낮추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

한 피해가 더 크다. 따라서 과일나무는 봉자를 씌워서 재배하거나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장마와 함께 오는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주대 등을 세워 쓰러짐을 방지해야 한다. 혹 장마나 태풍에 의해 쓰러진 나무가 있다면 비가 그치고 나면 곧바로 땅이 젖었을 때 세우고 지주대를 단단히 매주어야 한다.

7월의 텃밭은 사실 좀 풍성하다. 당근, 열무, 얼갈이 배추 등은 파종 시기이고 고추나 가지 등

은 웃거름을 주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고추, 토마토, 옥수수 등의 수확이 한창인 때이다.

잔디밭 물 빠짐 중요, 고랑 내서 고이지 않도록

여름의 잔디밭은 잔디의 절간이 길어지고 새로운 줄기의 자랄이 더욱 빨라져 새롭게 조성한 곳이나 전년도에 상한 잔디가 모두 회복되는 시기이지 모두 죽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특히 잔디는 햇빛을 좋아한다. 그리고 물 빠짐이 안 되는 곳에서는 뿌리의 건강함을 쉽게 잃어버려 장마 후 고온과 건조에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잔디밭은 물 빠짐이 매우 중요해 처음 조성할 때 물 빠짐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만약 장마철에 물이 고이는 잔디밭은 우선 고랑을 내어서 물을 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장마 후 땅속에 배수관을 묻어

처리하는 암거배수를 행하여야 하고 잠시 비가 멈춘 틈을 타 잔디 깎기를 하는 것이 좋다.

장마 후 연못에 이끼 증가 햇빛 차단 중요

정원의 연못은 가장 신이 났다. 정원의 정적을 연못의 물방울 소리가 깨운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많은 이끼가 사라져 물빛도 좋아진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고 나면 강한 태양과 주변의 높은 곳으로부터 흘러온 양분이 급속하게 이끼를 발생시키고 개구리밥 등으로 연못은 매우 지저분해진다. 따라서 장마가 끝나면 장마 때 들어온 물을 깨끗한 물로 교체하고 가능한 햇빛을 차단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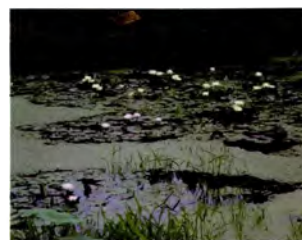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물에 희석하여 쓰는 이끼방제 약품을 이용하면 좋다. 물에 이끼를 피지 않게 하는 대부분의 약제는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사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물빛이 파랗고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녹슬지 않도록 농기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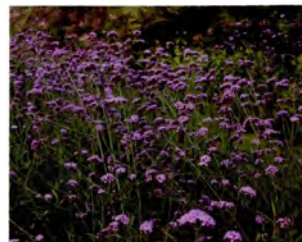
'장마 때는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물에 약한 나무, 쇠등이 썩거나 녹이 쉽게 된다. 따라서 항상 사용한 농기구나 자재 등은 닦아서 보관하고 특히 기계류는 오일을 발라 보관하면 녹이 슬지 않고 다음에 이용하기에도 좋다. [in](#)



꽃이 피는 관목들도 장마철 통풍이 되지 않으면 쉽게 병충해에 노출될 수 있다. 다음해 꽃이 필 좋은 가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다.



장마가 끝나면 연못에는 이끼와 개구리밥 등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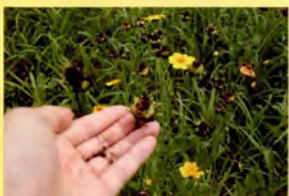


1년생 꽃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



포켓가든에는 완효성 비료를 충분히 주어 영양분이 빗물에 씻겨나가더라도 오래 지속되도록 자주 점검한다.

7월의 체크리스트



이른 봄 핀 꽃의 채종 시기

정원에서 누렇게 익은 것은 모두 채종한다. 채종 후 비를 맞으면 안 되고 선풍기로 말린다. 네임 태그를 부착, 냉장고에서 보관한다.



컷팅 혹은 손지르기의 시기

장마로 녹아버린 식물은 컷팅 또는 손지르기를 해준다. 아스타는 10cm 이내로 컷팅. 후룩스는 꽃이 핀 바로 아래 줄기를 잘라 준다.



텃밭 작물의 파종 또는 수확기

열무, 얼갈이, 배추 등은 파종 시기이고, 고추, 가지 등은 웃거름을 해 줄 시기이다. 고추, 토마토 옥수수 등은 수확할 때이다.



잔디밭, 물 관리 중요

잔디 상태가 회복되지만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시기. 장마 후 물 빠짐이 중요하다. 고랑을 내주고, 비가 멈춘 틈에 잔디를 깎는 것이 좋다.



이끼 낀 연못 햇빛 차단

장마 후 강한 태양과 양분으로 이끼가 증가한다. 깨끗한 물로 교체하거나 햇빛을 차단한다. 이끼 방제 약품을 이용해도 좋다.



비에 젖은 농기구는 닦아서 보관

사용한 농기구나 자재 등은 닦아서 보관한다. 기계는 오일을 발라 보관해야 녹이 슬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

Season Theme 베란다 꽃밭 관리

삽목은 타이밍이다

꺾꽂이를 통한 여름철 번식법

꽃잎이 떨어지고 잎만 무성한 나의 베란다에는 더운 열기가 가득하다. 더운 집을 나와 휴가를 떠나면 문득 베란다 창가에 올려놓았던 식물이 걱정된다. 여름의 베란다에서 식물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과일보로거 이선영씨가 휴가를 가기 전 베란다 식물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한다.

■ 글 · 사진 · 이선영, 정승환 기자 / 자료협조 · 비온후의 베란다꽃밭 (<http://blog.naver.com/beeonhoo>)



이제적으로 중부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장마가 약 2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권에서 아파트 베란드의 꽃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비상인 셈이다. 보통 꺾꽂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가드너로서 '삽목(cut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삽목은 암술과 수술의 수정되는 종자번식이 아닌 무성번식이다. 어머니와 나와의 유전자가 완전히 똑 같다는 의미다. 이선영 씨는 삽목을 이렇게 표현한다.

"엄마 식물에서 가지나, 잎, 뿌리를 떼어내어 다시 하나의 개체인 아가 식물을 만드는 번식법이에요. 엄마의 손가락을 자르면 엄마와 똑같은 아기가 나오나는 것은 낱방 특집물 아니겠어요."

장마철은 삽목하기 좋은 시기

이런 날에 삽목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선영씨는 습도가 높지만 한여름보다는 뜨겁지 않으므로 식물이 뿌리를 뻗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이므로 삽목하기 좋다고 설명했다.

물론 삽목은 일반적으로 봄과 초여름이 가장 적당한 시기임을 참고하길 바란다. 장마 중간의 건조한 날씨에는 분무기를 뿌리거나 비닐을 씌워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선영 씨는 봄에 꽃이 피고, 새로운 가지가 자란 꽃나무들이 삽목하기 좋다고 추천했다. 철쭉류, 블루베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단, 과실에 익한 다육식물과 제라늄 등은 삽목 시 절단한 면이 썩을 수 있어 흙을 너무 축축하게 하면 안 된다. 어떠한 식물도 삽목할지도 고려할 대상인 것이다.

장미, 허브, 임파첸스 등은 아무렇게나 흙에 꽂아두기만 하면 단기간에 뿌리가 나는 식물이다. 하지만 삽목이 쉽지 않은 식물도 있다. 뿌리가 내려가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식물이다. 천리향, 율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삽목이 힘든 식물은 거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에요. 시간이 걸려지면 물 관리가 게을러져 말려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키라, 고무나무 등의 관엽류 등은 삽목하기 매우 쉽다고 한다.

그러나 줄기가 두꺼운 고무나무 같은 식물은 뿌리가 내려기 전에 벌레가 올 수도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해충은 뿌리파리. 뿌리파리가 있다면 방제가 중요하다. 삽목 화분 근처에 방충망이나 노란색 끈끈이트랩 등을 설치해 접근을 막아줘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날씨가 건조하다면 비닐을 씌워 습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step
by
step

삽목으로 장미허브 번식 이어가기

삽목에 필요한 준비물

- 깨끗하고 비료가 없는 흙 (씻던 흙이나 영양이 많이 포함된 흙은 가지가 썩어죽거나 벌레가 꼬인다.)
- 씻던 흙이라면 전자 렌지에 돌려 사용
- 살균된 가위(불에 달궈 썬다.)
- 나무젓가락(가지를 꽂는게 아니라 나무젓가락으로 흙에 구멍을 만들어 꽂아야 절단면에 상처가 안난다.)



1 용기에 배수가 되도록 구멍을 뚫는 것이 좋다.



2 마사토, 난석, 작은 돌, 스티로폼 등으로 배수가 되도록 짝아준다.



3 삽목할 가지들은 짧은 게 좋다. 너무 크거나 잎이 많으면 수분 증발이 많아 발근 전에 시들 수 있다.



6 삽목이 완성된 장미 허브. 환기 좋은 그늘진 곳에 물관리만 잘하면 된다.



5 구멍에 장미허브 삽수를 꽂고 물을 흠뻑 준다. 흙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뿌리 잘 내릴려면 삽목 후 삽수가 흔들리면 안된다.



4 화분에 물을 담고, 물을 준 후 준비한 것가락으로 구멍을 뚫는다.

삽목 성공률 높이기 포인트!



- 성장기에 삽목하는 것이 좋다.
-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조금 습하게 흙 관리.
- 건조에 강한 식물은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는 일반적 물주기법으로 한다.
-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은 잘라서 며칠 그늘에 말린 후 마른 흙에 삽목하고, 며칠 후에 물을 줘야 뿌리가 잘 내린다.
-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삽목 전에 1시간 정도 물병을 꽂아 물 흡수를 해서 삽목하면 성공률 높다.

Season Theme 베란다 꽃밭 관리

휴가철, 식물로부터 잠시 해방하자

여름철 베란다 식물 물 관리

여름에 사람도 지치지만 식물도 물에 의한 스트레스로 지치기 마련이다. 집을 비울 날이 많을 때는 식물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베란다 꽃밭을 오래 관리하는 이선영씨가 물관리 팀(TIP)을 가르쳐 주었다.

기자(정)_ "여름에 휴가가지죠. 문 잠그고 나가지 고만일텐데..."
이선영(이)_ "놀러갈 때는 도둑 걱정에 온 집안 문을 꼭꼭 잠그죠. 뭘 통 더위 속에 사람은 피신하지만 화초들은 고문이지."

정_ "보통 집을 비울때 물은 어떻게 줘야 하죠?"

이_ "한번 과습한 것은 다시 살릴 수 있지만 말라서 고사(故死)된 것은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휴가철에 집을 비울 때는 일단 물을 최대한 확보해 주고 가는 것이 관건이에요. 보통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면 어떤 식물이 물주는 주기가 짧은지 긴지 알아요. 이 짧은 식물을 좀 더 신경써서 관리하고 놀러가면 됩니다."

정_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_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화분 받침에 물을 부어두는 거예요. 이것은 단기간에만 가능해요. 집을 장기간 비운다면 꼭 그늘로 화분을 옮긴 후 페트병에 물을 담아 거꾸로 꽂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젖은 신문지로 흙을 덮어주는 것도 있죠."

정_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요?"

이_ "세 가지를 다 하는게 가장 좋아요"

정_ "물관리 이외에 다른 관리가 필요한가요?"

이_ "여름이라 공기순환이 중요하죠. 베란다 바깥 창문은 방범 때문에 못 열어두더라도 거실과 베란다로 통하는 문과 각 방의 문들은 모두 열어서 최대한 공기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환풍기도 틀어주면 좋아요."

정_ "베란다 정말 더운데..."

이_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가끔 들려 30분이라도 환기를 시켜 달라 부탁하세요. 안 된다면 베란대에 햇빛이 안 들어오게 커튼을 다 치세요. 일종의 차광막이라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화분을 되도록 띄엄띄엄 놓아주세요. 식물들이 더위를 조금이라도 덜 먹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in

휴가를 떠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베란다 꽃밭 '물 관리'



물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큰 대야에 물을 담아 화분을 담그는 것이 좋다.



젖은 신문을 덮어놓으면 외부의 건조한 공기를 막아주고, 수분증발도 늦추는 역할을 한다.



화분 받침대가 있다면 물을 충분히 채워 놓으면 좋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 수건을 통해 서서히 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분관리를 한다.



다 쓴 영양제 튜브를 모아두었다가 화분에 꽂아두면 물이 공급된다.



페트병에 물을 담아 무릎에 구멍을 뚫어 꽂아두는 방법도 있다.(이달의 텃밭관리 참조)

마지 링겔을 맞추는 것처럼 수액공급기를 구입해 관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BEST 이선영이 추천하는 빛이 약해도 잘 피는 꽃



만데빌라

Mandevilla splendens

붉은 꽃이 화려하고 매력적인 덩굴식물로 자생지인 브라질에서는 연중 개화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후조건이 유사한 5월에서 9월에 개화한다. 트럼펫 모양으로 동백색 스민이라고도 불린다. 겨울에 5~8℃ 정도에서 휴면하므로 10℃이상 유지하고 20~30℃ 일때 잘 자란다.



펜타스

Pentas lanceolata

별축한 꽃잎이 다섯 개가 만나 마치 작은 별을 연상케 하는 꽃이다. 여름에 거의 들지 않는 남방 베란다에서도 예쁜 꽃을 보여준다.



페어리스타

Calceolaria sossensis L.

원산지가 열대로 여름철 고온에 강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작고 귀여운 꽃을 피운다. 바람이 잘 통하고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식재해야 오래 꽃을 핀다.



아프리카 바이올렛

Saintpaulia ionantha

바이올렛은 한경만 맞으면 일년 내내 꽃이 피므로 꽃이 없는 한 겨울에도 사랑받는 식물이다. 흰색, 분홍, 자주, 보라색의 꽃을 피는 식물로 잎은 두껍고 털로 덮여 있다. 잎이 물기가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글록시니아

Sinningia speciosa

꽃이 나팔모양의 종꽃이면서 키가 작아 분화용으로 키우기 좋다. 꽃색은 자홍색이 기본이지만 지금은 다양한 색깔이 나오고 있다. 반음지성 식물로 강한 햇빛은 싫어하므로 여름철에는 햇빛을 좀 가려주는 것이 좋다.



백량금

Ardisia crenata Sims

상록의 관목형으로 높이는 약 60cm 가량 자란다. 줄기는 곧게 서고 잎은 두껍고 윤기가 있다. 흰색 꽃이 피고, 열매는 공 모양으로 겨울에 붉은 색을 띠며 익는다.

Season Item

살아있는 리트머스

수국

자주색 파란색 색을 바꾸는 변덕쟁이 수국, 정원 한귀퉁이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비밀스런 수국들, 개구리 울음소리에 시원한 빗소리...

여름색이 빗줄기에 묻어나는 계절이 다가왔다. 장마철 한아름 수국으로 꾸며진 정원에서 탐스러운 여름의 색을 즐겨 보는 게 어떨까. ■ 글·사진 정지은 기자



학명 *Hydrangea macrophylla* (Thunb.) Ser.
영명 Chinese Sweetleaf
원산지 열대아시아
꽃색깔 연한 자주색이던 것이 하늘색으로 되었다가 다시 연한 홍색이 됨
꽃말 냉정, 무정, 거만, 바람둥이, 변덕과 진심

수국은 꽃의 형태가 마치 동그랗게 수놓은 듯 보인다는 의미의 '수구화'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Hydrangea'는 그리스어의 'Hydro-물'과 'Angleion-용기'가 합해진 이름으로 수국이 물을 좋아하고 물가에서 많이 나 붙여졌. 음력 6월 1일에는 수국을 꺾어 집안에 걸어 잡귀를 쫓기도 했다는데, 그 때쯤이면 장마철이다. 이 꽃을 걸어두면 보는 이의 마음도 한결 즐거우리라는 생각도 든다. 수국을 말린꽃은 건조화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차로 끓여 마시면 해열효과가 있다.

물만주면 금세 다시 싱싱해지는 수국

수국은 조금만 건조해져도 바로 말라버리는 꽃이다. 하지만 물속에 담가 두면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시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번역을 부리는 것이다. 마치 나를 바라봐달라고 시위하는 것처럼...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면 금세 다시 활짝 핀다. 또 적합한 환경에서는 다른 어느 꽃보다도 오랜 시간 피어 있다. 그래서 수국은 '진심'을 담은 꽃이면서도 '변덕'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

순따기로 다음해 풍성한 수국을 즐기자

매년 탐스러운 수국의 화려한 꽃을 보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관리가 필요한 식물이 수국이다. 관리가 힘들면 아예 마당이나 화단에 심는 게 편하다. 수국은 여름철 성장을 한 후 10월경에 꽃눈이 맺혀 겨울을 나며 이듬해

개화한다. 다음해 탐스러운 꽃을 보기 위해서는 마른(상한)줄기는 깨끗한 가위로 자르고 화분을 빗이 잘 드는 베란다나 한낮의 강한 햇빛이 차광되는 실내에서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옮긴다. 5월 중순~6월 상순 사이에 가지를 한두 마디씩 잘라 발 흙에 꽃이 꺾꽂이를 해주면 1개월 후 뿌리를 내린다. 잘 자라면 7월말이나 8월 초순에 아래서 세 마디 정도 남기고 순따기(위의 줄기 끝을 따다)를 한다. 시간이 지나 가지가 새로 나오면 포기가 풍성해지고 내년엔 꽃도 많이 달린다. 초겨울 추위에 잎이 다 떨어지면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늦가을이 되면 이제 추위에 적응시킨다.

산성이면 청색, 알칼리면 분홍색

5~8월에 산뜻한 꽃을 피우는 수국은 아외에서 카울 경우 반그늘에서 잘 자란다. 전혀 빛이 없는 곳은 안 되며, 토양은 습기가 있는 땅이 좋다. 물을 적게 주거나 공중습도가 낮으면 잎이 금방 늘어진다. 수국의 특징은 변화되는 색이다. 꽃 색이 칠면초처럼 환경에 따라 변한다. 처음에는 희다가 분홍색 또는 붉은색으로 되기도 하고, 하늘색, 청색으로 된다. 이렇게 꽃잎 색의 변화가 심한 이유는 토양의 산도 때문이다. 토양이 중성이면 흰색이지만 꽃 주위에 백반을 묻어 두고 물을 주면, 흰색이던 꽃 색깔이 차츰 푸른색으로 변한다. 또 달걀 껍데기나, 석고 가루 등 석회질로 토양을 알칼리로 만들어주면 꽃의 색이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살아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서 꽃의 색으로 토양의 산도를 알 수 있다. in

수국 잘 키우는법

햇빛 및 온도
반그늘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18℃~25℃에서 잘 자라며, 수국은 베란다에 두면 좋다.

용토 비율 20%, 모래 40%, 부엽토 40%의 비율로 혼합하여 이용한다.

물주기 수국은 물을 좋아하므로 매일 한 번 씩 물을 주고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 준다.

거름주기 적색이나 분홍색 꽃이 피는 품종은 질소 30%, 인산 10%, 칼륨 10%의 비율이 되게 청색 계통은 질소 10%, 인산 20%, 칼륨 30%의 비율이 되게 한 달에 세 번 정도 준다.

수국과 닮은 꽃



볼두화(=수국백당)

(*Viburnum sargentii* for. sterile)
인동과 원예종으로 육성된 백당나무의 변종이다. 잎은 마주나고 원형이나 끝이 셋으로 갈라진다. 높이 3m정도로 꽃은 전부 무성화로써 새로 자란 가지 끝에 피며 꽃잎은 5개이고, 꽃형태는 전체가 공처럼 둥글다. 무성화이므로 결실을 못하며 5월에 피는 황록색 꽃은 만개에 이르면 순백색으로 변하여 마치 뭉게구름 같아 주택 정원에 공원에 심어서 즐길 만한 관상수이다.



백당나무

(*Viburnum sargentii*)
키가 3m에 달하고, 잎은 마주나는데 세 갈래로 나누어진 것도 있다.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조금 있으며 잎자루의 길이는 약 2cm이다. 흰색의 꽃은 5~6월에 줄기 끝에서 산방꽃차례로 무리지어 피는데, 꽃차례 한가운데에는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춘 꽃이 핀다. 열매는 9월경에 붉은색으로 익어겨우내 매달려 있다. 내한성이 강하고 빨리 자라 뜰에 많이 심는다.



산수국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산수국은 범의귀과 낙엽관목으로 산에서 피어나는 국화를 의미한다. 산수국은 우리나라 야산이면 어디서든 볼 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사라지고 제주도의 한라산이나 지리산정도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식물이 되었다고 한다. 산수국의 잎은 들깨 잎을 연상하면 된다. 꽃잎은 4~5장의 꽃잎을 갖고 있으며 안에 작은 수술을 갖고 있는 유성화가 있으며 수술이 전혀 없는 무성화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려하고 큰 꽃잎은 벌레를 유인하기 위한 위장용일 뿐, 암술과 수술이 없는 헛꽃이며 중간에 작게 모여 있는 것이 진짜 꽃이다.



설구화

(*Viburnum plicatum* Thunb)
인동과로 일본과 대만에 분포되어 있으며 낙엽관목이다. 백색의 꽃으로 크기는 2~3m이다. 잎은 마주나며 넓은 난형으로 길이는 5~8cm이고 끝은 갑자기 좁아져서 뾰족하다. 기부는 뾰족형 또는 원형으로 거치가 있다. 잎 표면은 진한 암녹색으로 측맥은 10~15쌍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뒷면은 연녹색이 난다. 꽃 화관은 길게 갈라져 있으며 원종은 5개의 수술이 있다. 화서의 직경은 7~10cm이고 비교적 꽃은 많이 피지 않으며 절화용이나 정원수로 이용한다.

여름이 시작됐다. 여름에는 어떤 식물이든 뜨거운 태양과 부족한 수분으로 인해 식물생육에 가장 큰 악조건이다. 하지만 다육식물은 이런 환경의 변화에 가장 적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다육식물 중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꽃기린을 소개한다.

정원 속 작은 생명체 다육식물

■ 글 · 사진_ 정승환 기자 / 자료협조_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선인장처럼 뾰족한 가시가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어 줄기만 봐도 섬뜩하다. 가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당연히 선인장이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다육식물인 꽃기린이다. 선인장연구소 박흥배 연구사는 "선인장은 가시가 난 주위에 가시자리가 있다. 하지만 꽃기린은 가시자리가 없는 가시가 나 있다"며 꽃기린을 다육식물이라고 설명했다. 꽃기린의 줄기와 다르게 양중맛은 꽃은 꽃기린만의 매력이기도 하다. 이런 모습으로 고난의 김이를 간직하다는 예수님 꽃이라고도 한다. 또 꽃이 오르면 모양이 기린의 목을 닮았다 하여 '꽃기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영원히 꽃피는 다육식물

다육식물 중에서도 꽃이 계속 피는 것은 많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꽃기린은 잘만 키우면 일년 내내 꽃을 피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아프리카 유일한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에 자생하는 다육식물인 꽃기린은 줄기가 다육질로 굵기가 1~2cm 정도에 사각형으로 각이 져 있다. 또 옆으로 2m 이상 퍼진다. 잎은 길이가 4~5cm 긴 타원형이고, 잎겨드랑이에서 꽃대가 자라 나온다. 특히 꽃대가 자라 나오면 하나의 꽃처럼 보이는 소형의 잎(포엽), 꽃차례(화서)가 발달한다. 꽃기린은 주년 개화성인 식물이다. 다육식물 중 개화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꽃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반할만한 상품이다. 박흥배 연구사는 "소분화하면서 관리하기 쉬운

것이 다육식물이며 그중에서도 꽃을 계속 피는 것이 꽃기린이다"라며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을 재배육종하고 있다고 한다.

여름에 키우기 쉬운 식물

다른 다육식물과는 달리 꽃기린은 강한 직사광선에 대한 피해가 적지만 무리하게 쬌어주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워낙 생육이 강해 일반적인 광선에서 큰 영향은 없다고 박 연구사는 설명했다. 다육식물의 물 주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잎에 윤기가 사라지거나, 잎에 미세한 주름이 잡히거나 잎을 앞뒤로 살짝 휘어보아 말랑하게 휘어지면 물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물을 줄때는 화분크기나 흙의 상태에 따라 다르

장마철 다육식물 물주기

다육식물의 잎을 앞뒤로 살짝 휘었을때 말랑하게 휘어지면 이때 물을 주는 것이 좋다. 일반 식물처럼 물을 준 뒤 하루 이를 정도 지나고 잎을 만져보면 뽕뽕해짐을 느낄 수 있다. 뿌리가 건강하게 물을 흡수했다는 것이다.



다. 흙 상태가 건조하다 싶을 때는 성장기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를 넣어보고, 말랐다면 바로 물을 주는 것이 좋다. 꽃기린은 하형 다육식물로 늦가을부터는 물을 줄이고, 휴면기인 겨울에는 화분흙이 하얗게 말랐을 때 물을 줘야 한다. 화분에 뿌리가 가득찬 채로 성장하면 영양공급과 배수가 잘 안되므로 배양토에 배수가 잘 되도록 모래와 마사토의 비율을 6 : 4로 섞어 통

기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최소 2~3년에 한번은 볼에 새로운 흙으로 갈아줘야 한다.

꺾꽂이 쉽지만, 가시 주의

꺾꽂이가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5~6월쯤에 하는 것이 좋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삼목 시에는 가시의 절단면에 나오는 유액에 피부가 노출되

지 않도록 장갑을 끼는 것은 필수다. 가위로 잘린 절단면의 유액을 씻어내고, 삼목을 하면 뿌리가 나는 속도가 빠르다. 삼목 전에 삼수를 그늘에서 1~2일간 건조시킨 후 삼목하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삼목 후 바로 직사광선을 쏘이면 너무 이르게 개화되고, 분지 발생이 적어져 좋은 수형을 만들기 어렵다. 보통 삼목 후 4~6주 동안에는 50~70% 차광을 해줘야 한다. in

step by step 꽃기린 꺾꽂이



1 삼목용토는 피트모스와 코코피트의 비율을 1 : 1로 적절하게 섞는 것이 좋다.



2 꽃기린은 줄기를 절단하면 하얀색 독성의 유액이 나온다. 작업 시 위험하므로 반드시 장갑을 낀다.



3 손가락 길이 정도의 삼수를 잘라낸다. 가시가 위험하니 살짝 잡고, 자르면 된다.



4 삼수의 가시와 잎을 전정가위로 조심히 다듬어 준다. 5~6cm 정도면 된다.



5 양분이 뿌리에 갈수있도록 꺾꽂이를 잘라준다. 심기 전에 삼수를 그늘에서 1~2일간 건조시킨다.



6 트레이에 충분히 물을 주는 것이 좋다. 꽃기린 삼수의 영양분은 물과 상토 속 이온입자이다.



7 완성된 삼수를 트레이에 심는다. 삼목 후 바로 직사광선을 쏘이면 일찍 개화되므로 반그늘에 보관한다.



8 25~30일 정도 되면 뿌리가 내린다. 이후 화분으로 옮겨 심으면 새로운 꽃기린의 번식이 완성된다.

꽃기린(*Euphorbia milii* var. *splendens*) 신품종

■ 자료제공_ 선인장연구소



그레이스

꽃색깔이 황색이고 화폭은 2.7cm이다. 꽃송이는 2~4개로 꽃대당 꽃수가 많이 발생하면서 꽃의 형태가 크고 꽃 발생이 균형미가 있다.



꽃벌

꽃색깔은 황색이고 화폭은 2.7cm이다. 꽃 색깔은 적색이고, 화폭이 1.1cm 꽃크기가 작고 꽃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분지 발생이 우수하고 분지 1개당 1~3개의 꽃이 핀다.



눈보라

꽃색깔은 황색과 분홍색이 섞여있다. 화폭은 1.7cm이다. 꽃송이는 1~2개 발생하고, 분지수는 7.2개로 발생하며 엽색이 진하다.



레드라이트

꽃색깔이 선명한 진한 적색 품종이다. 줄기에 꽃차례 분지단수가 2~3개로 많이 발생하는 다화성 품종이다.



파노라마

엽색이 녹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화하는 복색으로 변화된다. 줄기에 꽃차례 분지수가 2~3개로 많이 발생하는 다화성품종이다. 식물결이 높지 않아 키우기 좋다.



파티핑크

꽃색이 흰색과 분홍색이 혼합된 복색이다. 줄기에 녹색인 꽃자루가 많이 발생하는 다화성 품종이기도 하다. 줄기의 굵기가 두껍고 꽃잎이 겹치기도 하다.



패션

꽃색깔은 연한 홍색으로 화폭은 1.8cm정도 된다. 꽃송이는 2~4개 발생하고, 분지수가 16개로 분지발생이 좋다. 잎이 다육질로 신장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화이트플래시

꽃색이 선명한 흰색이고 윤기가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깨끗한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측지의 발생이 많고, 길에 삼목번식을 하기 좋다.



INFORMATION

선인장연구회는 지난 1989년에 선인장 및 다육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했다. 현재 선인장연구회가 운영하는 쇼핑몰에는 선인장을 비롯한 다육식물을 직판하고 있다.

www.rokc.co.kr / 문의 031-925-8333

Special Item

물속의 작은 정원

수생식물



장마가 시작되고, 고온이 실내를 엄습할 때 사람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지치지 마려다. 내 정원에 어떤 식물을 키우고 싶은가. 물의 H₂O입자가 내 피부를 때려 시원함을 느끼고 싶다면 선택은 하나다. 전 세계 식물의 약 2% 정도인 수생식물을 키워보자.

■ 글·사진_ 정승환 기자 / 자료협조_ 수생식물 전문업체 '연꽃과수련'

집에서 흙을 사용한 분화용 식물만을 키우는 사람에게 수생식물을 키우는 것은 낯설 수 있다. 흙 없이 물만으로 식물을 키운다는 기대감에 수생식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식물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리인 뿌리를 통해 양분을 흡수하는 것과 다를 것은 없다. 흙에서 물로 바뀐 것이 다르다고 할까. 물론 수면 위 또는 아래에 자기만의 생리적 특성을 가진 채 종류가 구분될 수도 있겠다.

물의 자정작용 시스템

수생식물 재배 전문가 박범중 씨는 "수생식물은 일반 흙에서 키우는 식물과 비슷하다. 물은 고이던 색는다는 생각이 있지만 수생식물은 이런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물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로 수생식물을 대표적인 정화 식물로 꼽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생식물의 폐수처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부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는 하루나 하천변에 형성되어 있는 습지에 서식하는 수생식물이 수중의 유·무기 영양염류를 흡수해 수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공기가 이동하는 관 모양의 조직인 '통기조직'이 식물 전체 부피의 30~60% 정도 다양하게 차지한다. 통기조직은 식물이 물 위에 뜨게 하고, 식물체내의 공기의 순환을 가능토록 한다.

생활 양식에 따라 구분

수생식물 종류는 생활양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종류를 갖고 있는 정수성 수생식물이 있다. 정수성 수생식물은 물 아래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식물체 대부분이 물 밖에 나와 자라는 식물이다. 벼, 올챙이, 매자기, 고랭이류, 물옥잠, 물달개비 등 논에서 많이 보는 식물들이 대부분이다. 또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잎과 꽃을 수면에 띄우는 부엽성 수생식물이 있다. 보통 수련이나 연, 어리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뿌리를 수면 아래 흙에 내리고 지상부가 물에 완전히 잠긴 침수성 수생식물도 있다. 나사말, 검정말, 물수세미, 솔잎가래 등 보통 어항에 키우는 식물들이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생이가래,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등 뿌

TIP

물 속에 비료를 많이 넣었다면 욕조에 깨끗한 물을 받아 몇 번씩 물을 갈아 희석시킨다. 비료는 여름에 주면 안 되고, 봄 또는 가을에 준다. 여름에 주면 물 속 온도가 올라가 열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생식물과 같이 구피나, 올챙이, 금붕어 등을 같이 키워놓으면 생태계가 형성된 미니 정원이 완성된다.

리가 흙에 고정되지 않고 물 표면이나 수중에 떠서 물의 이동에 따라 떠다니는 부엽성 수생식물이 있다.

물관리, 증발 시 채워 넣으면 끝

땅에서 자라는 식물과 다른 점은 물관리가 특별히 필요 없다는 점. 물을 한번 채워넣으면 모두 증발할 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증발하면 다시 채워넣는 것만으로 관리가 쉽다는 것이 박



박범중씨는 수생식물은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씨의 설명이다. 또한 몇 해 전 가슴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적이 있다. 물리적으로 습기를 만드는 가슴기 대체로 수생식물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물이 썩지 않고 계속 담아 놓을 수 있고, 물을 갈아 줄 필요 없다는 것이 수생식물의 장점이죠." 박씨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물 안에 구피, 금붕어 등을 같이 키우게 되면 자연계 순환이라는 법칙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런 어류들을 같이 키우게 되면 따로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 식물들이 낙엽이 지면 미생물들이 양분을 먹게 되고, 어류들이 그런 미생물을 먹는다. 어류의 배변들은 다시 식물의 양분으로 돌아가게 되니 자연순환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물을 자주 갈아주면 위험

수생식물은 일반 나무보다도 환경 적응이 강하다고 한다. 식물의 생육이 안 좋아도 금방 회복하는 특성이 있다. 간혹 식물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물을 자주 갈아준 것이 원인이라고 박씨는 설명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매번 이사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2~3일마다 물을 갈아줘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도움말

박범중 연꽃과 수련 대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수생식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조경용 수생식물의 도매와 소매를 모두 하고 있는 경력 10년의 수생식물 베테랑 전문가이다. 직접 농장에서 모종을 키워 판매하고 있다.
문의_ 031-426-1259 www.watergardens.kr

이것 또한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생식물과 물고기를 함께 기르면 정원 속 작은 생태계 완성

수생식물은 물갈이를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단지 물이 증발하면 채워놓을 뿐. 물이 증발하는 시기는 보통 15일 정도 걸린다. 비로도 마친가지다. 박씨는 "분화용 식물들에게 주는 비료 양을 10이라고 하면 수생식물은 1/4정도가 적당하다"고 수생식물에게는 비료해가 위험적이라고 했다.

예로 다량의 유박을 물 속에 넣어두면 바로 물에 용해되어 식물이 흡수하게 된다. 이것은 식물 자체에 역상투압을 초래한다. 즉 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흡수한 양분을 다시 밖으로 내놓는 격이다. 이 상태라면 식물의 생육은 볼 보듯 뻔하다. in



Garden Knowledge 수생식물, 이것만은 알아

- **구입**_ 국내 수생식물 업체는 많지는 않다. 다 현장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식물 특성상 택배 거래는 하지 않는다.
- **물관리**_ 물을 자주 갈아주지 말아야 한다. 물을 한번 채우고 마르는 기간은 평균 15일 정도. 물이 증발하면 새로 넣어 주는 것만으로 물 관리는 끝이다.
- **병해충**_ 응애류는 거의 끼지 않는다. 진딧물은 일 년에 한번 정도 발생한다. 일반적인 방제는 분화용과 같다. 단 비료는 일반 흙에 주는 양의 1/4 정도.
- **장마철관리**_ 장마철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우자랄 염려가 있다. 베란다에 햇빛이 간혹 비칠 때 햇빛 방향에 배치해 주는 것이 좋다.



일반 분화류 식물보다 키우기 쉽고, 여름에 시원한 기분을 만끽하자면 수생식물을 잡는다고 말했다.

9

전문가가 추천하는 정원에서 심을 수 있는 수생식물



흰줄무늬사초

Carex spp.

반그늘과 약간 습하고 배수가 잘되는 곳에서 자라는 흰줄무늬사초는 잎이 직립하고, 꽃은 작다. Carex종은 꽃의 형태, 엽맥의 분포 등으로 통해 구분할 수 있다.



흰꽃창포

Iris ensata v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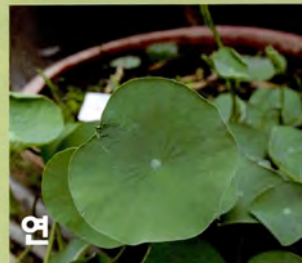
붓꽃과인 흰꽃창포는 유럽이 원산지다. 꽃은 5~6월에 피고, 꽃 밑에 큰 포(苞)가 새 주둥이 모양으로 길게 비스듬히 나와 있다. 꽃은 흰색이고 안쪽으로 노랑색이며 뾰족한 무늬가 있다.



속새

Equisetum hyemale L.

크기는 보통 30~60cm 정도 자라며 줄기에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다. 잎은 퇴화해 없고 뿌리는 옆으로 뻗었지만 모여 있다. 실외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다.



연

Nymphaea nuxtelera

한여름 은은한 향으로 꽃이 필 무렵 분홍빛이 돌다가 나중에는 얼어서 백색이 된다. 수련 잎이 물 표면에 뜨는 것과 달리 연 잎은 물위로 솟아 오른다.



칸나

Canna americana variegata

칸나의 한 품종으로 호피무늬 갈라. 잎이 호피와 같은 무늬가 있어 감상 가치가 높다. 칸나는 원래 자생지에서는 수변 혹은 습지식물이다. 열대와 아열대가 원산지이다.



시페루스 헬페리

Cyperus pennis Max.

방동사나과 식물로 난초를 연상케 하는 수초이다. 군집하여 식재하면 아름다움이 더하다. 환경이 좋으면 크게 자라며 수면 위를 덮는 특성이 있다.



열대수련

Nymphaea tetragona Georgi

뿌리에서 나온 긴 잎자루에서 나온 타원형 잎은 물 위에 뜨며 화살촉처럼 가운데가 갈라진다. 흰색, 연분홍색 등 화색이 다양하고 꽃은 5~6월에 포기 중심에서 핀다.



물아카시아

Aeschynomene fluitans

콩과 식물로 '물미모사'라고도 한다. 미모사처럼 건드리면 반응해 잎을 접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생명력이 매우 강해 밖에서 키우면 줄기가 목질화 된 것처럼 딱딱하다.



물배추

Pistia stratiotes L.

생이가래와 함께 수질 정화력이 뛰어난 식물로 상추 모양을 닮아 'water lettuce'라 부른다. 물을 많이 먹지만 키우기에는 매우 쉬운 식물이다.

우리집 향기 식물

별과 나비만 유혹하라. 향기로움에 취해보자. 꽃이 피는 식물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에 반하기 마련이다. 꽃의 생김새와 색을 감상하는 맛에 꽃을 키우기도 하지만 은은히 풍겨오는 향기로움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정원 한 곳을 향기식물로 채우기도 한다. 특히 이 여름날 달콤함을 가득 안고 싱그러움을 연일 뿜어내는 향기로운 정원 식물에 대해 알아보자. ■ 글·사진_정지은 기자



치자

Gardenia jasminoides for.

녹진한 부드러운 크림향으로 유혹하는 달콤한 치자. 중국과 한국 남부지방에 분포하는 치자는 푸른 넓은 잎사귀에 부드러운 하얀색 꽃이 피는 나무이다. 꽃말은 청결, 순결, 행복이며, 영국 왕실 정원에서는 치자꽃만으로 정원을 꾸며놓았다 하니 얼마나 귀족적이고 사치스러운 꽃이 아닐 수 없다. 향이 멀리까지 퍼져서 집 안에 다른 방향제를 놓지 않고서도 즐길 수 있다.

회향

Foeniculum vulgare

산형과에 속하는 방향성의 다년생 또는 2년생이다. 꽃은 황색으로 7월에 피며 과실은 난상타원형으로 향기가 매우 강하다. 식물체의 모든 부위에서 향기가 나며, 씨에 정유를 함유하고 있어 비누나 향수에 향을 내거나 음료수 등에 맛을 내는데 사용한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다. 초여름이 되면 가지 끝에 노란색의 작은 꽃이 우산 모양의 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열매는 분열과이며 달콤한 맛과 향기가 난다.

야래향

Cestrum Nocturnum

모기를 쫓는 대표적인 식물로도 알려진 야래향. 안개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이국적인 달콤함 야래향은 베란다 제일 안쪽에 놓아 기르는데 좋다. 밤에만 꽃이 피며 방 안까지 향이 들어올 정도로 향이 멀리 퍼진다. 야래향의 향기를 맡아본 이들은 신비로움에 향기의 근원지를 찾아 나서게 될 정도이다. 가지는 뾰기는 하지만 옆으로 멋드러진 가지는 없다.



서향나무

Daphne odora Thunb.

옛날 어느 스님이 절간에 맡은 기본 좋은 향기를 찾았더니 이 꽃나무를 발견하고 잘 수(睡). 향기 행(香)인! 수향이라 부르다가 상서로운 향기라 하여 서향이라고 불렀다 한다. 꽃말은 '꿈속의 사랑' 꽃이 피면 독특하고 진한 향기가 멀리까지 간다고 하여 천리향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이름은 향기를 강조하느라 붙여진 유행상의 이름일 뿐 정식명칭은 서향나무이다. 흰꽃이 피는 백서향은 현재 희귀식물이기도 하다.



수수꽃다리

Syringa dilatata

수수꽃다리는 원뿔모양의 꽃차례에 달리는 꽃 모양이 수수꽃을 닮아서 '수수꽃 달리는 나무'가 줄어 수수꽃다리가 되었다한다. 4~5월 봄밤이 되면 풍겨오는 수수꽃다리의 매력적인 향기는 꽃말처럼 사랑에 설레게 한다. 추위에 강하고 병충해, 공해 등에도 강해서 조경용으로 많이 심는다. 꽃의 정유는 향료의 원료로 사용하며 동양에서는 향기가 사향 같다고 하여 꽃잎을 향합이나 향계에 넣어 지니고 다녔다.

올마

Cupressus macrocarpa var.

연초록의 연한 잎사귀가 청량함을 뽐내는 듯한 올마. 상큼한 레몬즙을 섞어 만든 향기 좋은 비누향이 난다. 올마는 한 그루의 나무를 축소해놓은 듯해서 집 안에 두면 마치 카페와 같이 아늑하고 아늑하기만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 게다가 피톤치드 성분을 뽐내 삼림욕 효과가 있다. 올마의 잎을 말려 잘게 부순 후 주머니에 넣어 방향제로 쓰거나 작은 바구니에 담아 차 안에 두어도 좋다.



란타나

Lantana camara

오이 향 혹은 레몬버베나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향 란타나는 꽃이 매우 아름다워 보기에도 좋고 향도 좋은 매력적인 화초다. 꽃의 색은 황색, 주황색, 분홍색, 적색 등 다양하다. 색깔이 일곱번 변한다고 하여 칠변화라고도 불린다.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정원수로 흔히 심지만 아메리카 열대 지역에서는 침초로 취급받는다. 란타나 씨앗에는 독이 있으니 애완동물물 키우거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주의해야겠다.



아라비안 재스민

Jasminum sambac L. Aiton

물푸레나무과로 인도가 원산지이다. 꽃은 밤에 피어 낮에 지며 열매는 검보랏빛으로 열린다. 중국남부에서 많이 재배되는 중국의 자스민차(모리화차)는 이 재스민으로 만든 것이다. 정신이 몽롱한 것 같은 달콤함, 향수를 몽땅 쏟은 듯 풍부한 향. 재스민 중 최고의 향을 가져 향기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작은 꽃 한 송이만 피어도 온 집 안에 향기가 넘치는데, 꽃이 일 년 내내 피고 지기 때문에 향기가 마르지 않는다. in

내 정원 속의

나비



서울숲이 최근 확장 공사를 끝낸 나비정원을 재개장했다. 사람이 아닌 나비를 위한 정원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이상기 후와 인간의 소비를 통한 오염으로 나비의 멸종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내 정원에 나비를 부르려고 싶다면 어떤 식물을 선택해야 할까. 가드너로서 국내 나비보호를 위한 의무감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

■ 글 · 사진_ 정승환 기자 / 자료_ 서울숲 공원(안홍균 연구원), 인천대 생물자원환경연구소(김용기 박사), 빛고을 생태연구소(정현천 박사)

멸종위기에 처한 나비

예쁜 꽃과 나무로 나만의 정원을 완성했다. 허브의 향기와 포도나무의 당도 짙은 포도 내용은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정원은 있지만 생명감이 없다. 새의 노

래와 곤충의 날갯짓이 없다면 동적인 정원을 꾸미고 싶은 이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다. 나비와 꿀벌, 새를 정원 속 등장인물로 출연시키지 못한다면 정원은 비어있는 예쁜 용기와 같다. 식물을 재배하는 노하우를 알았다면 곤충과 새를 불러 모아 내 정원의 마침표를 찍어보자.

국내에는 268종의 나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이 중 23종(한경부, 2011)을 멸종위기종으로 선정했다. 매년 한 종씩은 멸종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릴 적 동네 뒷산에서 볼 수 있었던 왕은점표범나비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보면 우울하다. 인천

대 생물자원환경연구소 김용기 박사는 “국내 나비는 기후변화와 과거 90년대부터 하천 정비사업과 국토개발사업으로 인해 평지의 식물들이 훼손됨에 따라 이런 식물을 흡밀하는 초지성 나비류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에서 국립생물자원관, 산림과학원 등에서 나비 개체수 파악과 종 보호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나비가 가장 다양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나비가 더 다양하게 살고 있다. 함평나비축제 성공의 주역인 정현천 박사는 “한반도의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서 아한대에서 아열대까지 기후 요소가 나타나고, 산지가 많아 식생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면적이 비슷한 영국의 나비 종류가 60여종으로 우리의 1/4 수준인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 나비의 다양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나비를 보호하고, 정원으로 부르기 위해선 사육하는 것보다는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는 것이 좋다. 서울숲공원 곤충식물원 안홍균 연구원은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등에서 넘어오는 나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나비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먼저 들여오는 것이 순서이다”라며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종류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보통 초지를 좋아하는 나비로는 노랑나비, 배추흰나비, 줄점말랑나비 등이 있다. 낮은 산이나 숲을 선호하는 나비로는 큰줄흰나비, 남방부전나비, 푸른부전나비 등으로 초본류 보다는 목본류 식물을 좋아한다.



나비를 매혹시키자

정원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비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고려한 나비의 서식지를 꾸며주는 것도 좋다. 정현천 박사는 “우리 주변에 나비가 날아다니면 왠지 기분이 좋지만, 반대로 화단에 꽃을 심었는데 나비가 찾아주지 않는다면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비가 꽃을 방문하는 이유는 색과 냄새에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나비가 꽃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색에 의해 이끌리고, 가까이 다가서면 향기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이다. 국내에 서식하는 나비는 일반적으로 흰색과 붉은색, 보라색, 청색 등 화려한 꽃에 잘 모인다. 정 박사에 따르면 나비는 보라색에 가장 잘 끌

리고 다음으로 노랑색, 청색, 붉은색 순으로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비를 위한 정원이라면 정원 자체는 볼품없을 지도 모른다. 나비가 먹이로 하는 식물들을 키워야 되므로 구멍이 뚫린 채소나 식물의 잎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 과정을 거쳐 성충이 되는 완전변태를 한다. 애벌레 과정에서는 정해진 식물만이 영양 유지에 필요하고 성충이 되면 식물의 꽃에서 즙을 흡수한다. 이런 나비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기주식물과 흡밀식물이라고 부른다. 나비마다 기주식물이 다르다. 식물마다 자신을 지키는 화학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비마다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식물을 골라먹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나비가 좋아하는 흡밀식물은 귀화종이 많지만

나비에게 친근한 식물들



금계국 *Coreopsis lanceolata*
한여름에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이다. 도로변 관상용으로 많이 쓰이는 금계국은 꽃색은 노란색으로 6~8월에 핀다. 줄기는 30~100cm까지 자란다.



꽃범의꼬리 *Physostegia virginiana*
종처럼 생긴 꽃받침을 가진 꽃범의꼬리는 7~9월에 홍색, 보라색, 흰색으로 핀다. 꽃받침의 뒷잎은 통글며, 아랫잎은 3개로 갈라진다.



꽃잔디 *Phlox subulata* L.
꽃잔디는 숙근성으로 가지가 지면을 덮는다. 잎의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털이 있다. 3~9월에 피는 꽃은 붉은색, 자홍색, 분홍색, 흰색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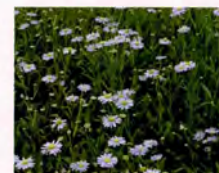
꽃향유 *Eisholtzia splendens*
이름처럼 향기가 강한 식물이다. 꽃이 첫술 모양으로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핀다. 집 마당에 4월쯤에 씨앗을 뿌리면 그해 가을에 자라 꽃이 핀다.



별개미취 *Aster koraiensis* Nakai
6~10월에 꽃이 피는 별개미취는 쑥부쟁이와 구별하기 쉽지 않다. 햇볕이 잘 들고 습기가 충분한 계곡에서 자라고 오래 집이 많은 흙에 키워야 좋다.



붓들레이 *Buddlejia davidii*
양지식물로 산골짜기나 길가, 산기슭에 잘 자라는 붓들레이는 7~11월까지 오랜 기간 꽃이 핀다. 꽃은 라일락처럼 향기가 좋다하여 '섬머릴락'이라고도 부른다.



쑥부쟁이 *Aster yomena*
구절초와 함께 가을에 정원이 있다면 꼭 있어야 할 꽃이다. 한 포기에서 꽃이 300개 이상 작은 반원을 형성해 핀다. 이른 봄에 새로 나온 눈, 포기를 떼어 심는다.



털머위 *Farfugium japonicum*
겨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늦게까지 피는 아생화다. 초겨울에도 종종 꽃을 볼 수 있다. 잎 모양이 좋아, 실내의 분화용이나 정원의 소재로 쓰인다.

자생식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나비마다 꽃이 피어 있는 장소, 꽃의 색, 냄새, 꿀의 분비시간 등에 의해 자기가 좋아하는 흡밀식물이 다르다. 나비가 꽃에 앉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꿀을 빨아먹어야 진정한 흡밀식물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식물들로 정원 전체를 꾸미는 것보다는 나비에게 필요한 기주식물과 흡밀식물들을 화분에 심어서 선택적으로 키우는 것이 전체적인 정원의 아름다움을 덜 손실시킬 수 있다.

나비가 좋아하는 야생화 정원

나비를 위한 정원을 만들려면 나비가 좋아하는 흡밀식물의 종류를 알고, 관련된 식물들을 심어

야 한다. 여러 나비가 교차하는 탱자나무, 산초나무 등의 운향과 식물과 당귀, 방풍 등의 산형과 식물을 메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 야외에 나비를 위한 정원을 조성하려면 가을에 꿀풀과인 배추향을 심고, 그 옆에 케일을 심어 놓으면 기주식물과 흡밀식물을 통해 나비를 볼 수 있다.

자생식물로는 양아초, 싸리, 벌개미취 등의 식물이 나비를 유인하는데 좋은 식물소재가 된다.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나비별 좋아하는 흡밀식물이 있다고 한다. 노랑나비는 개망초, 붉은토끼풀, 벌개미취, 큰금계국, 자운영 등을 선호한다. 배추흰나비와 큰줄흰나비는 개망초를, 호랑나비와 제비나비는 익모초, 황벽나무, 산초나무, 굴나무, 탱자나

무 등을 좋아한다. 네발나비와 줄점팔랑나비는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등의 꽃에서 나오는 즙을 선호한다고 한다. 암끝검은표범나비는 중지나물과 제비꽃류를 흡밀식물로 하고 있다. 또한 라벤다, 꽃잔디, 솔채꽃 등도 나비들에게 필요한 풍부한 즙을 머금고 있다. 봄에 피는 무늬꽃잔디와 비단향꽃무, 가을에 피는 세덤류나 개미취류도 좋은 식물이다. 또 흡밀하는 식물 중 나비가 선호하는 꽃색도 있다. 나비는 보통 흰색 꽃을 주로 선호하고, 5월에는 황색, 6월과 10월에는 흰색, 8월은 붉은색의 흡밀식물을 좋아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정원을 꾸미기 전에 하나의 구역을 설정해 정원을 꾸며보자. 나비가 자유롭게 나의 정원으로 들어올 때 그 생경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in

매혹적인 정원을 위한 나비 BEST 5



암끝검은표범나비

저지대의 밭 주변의 초지, 시가지 내의 공터에서 서식한다. 먹이식물이 있는 주위 물에 하나씩 알을 낳는다. 2월에서 11월에 걸쳐 연 3~4회 출현하고 각종 제비꽃류를 먹이식물로 한다.



제비나비

전국 산지의 계곡에 서식하는 제비나비는 계곡의 습지에 잘 모이는 수컷과 어두운 장소에 있는 먹이식물 및 뒷면에 하나씩 알을 낳는다. 먹이식물로는 운향과 상산, 산초나무 등이 있다.



배추흰나비

배추와 무밭 등의 경작지나 주변초지에 서식하는 흔한 종이다. 봄형은 4월에서 6월, 여름형은 6월에서 10월에 볼 수 있다. 먹이식물로는 십자화과 배추, 무 등을 먹이식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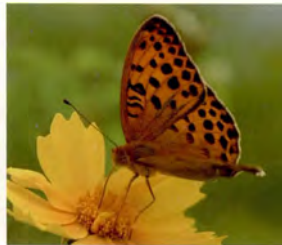
남방부전나비

는, 밭 주변, 가정의 정원 등의 초지에 서식한다. 초지에서는 민들레, 개망초, 쑥부쟁이 등의 꽃에서 꿀을 빨는 일이 많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여러 특히 가을에 개채수가 가장 많다.



호랑나비

전국 어디나 마을 근처 평지에 서식한다. 맑은 날 여러 꽃에서 꿀을 빨고, 축축한 습지에서도 잘 모여 흡수한다. 먹이식물로는 운향과 산초나무, 탱자나무 등이 있다.



흰줄표범나비

초지나 하천 주변 등에서 서식하는 나비로 엉겅퀴처럼 보라색 계통의 꽃이나 개망초, 큰까치수영처럼 흰 꽃에 잘 모여 꿀을 빨다. 여름잠을 자고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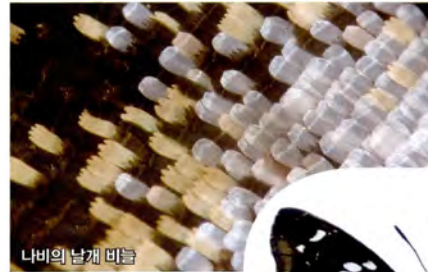
전문가가 이야기 하는 나비의 날개



나비의 날개가 아름다운 것은 날개 표면에 가득한 비늘가루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비늘가루는 마치 세포와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이 비늘가루는 기왓장 모양으로 질서 정연하게 날개에 꽂혀서 배열되어 있는데, 다양한 색채와 무늬가 나타나게 하는 열쇠가 된다. 즉 날개의 색채와 무늬는 비늘가루의 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것은 애벌레가 먹이식물(식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화학물질에 의하거나 번데기 시기에 생기는 노폐물을 포함한 색소가 더해져 형성색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를 색소색이라고 한다.

사는 장소에 따른 색의 변화

또 날개의 비늘가루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나타나는 구조색과 이 두 가지의 조합에 의한 복합색이 있으며, 이들 색 때문에 나비는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화려하고 현란한 색상을 지니게 된다. 특히 구조색은 날개 표면에서 빛의 간섭이 일어나 광채를 띠는데, 오색나비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을 한 예로 들



명할 수 있다. 또한 나비는 사는 장소에 따라 날개의 색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작은 차이여서 초보자 느끼기 어렵다.

변온동물인 나비의 체온은 기온이 좌우하므로 태양열을 날개를 통해 열마나 흡수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물발에 사는 나비는 태양에 많이 노출되므로 날개의 색이 밝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숲에 사는 나비는 상대적으로 태양에 덜 노출되므로 날개의 색이 검은 편이다. 대개 평지에 날아 나온 제비나비와 같이 검은색의 나비는 몸이 뜨거워지기 전에 평지를 빠르게 통과하게 된다.



정현천
빛고령생태연구소 소장
이순영 전 환경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함께 환경·나비축제를 기획했다. 한평생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시 '한국산 나비류의 인공증식 기법과 유전변이'라는 논문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heoncheon@hanmail.net

날개 형태에 따른 나비 속도

날개의 역학적인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재 나비와 잠자리 등 여러 곤충의 비상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대개 날개가 넓으면 나는 속도가 느려지고, 삼각형이고 폭이 좁으면 빠르다. 또 날개에 에너지가 공급해 주는 몸통의 크기도 나는 속도를 좌우하게 된다. 즉 흰나비를 대부분은 날개에 비해 몸통이 가늘기 때문에 빨리 날지 못하지만 대신 기류를 이용한 방향전환이 빨라 새나 잠자리 같은 천적을 피할 수 있다.

한편 팔랑나비 무리는 날개가 삼각형이고 몸통이 커서 아주 빠르게 난다. 팔랑나비가 나는 속도는 40km/h로 조사되어 있는데, 나비 중에는 빠른 속대 속대 작은 크기인데다 짧은 거리를 이만한 속도로 날면 우리 눈으로 쫓아갈 수 없다. 큰 날개를 가진 나비는 초당 8~12번 날개를 흔든다고 한다.

날개의 맥은 체액이 드나드는 통로가 될 뿐 아니라 날개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중 앞선두리맥은 날아다니는데 매우 중요해서 만약 이 부분이 상하면 나비는 제대로 날 수 없게 된다. 날개 맥의 생김새는 종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분류학자들은 이 맥의 차이를 찾아내 나비의 진화 계통을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비가 오면 곤충은 날아다니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비늘가루가 덮인 나비는 비가 어느 정도 와도 날아다닐 수 있다. 그 이유는 비늘가루가 지방질을 품고 있어서 물이 흡수되지 않고 물방울처럼 동그랗게 되어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한편 아침 일찍 또는 기온이 낮은 높은 산에서 사는 나비인 경우 온도차 때문에 몸에 작은 이슬방울이 맺힐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물이 비늘가루에 스며든 것 아니라 실내와 온도차가 나는 유리창에 성에나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번개오색나비



나비의 날개 무늬

생활의 재발견

플라스틱이나 나무도 화분이 된다

식물을 심어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실외용 컨테이너(화분)는 크기가 클수록 토양을 충분히 담을 수 있어 식물을 관리하기 편하고 목본식물도 심을 수 있다. 그러나 크기가 큰 화분은 비싸고 운반하기 어려운데다 서늘이 아닌 지방에는 판매처가 적어 구하기 어렵다. 지난 호에 이어 장식 효과가 있으면서 저렴하고 구하기 쉽거나 만들기 쉬운 컨테이너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 글·사진 손관화 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재미있는 시각적 효과의 플라스틱 상자

주변의 생활공간을 살펴보면 땀, 우유, 음료 등의 여러 제품을 유통시킬 때 이용되는 플라스틱 상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 상자는 크기와 색이 다양하고 구멍이 나 있어 바닥에 부직포를 깔면 화분 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벌써 옥상의 텃밭용 화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플라스틱 상자의 색과 형태를 고려하고 이들의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래의 용도와 모습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시각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특히 2010년 오스트리아의 틀른 정원박람회에서 감정적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해 버티칼가든(vertical garden)을 선보였고, 올해 천안연암대의 가드닝전시와 순천만정원박람회에서도 여러 가지 색의 플라스틱 박스를 화분 대용으로 이용하여 눈길을 끌었다. 기존 박스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다양한 색과 크기의 상자를 구매할 수 있다.



비용 없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상자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담은 나무 상자를 화분 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방부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간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비용없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어 일회용으로 이용해도 좋다.

요즘은 과일 유통시 종이 상자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다.

플라스틱 상자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멋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2010년 프랑스의 소용 가든페스티벌에서는 나무 상자를 이용한 버티칼 가든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경계표시와 동시에 색 효과를 나타내는 목재 테두리

정원에서 화단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계를 만드는데 그 중 페인팅한 목재로 테



두리를 만들면 경계 표시와 동시에 색의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테두리용 목재를 토양이 없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컨테이너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장 가볍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재는 두께가 2cm이고 폭이 12cm인 목재(20T×120×3600mm)이다. 원하는 색으로 페인팅을 하면 일반목재를 이용해도 되지만 오래 유지하려면 방부목이 좋을 것 같다.

주변 목공소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원하는 크기로 주문하면 잘라서 택배로 보내준다. 각도절단기가 있으면 직접 원하는 크기로 잘라 샌딩해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든 후 드릴로 피스를 박아 사각형을 만들어 페인팅한다. 폭이 10cm인 목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12cm 정도는 되어야 토양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필요하면 더 높게 테두리를 만들어도 된다.

목재 테두리를 바닥에 배치하고 부직포를 깔아 타카로 목재에 고정시킨다.

토양을 담고 식물을 심는다. 식재 후 옮길 수 있는 일반 컨테이너와 다르지만 식물을 다시 심을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다.

대형 컨테이너가 필요할 경우 철판을 자르거나 구부러 제작 할 수 있다.

주변에서 원하는 크기와 형태의 대형 컨테이너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철판을 자르거나 구부러 고 또 용접하여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장비가 없는 일반인은 작업을 할 수 없어 철공소에 의뢰해야 하므로 비교적 비용이 비싼 편이다. 그러나 철공소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어 어디에서나 원하는 크기와 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며 철물의 독특한 형태와 질감으로 좋은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문 제작시 배수구를 잊지 말고 뚫도록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바닥에서 약간 높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철판을 페인팅할 수도 있지만 녹슨 상태로 두는 방식이 많이 이용된다. 단점은 철물이 토양에 닿아 금속 성분이 녹아나와 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여름 햇빛에 철물이 너무 뜨거워져 철물에 놓여져 달은 식물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in



GARDENING DIY

Green Interior Terrarium

투명한 용기에 식물을 무리지어 심는 테라리움.
탐스러운 여름꽃 수국, 아기자기 미니장미, 새빨간 만데빌라로
여름향기 물씬나는 내방의 작은정원을 꾸며보자.



테라리움은 라틴어의 흙(terra)+방(arium)의 합성어로 투명한 용기의 내부에 토양을 넣은 후 작고 아름다운 식물들을 배치해 가는 것을 말한다. 테라리움을 밀폐형 용기에 구성할 경우 수분을 잘 조절하여 밀폐를 하면 내부의 수분이 순환되면서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별도로 물을 주지 않아도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다. 영국 출신의 의사 'Nathaniel Ward'가 밀폐된 용기에 흙을 채우고 나비의 유충에 관한 연구를 하던 도중 그 속에서 포자가 발아하여 자라는 것을 발견한데서 시작된 것이다. 이후 유럽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1850년대 이후에 미국인들이 실용화 시켜 워드 안 케이스(wardian case)로 불리다가 후에 테라리움(terrarium)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통용되고 있다.

용기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속이 비치는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밀폐식, 반밀폐식, 개방식 용기로 분류할 수 있다. 용기의 크기, 입구의 개폐 정도에 따라 구성을 매우 다르게 해야 하며, 같은 식물을 식재 하여도 용기에 따라 다른 느낌이다. 개방식 용기의 경우 수분 순환작용으로 인한 수분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형태에 비해 좀 더 잦은 관수가 필요하다.

토양은 가벼운 것으로, 솟은 자체 정화에 도움

유리 용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무거우면 파손의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토양은 가볍고 소독이 잘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솟을 바닥에 사용하면 자체 정화에 도

움이 된다. 인공토양인 피트모스,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등을 다른 토양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면 좋다.

무리 짓는 식물의 환경은 비슷한 것끼리

비슷한 환경의 식물들을 함께 사용한다. 특히 물 관리 조건이나 광 요구도가 다른 식물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물주기는 겉흙이 2~3cm 정도 건조할 때

유리병이라는 특수한 환경 내부에서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화단과 같은 장소나 화분에 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요구한다.

광선 투명한 용기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직사광선은

유리용기 내부온도 급상승의 요인이 되며, 심한 경우 식물이 고사하게 된다.

온도 용기 내에 심어진 식물의 생육 조건을 파악한 후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관수 식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토양의 표면이 2~3cm 정도 건조되면 관수한다. 다육식물의 경우 완전히 건조된 후 관수한다.

시비 단순히 식물을 키우거나 길이 생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량보다 약간 적은 양으로 시비하면 그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방제 해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좋다. 밀폐형의 경우 해충의 알이나 벌레집이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n

step step

싱그러운 미니 여름정원, '개방형 테라리움' 만들기

준비물 투명한 용기(지름 25cm), 마사토 또는 자갈, 배양토, 모종삽, 장식용 조개 껍데기, 식물(만데빌라, 수국, 미니장미, 황금타라, 마삭줄, 아이비, 피토니아)



투명한 용기에 마사토 또는 자갈을 깐다.



주지가 되는 식물(중심이 되는 식물)로 자리를 잡아준다.



나머지 식물들로 포인트를 주어가며 빈 곳을 채워준다.



식물이 자리를 잘 잡도록 흙을 채워가며 다듬어준다.



적당히 물을 준 다음 조개 장식으로 마무리를 해준다.



시원한 여름 분위기의 미니정원이 완성 됐다.

도시 가드너들의 톡톡 튀는 생활 속 아이디어



도시 가드너들의 생활 속 가든 DIY 아이디어가 상상을 초월한다. PET 병이나 스티로폼 박스, 꽃바구니 등을 이용한 재활용 미니 가든 만들기에는 이제 구태가 된 듯하다. 우산, 이젤, 파티션 등 생활의 모든 도구가 가든의 재료로 변신했다. 전문가가 아닌 순수 도시 가드너들의 손에 의해서 말이다. 그만큼 '가든'이 도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 아마추어 도시 가드너들의 창의성이 돋보였던 서울시 도시농업경진대회가 지난 6월 14일 서울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아이디어 뱅크 '아마추어 가드너'들의 생활속 가든 지혜를 함께 배워보자. 참고로 대회는 접시정원과 아이디어텃밭농원,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했는데, 본지에서는 아이디어 텃밭농원 부분 참여 작품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 마음을 담아... (진연희, 최우수상)

초등학교 아들과 함께 완성한 작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아이디어로 활용한 것부터 이채롭다. 썸채소를 태극기로 표현한 3단형 텃밭이다. 최상층엔 채소를 길렀고, 2단은 퇴비 발효장을 만들었다. 하단에는 지렁이 분변토의 저장고를 만들었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고, 지렁이 분변토로 유기농 퇴비를 완성한 건강한 채소의 생산 원리가 흥미롭다.



▲ 재활용 자동급수기 (김용제 장려상)

PET 병 및 스티로폼을 재활용했다. 자동 급수기를 만들어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간 외출해도 물 관리로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 휴가시절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더욱 돋보였던 작품이다.



◀ 수직텃밭(김경원)

마 소재의 천을 활용해 파티션을 식물농장으로 변신시켰다. 물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심지를 활용한 아이디어도 돋보인다. 관수를 용이하게 했고, 파티션에 온도계를 달아 식물의 최적 환경도 체크한다. 가위와 같은 도구도 매달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데코레이션의 미를 살렸다.



▲ Enter (황지영 장려상)

식막한 도시에서 자연으로 통하는 문을 완성했다. 마치 동화속 나라로 향하는 입구처럼 동심도 자극한다. 작가는 도시에서 자연으로 향하는 문을 통해 도시농업의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했을 터. 그 발상이 신선하다.



▲ 두 배의 즐거움 (박창욱)

가정에서 쓰다 망가진 우산을 이용하여 도시농업텃밭을 완성했다. 바닥에 놓지 않고 공중에 매달 수 있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아래 모두 식물을 키울 수 있어 수확의 기쁨도 두 배로 맛볼 수 있다.



▲ 고희의 꿈... (박지영)

사용하다 버려진 이젤을 이용해 층을 만들었다. 그 안에 썸채소와 국거리를 심었고, 키가 큰 난 화분을 이용하여 파괴고추와 청양고추도 심었다. 친환경 거름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건강한 채소 재배기이다. [in](#)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왕초보 박소영씨의 텃밭 가꾸기 I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 소장

“쉬고 싶다.” 지난 5월 주말농장을 분양받은 박소영(43)씨는 텃밭을 가꾸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고 한다. ‘텃밭에서 쉼을 찾는다.’ 농부들이 들으면 화를 낼만한 텃밭을 분양받은 동기이다.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부와 단순히 쉬기 위해 주말농장을 하려는 도시민들과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쉼이란 도시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자연을 접하는 것으로 쉼을 갖고 싶다는 것.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그이지만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텃밭을 일궈나가고 있다. 하루에 한번 정도는 텃밭관리를 하면서 구슬팔도 흘리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간다. 생일파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잡초도 뽑는다. 한 평 남짓한 텃밭에 토마토랑 상추 등의 쌈채소도 심었다. 심은 채소로 이미 식탁은 풍성해졌고, 그가 찾은 즐거움은 대풍을 거둔 농부의 마음과 같다. 초보 박씨와 같은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가꾸려는 이들을 위한 유봉수(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의 제언, 텃밭 농사 이렇게 시작해라.



일반 농법과 텃밭 채소의 차이

일반농법이 단위 면적당 상품이 있는 농작물을 저비용으로 많이 생산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말농장이나 텃밭 가꾸기는 가족과 함께 키우고 가꾸고 수확하는 즐거움, 안전하고 맛있는 웰빙 밥상을 책임지며, 나아가 이웃과 나눠 먹는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텃밭이 주는 즐거움

텃밭의 녹색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고, 자연의 소중함과 농부의 땀방울, 누는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무공해 농산물로 가족 건강을 지키고 운동효과까지 볼 수 있으니 일석다조. 자녀들에게는 살아 있는 자연학습을 시킬 수 있고, 자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도 있다. 무엇보다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 아닐까.

텃밭이나 주말농장은 어떤 곳이 좋을까

텃밭은 가급적 자동차로 20~30분 이내의 거리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또 햇빛이 잘 들고 토양이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은 곳을 택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물을 줘야 하므로 물을 사용하기 편리한 곳이 작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어 텃밭 위치로 적당하다.

텃밭 가꾸기에 좋은 땅이라면 진흙과 모래성분이 적당히 섞여있는 참흙 및 모래. 그리고 참흙땅 부식질 함량이 많고 양분과 수분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곳, 햇빛이 잘 들어 매연이나 먼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땅, 사는 곳과 가까우며 텃밭주위에 물이 있는 곳이라면 더 좋다.



채소가 잘 자라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이여짓기 가능한 연한 텃밭채소 성공의 기본은 양질의 퇴비 확보가 중요하다. 퇴비는 산야초나 짚, 왕겨 등 식물성 재료에 가축 분을 첨가해 충분히 부숙시킨 것이 좋다. 만들기 어려우면 시중에서 파는 양질의 완숙퇴비를 구입해서 사용해도 된다. 완전이 부숙된 퇴비는 냄새가 없다. 주는 양은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3평) 퇴비 12~15kg과 석회 1.2kg을 밭 전면에 골고루 뿌려 준다.

씨앗을 심을까, 모종을 심을까

채소는 심는 방법에 따라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묘를 사서 심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씨앗을 뿌려 키우면 처음부터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지만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루할 수 있다는 점과 초보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패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고추, 가지, 토마토처럼 모종을 기르는 기간이 60~80일 정도로 긴 것은 종묘상(때로는 꽃집)에서 모종을 구입해 심는 것이 좋다. 초보자라도 씨앗을 직접 뿌려 키우기 좋은 것은 상추, 쑥갓, 열무, 시금치, 엇갈이배추, 강낭콩, 콩, 옥수수 등이며, 모종을 사서 심는 것이 유리한 것은 고추, 가지, 토마토, 오이, 호박, 고구마 등이다.

씨앗 구입은 어디서

안정적으로 종자를 받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하여 종자를 구입하도록 한

다. 신용할 만한 종묘회사, 발아율이 높은 것, 재종 시기가 가능한 최근인 것을 구입한다.

좋은 모종 고르는 법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가지, 토마토, 오이, 고추, 피망, 호박 등 열매채소는 판매하는 묘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묘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 해의 작황이 80% 정도는 결정된다. 좋은 묘는 아래 잎이 단단히 붙어 있고 맨 위쪽 순잎이 상성하며 떡잎이 붙어 있는 것. 잎과 잎 사이 마디 길이가 짧고 키가 작아 탄탄한 것이다. 줄기가 굵고 짜임새가 제대로 갖추어진 모양과 잎이 두텁고 색이 진한 것일수록 좋다. 또 잎이나 줄기, 뿌리 근처에 병으로 생긴 반점이 없고 뿌리 흙 묻지가 묘의 크기에 비례하여 균형이 잡혀있고 뿌리가 모종 포트 밑으로 조금 보이는 것이 적당하다.

씨앗 파종과 모종 심는 적기

씨앗 분지에는 파종시기와 방법이 간단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파종에 앞서 씨를 염려가 있는 콩은 빼고 껍질이 단단한 종류나 발아율이 낮은 것은 파종 전날 물에 담가 물을 흡수시킨 후 씨가 빨리 진다.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쉽게 기를 수 있는 채소 선택이 중요하다. 텃밭에 채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즐겨 먹으면서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채소를 고르되 각각

의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가꾸기가 까다롭고 병과 벌레가 많은 것을 선택하면 가꾸는 사람의 의욕이 떨어지고 자칫 텃밭농사를 망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가꾸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채소는 상추, 시금치, 쑥갓, 배추, 당근, 무, 토란, 고구마, 감자, 완두, 강낭콩 등이며, 초보자에게는 다소 어려운 채소는 오이, 수박, 참외 등이다. 초보자라도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채소는 토마토, 호박, 고추, 가지 등이 있다. in

다음호에는 텃밭가꾸기II를 연재, 텃밭 규모별 알맞은 작물을 알아본다.



Season Theme

이달의 텃밭 농사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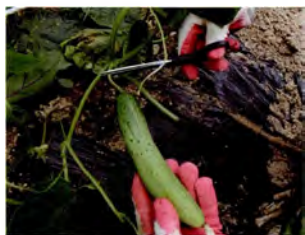
과채류 수확을 위해 필요한 것

과채류의 유인작업이 끝나면 이제는 과실이 무럭무럭 자라기만을 바랄뿐이다. 또한 열매를 수확 후 결순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시기다. 결순을 제거하는 것은 양분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정성훈 농촌지도관은 여름철 과채류 작물의 수확 후 작물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

■ 글 · 사진_ 정성훈 기자 / 자료협조_ DAUM 카페 '농사길잡이'

농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작업을 꼽으려면 제초 작업이다. 장마철에는 작물의 생육이 중요하지만 잡초도 살아남기 위해 작물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특히 여름철은 고온과 함께 가뭄을 수반해 대기의 습도가 모자라게 되어 작물과 잡초와의 경쟁은 심해진다. 이런 잡초를 관리하기에는 피복자재를 구입해 쓰는 것도 좋지만 작물수확 시 작물의 잔재물 등을 사용하는 것도 잡초의 성장을 막는데 유용하다.

“**고추 · 오이 열매 수확 후
잎 따세요.**”



잡초만큼 중요한 것이 시비, 즉 '비료주기'다. 고추의 추비(웃거름)는 5월에 정식 후 1차(15~20일경)로 비료를 줬다면 이후 2차는 35~40일경에 되는 6월에, 3차는 35~40일 경에 주면 된다. 지난 6월호에 설명했듯이 추비 주는 양은 10a당 요소 6kg, 가리 4kg 내외를 주면 된다. 지난해에 정성훈 농촌지도관의 고추 밭은 포기당 70개 내외 고추가 결실했다. 그의 밭에 방문한 사람들이 '고추 농사 잘 되었다'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과채류마다 적당한 재식거리와 V자형 지주를 통해 채량을 확보한 탓이다. 풋고추는 꽃이 핀 후 15일 전후에 과실이 충분히 커지고, 너무 많지 않게 되었을 때 수확해야 한다. 또한 풋고추는 용도에 따라 수확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붉은 고추는 열매가 달린 후 45일 전후에 수확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충분히 익은 것을 수확해야 이후에 색이 좋은 고춧가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오이는 줄기 및 새순이 자주에 잘 감아 올라 갈 수 있도록 유인해 준다. 오이를 수확한 다음에는 수확과 밑에 잎은 모두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수확한 오이 착과관리시 다다기오이는 어미당굴 기르기를 하며 결순은 2~3마디서 순을 모두 잘라준다.



지난 해 포기 사이 45cm 재식거리를 유지한 V자형 유인에 포기당 70개 내외의 고추가 결실했다.



토마토의 결순이 보이면 무조건 따줘야 열매가 많이 열린다.

쉽고 간편한 물 관리 페트병을 이용한 손쉬운 점적관수

공터 또는 내 집 마당이 웬지 행한 느낌이 든다면 채소를 재배해 보자. 물론 농작물 재배를 위한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재배용기부터 구입한다. 정성훈 지도관은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발효실 뒤 주차장 주위 공간에 나무와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한 재배를 보여줬다. 용기는 농자재회사에서 구입하고, 작물은 베이버섯부터 토마토, 가지, 고추, 파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용기재배를 위한 드럼통과 바구니를 이용한 화분의 내용은 6월호 손관화 교수의 'Container gardening IDEA'를 참고하면 되겠다.

화분을 이용한다면 물병으로 관리

화분이나 용기에 재배 시 용기 크기에 따라

여름에는 매일 또는 2~3일에 한 번씩 물을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심지재배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쉽고 빠른 방법으로는 생수병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간단하다. 생수병의 바닥을 잘라내고 뚜껑에 가느다란 바늘로 구멍을 낸다. 그리고 물을 넣고 흙에 꽂아두기만 하면 된다. 정성훈 지도관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호스를 이용한 점적관수를 이용해야 한다.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용기재배 작물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설명했다. 이 방법은 또한 비가 오면 자연스레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실용적이다. 또 추비시용 시 물병에 주며 자연스레 녹아 효과도 빠르다.

이제 쉽게 자신만이 아는 빈 공간에 용기재배로 쉽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보자.



7월의 텃밭 Check list

■ 고추

제초작업은 고랑에 부직포, 보온덮개 또는 풀이나 작물 잔재물로 피복한다. 고추 수확시 풋고추는 용도에 따라 수확하고, 붉은고추는 착과 후 45일 전후에 수확한다. 수확 후 2~3일 동안 그늘에 펼쳐 볶은 후 건조시키고, 붉은 고추 수확 시 꼭지를 붙이지 않고 수확하면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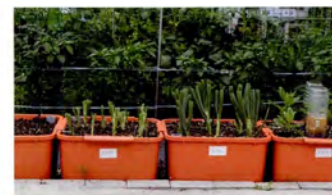
■ 토마토

결순 제거 및 지주에 묶어 주는 작업 지속하는데 수확한 마디 밑에 잎을 제거한다.

■ 오이

오이 수확 후 수확과 밑에 잎은 모두 제거한다. 착과관리 시 다다기오이는 어미당굴 기르기를 하며, 결순은 2~3마디서 순을 모두 잘라준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배용기나 화분을 이용해 옥상이나 흙이 없는 빈공간의 아스팔트에 놓고 재배할 수 있다.



Step by Step

페트병을 이용한 점적관수



1 1L 또는 2L 페트병의 밑동을 자른다.



2 입구의 마개를 바늘로 뚫고 물을 채운 후 땅 속에 심는다.



3 이것으로 페트병을 이용한 점적관수가 완성됐다.



4 용기재배는 추비를 주기가 불편하므로 물에 비료를 넣는다.

지구를 살리는

청소년 농부

_감자수확 편

■ 글 · 사진_ 정승환 기자 / 자료협조_ 광주시농업기술센터,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흙 만지고,
감자 캐고...
'청소년 농부'
프로젝트

“오늘 체험반으로 갑니다.”

광주시청소년농부프로젝트 동아리반을 취재했던 기자에게 체험반이 운영되는 곤지암의 오향농장으로 향한 이유가 있다. 동아리반과 체험반의 아이들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면 이유가 할까. 물론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적극적인 추천도 한몫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장 정대이 농촌지도사와 함께 체험반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싣고 오향농장에 방문한 시간은 정오가 넘는 시간이다. 농장에 들어서니 반기는 사람이 있다. 오향농장 주인 이선진 씨이다.

“오늘 엄청 더워요.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까 걱정이에요. 감자 캐는 것과, 메주콩을 트레이에 파종하는 것을 해 볼 거예요.” 말로만 들어도 아이들이 오기 전 바쁘게 움직이고 준비했을 모습이 상상이 된다. 광주보건소에서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도착했다. 하나 둘 하우스로 들어서는 모습들이 어떤 체험을 할 것인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하우스의 더운 열기로 조금은 피로한 듯 보인다. 아이들은 오자마자 외친다. “감자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학생 26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체험반이 시작됐다.

휴과의 대화로 얻는 양질의 정서

10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 농부되어보기’ 프로젝트는 동아리반과 체험반 등 두 개로 나뉜다. 고정된 아이들로 운영되는 동아리반에 비해 체험반은 매번 1318자원봉사프로그램에 신청해야 한다.

아이들이 매번 바뀌는 단점이 있지만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신선함과 기대감이 있다. 오늘은 감자를 캐야 한다. 감자를 캐기 앞서 교실에 있었던 이선진 광주시도시농업연구회 부회장이 감자 캐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체험반은 오향농장의 주인인 신상천, 이선진 부부와 김상구, 유병순 씨 등 도시농업연구회 1기 회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도시농업연구회 이선진 부회장의 감자 수확 강좌



하우스 밖은 고도가 가장 높은 태양이 식물들 강렬하게 내리쬘었다. 6월 날씨 중 가장 더운 날이라고 기상청은 밝힌 상태다. 길게 한 팔을 벌려 누어진 아이들. 적당한 작업거리를 위해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선진 씨가 감자 캐는 시범을 보였다.

“감자의 덩이줄기는 뽕아서 뒤에다 놓으세요. 그 다음 비닐을 걷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감자를 캐면 되요.”

“다 뽑았나?”

“다 뽑았으면 주변부터 호미질을 해가면서 옆에서 살살 긁으면 감자가 보일 거예요. 꼭 감자가 상처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금세 따라하는 아이들. 역시나 아이들의 눈썰미는 빠르다. 신백현 중학교 1학년 김원희 군과 광



신백현 중학교 1학년 김원희 군

남중학교 1학년 이하연진 군은 식물이 좋아 신장했다고 한다. 특히 이하연진 군은 아버지가 주말농장에 참여하신 적이 있어서 자신도 이런 식물들에 익숙하다고 한다.

농업 체험으로 마음의 휴식을 얻는다

한 시간 남짓 감자 수확 작업이 끝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하우스의 강약실로 들어왔다. 도시농업연구회에서 감자를 썰다. 이열치열이라 했던가.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아이들이 하나 둘 뜨거운 감자를 먹기 위해 모여들었다. 모두들 같은 공간 속에서 동시간대를 보내고 있는 동질감이 생겨서인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뜨거운 감자를 식혀 먹는 모습이 친진난만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메주콩 파종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설문



체험반 학생들의 메주 파종 체험

청소년농부되어보기 프로젝트란?

광주시농업기술센터와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농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계에 대한 가치를 얻고자 준비한 1318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체험반 모집기간_ 2013년 5월 30일~7월 23일

모집대상_ 관내 초등학교 6학년/중학생/고등학생

모집인원_ 45명(선착순)

신청방법_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회원 가입 후, 신청

활동기간_ 7월 27일 13시~17시

봉사활동처_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59-1번지, 지

정장소(추후 문자발송) 집결 후 차량이동

문의_ 031-798-1365

조사를 통해 아이들의 느낀 점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선진 씨는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하면 다시 오고 싶다는 아이들이 70~80%이다. 아이들이 덥다고 말해도 못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없다”며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본인도 놀라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 시절 농업을 통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는 바람을 가졌다. ■



파종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인다.



수확한 감자를 판매할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어떤 흙으로 키워야 하나?

식물의 밥 - 토양

원예용품점을 가면 수많은 흙이 있다. 식물을 길러보고자 꽃을 사고 화분을 사고 이제 흙만 사면 될 것 같다.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에 낯이 저절로 나간다. 그러다 슬그머니 다시 꽃과 화분을 내려놓은 적이 있을 법하다. 식물은 종류와 특성, 원산지 등에 따라 각각 다른 토양조건을 원한다. 토양의 종류와 그에 따른 성질을 알아야 식물을 잘 키운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식물 잘 키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 토양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글·사진·정지은 기자



마사토

마사토는 원래 화강암이 오랫동안 풍화되어 잘게 부서진 것으로 무석무식한 돌이라

고 생각하면 된다. 다른 배양토와 섞게 되면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아진다. 습기에 약한 식물은 배수성을 좋게 하기 위해 마사토를 섞어 쓰는 것이 좋다. 마사토는 굵은 것, 중간 것, 가는 것 세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굵거나 가는 종류로 충분히 분갈이가 가능하다. 현재 아성화재배용 흙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피트모스

상토의 일종으로 원예용, 블루베리 나무 등에 많이 사용한다. 보습력이 상토중에서 가장 우수하여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나 나무에는 유리한 토양이다. 나무나 퇴적물이 쌓여 영양분이 들어간 좋은 흙이라고 보면 된다.

영양분이 살아있는 흙인 만큼 벌레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피트모스는 산성이 강한 식물성 퇴적물로 보습력이 높고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



상토 (床土)

상토는 살균이 되어 있는 흙으로 씨를 뿌릴 때 사용하는 것이 잘 생각하면 되며, 발아와 육묘를 주목적으로 하는 토양이다. 때로는 발 흙을 일컫기도 하는데, 한자가 다른 '상토(上土)'는 농사짓기에 좋은 흙을 말하는 것이다.

양질토 생산에 적합한 물리, 화학, 생물성을 갖춘 자재로 식물체를 기계적으로 지지해주고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각종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활성화된 물질로 유럽에서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라 하여 인공용토라고 지칭한다.



황토

물 빠짐은 좋지 않지만 보수력과 보비력이 좋다. 마사토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점성이 강한 것이 단점이다. 신선한 황토를 채취하여 체로 쳐서 크기별로 분류한 다음 건조하여 사용한다.



배양토

식물이 자라는데 양분이나 화분에 공기가 잘 통하게 마사토나 모래 등과 흙이 잘 배합이 된 흙을 말한다. 주로 분갈이용 흙으로 사용하며 좁은 의미로는 표준배합으로 구성된 흙을 말한다 고 보면 된다. 제조회사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며 상토 : 피트모스 : 모래를 4 : 4 : 2 정도로 배합한 것을 표준배합이라 한다.



버미큘라이트

보습에 좋고 다공질이라 가벼우며 입자가 굵은 것과 가는 것이 있다. 버미큘라이트는 질석을 가공하여 생산한 중성 인조토로 토양 개량에 많이 쓰이고 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압력을 받으면 제 기능을 상실한다.



펄라이트

펄라이트는 진주암을 고온처리하여 만든 미세한 다공질의 인조토로 가볍고 보습력이 있으며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매우 가벼워서 식물 지탱 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다른 흙을 함께 넣어주어야 한다. 믹스하는 것이 아니라 층별로 쌓아주는 것이 좋다. 소독된 토양이라 병균이 없으나 비료를 따로 줘야한다.



발흙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채취하여 체로 친 다음 말려 사용한다. 보습성과 보비성이 좋은 편이며 다른 흙과 섞어서 사용한다.

토양은 흙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흙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공극이 있다. 이 공극을 통해 수분과 공기가 원활히 움직일 때 비로소 좋은 흙이 된다. 좋은 토양이란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적절한 수분 보유력과 통기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비로소 식물이 양분이 되는 밥을 잘 먹을 수가 있다. 위에 소개된 토양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해야 식물이 필요로 하는 보수성, 배수성, 통기성을 가지게 된다. 토양의 조건에 따라 식물의 생장은 크게 달라진다. 또, 같은 종의 식물이라도 식물의 상태나 주변환경에 따라 토양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게 사용된다. 

토양의 특성

보수성 - 토양이 물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보수력이라 하며, 그 성격을 보수성이라 한다. 식물은 일반적인 토양보다 보수성이 좋은 토양을 사용해야 관리가 쉽다.

배수성 - 토양의 물빠짐이 좋아야 식물의 뿌리가 과습으로 인해 상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수분을 요구하는 식물인 경우 배수성이 좋으면 오히려 수분공급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통기성 - 토양 내부에 공기의 순환으로 충분한 산소가 뿌리로 공급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토양의 호흡이 불량하면 식물체의 생장이 나빠져 뿌리가 부패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Season Item

과일 같은 채소

토마토

광주시 퇴촌리의 어느 토마토 하우스를 들어서니 익을 준비가 된 토마토들이 즐비하다. 녹색에서 시작되어 완숙기에 자기만의 색깔을 갖게 되는 가지과 작물들은 채소의 카멜레온이다. 보통 토마토 하면 적색의 통통한 토마토를 떠올리지만 빨간색의 경계를 무너뜨린지 오래다. 지난달 21일에 열린 퇴촌토마토축제는 그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를 만날 수 있었던 무대였다.

■ 글·사진·정승환 기자 / 자료출처_광주시농업기술센터(031-760-4757), 농촌진흥청 RDA인터레방

19세기 말 미국에서 토마토의 분류에 대해 시비가 있었다. 당시 과일과 채소에 부과하는 관세가 달랐다고 한다. 특히 채소에는 19%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189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토마토는 과일처럼 후식으로 먹지 않고, 식사의 중요한 일부로 오르는 채소'라고 판결해 채소재배농가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그런 경로로 토마토를 과일과 채소를 혼합해 '과채류'로 불렀다고 한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토마토

토마토의 색깔은 빨간다는 고정된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노란색, 주황색, 녹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가 있다. 이런 다양한 색깔은 일반종과 야생종을 교배해 품종을 육성한 것이다. 국내에는 토마토를 생식용과 조리용으로 나누는데 생식용은 분홍색계의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로 당도가 높은 편이다. 작아서

먹기 좋은 방울토마토는 국내에서 약 95%를 재배하고, 65%는 생과로, 나머지는 주스로 소비하고 있다. 국내 토마토 농가가 점점 증가해 토마토 공급량이 넘쳐 한때 토마토 가격이 급락한 적도 있었다.

“ 토마토는 생과나 주스보다 요리해서 먹으면 영양이 더 풍부하다. ”

마법의 음식재료...

약 7만 개의 요리 가능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유령 속담이 있다. 항암효과를 갖고 있

는 토마토는 2002년 타임지가 선정한 건강에 좋은 10대 식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효과가 좋은 식품이다.

특히 토마토에 포함된 리코펜은 세포의 산화를 막고 암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리코펜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어 토마토를 생과보다 요리해서 먹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2011년 미국 국립식품안전센터에서 밝히기도 했다. 또한,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7만 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놀라운 것은 아직도 요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에서는 토마토소스에 국수와 쌀, 렌틸콩을 넣어 만든 '큐샤리(Kushari)'가 유명하다. 또 그리스의 토마토와 치즈, 레몬으로 만든 '그리스식 샐러드', 아르메니아의 토마토소스로 만든 '미트볼 수프' 등이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이다.



토마토, 세계적인 축제 요소

토마토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면 토마토 축제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마토 축제는 스페인 동부 부뇰(Bunol)에서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라 토마티나(La Tomatina)' 축제이다. 1994년 토마토 가격이 하락하자 농부들이 항의의 표시로 시의원들에게 토마토를 던진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보통 축제가 시작되기 전 마을 건물과 창문을 비닐로 감싸고, 올리브기름을 바른 기둥에 매달린 행을 따는 것을 시작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약 120톤의 토마토를 가득 채운 트럭들이 광장에 쏟아 붓는다. 토마토 전쟁인 것이다. 도시 전체가 빨간색으로 물드는 것도 볼거리지만 광장에 쏟아 붓는 토마토를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볼만하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토마토 축제가 있다. 매년 4월에 열리는 부산의 '대저토마토축제', 6월의 광주퇴촌토마토축제(tomato.gjcity.go.kr), 또한 8월 초에 열리는 화천의 토마토축제(www.tomatofestival.co.kr)가 대표적이다.

“**텃밭에서 빨간색 채소를 키우고 싶다면 토마토를 선택하세요.**”

텃밭에서 키운 토마토가 맛있다

텃밭이 있다면 토마토를 키워보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기상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하므로 손이 많이 가지만 열매가 맺혔을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트레이에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과 모종심기, 결순제거는 본지 5·6월호의 '이달의 텃밭농사 길잡이'를 참고하면 되겠다. 본 밭에 토마토를 심을 때는 심기 2~3일 전에 뿌리 활착이 쉽도록 축축할 정도로 물을 주는 것이 좋다. 보통 심을 때 포기당 간격은 35~40cm로 해야 적당한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기온이 연일 낮다면 오전 중에 토마토를 심는 것이 좋고, 기온이 높으면 가장 뜨거운 시간을 피한 오후 3시 이후에 심는 것이 모종의 뿌리 내림에 좋다. 웃거름은 제3화방의 꽃이 피고, 제1화방 열매가 탁구공만 할 때

인 20~25일 간격으로 10a당 요소 5kg, 가리 5kg을 주어야 열매의 크기와 양이 적당히 크고 많아진다. 웃거름을 주고 나면 결순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 한 화방에 3~4개 정도만 열매를 맺히고, 나머지는 따내는 것이 좋다.

화분으로 키운다면...

햇빛 잘 드는 곳으로

바깥에서 재배되는 토마토 품종은 대부분 실내에서 키울 수 있다. 물론 토마토는 광이 좋아야 열매와 색깔이 좋아지므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놓는 것이 좋다. 토마토를 화분으로 키우기 위한 5가지 주요 관리방법을 소개한다.

● 관수

물은 화분 밑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조금씩 자주 준다. 생장이 왕성하다면 하루 2ℓ까지 흡수하나 보통 1ℓ 정도 주는 것이 적당하다. 불규칙하게 물을 주면 열매가 터질 수 있다.

● 비료

토마토는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이기에 옹토 10ℓ에 고토 석회 20g과 화학비료(질소 : 인산 : 가리, 12~12~16%)로 혼합한다. 이후에 웃거름을 줄 때는 4회 정도 주는데 화학비료 20g을 4회 정도 나눠서 화분 위에 흩어 뿌리고 물을 주면 된다.

● 지주

정식할 때부터 1m 길이의 지주대를 화분에 꽂

아 토마토가 크면 묶어준다. 토마토가 큰 다음에 유인대를 꽂으면 뿌리가 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순지르기

제3화방이 피고 위로 잎이 두매 정도 나오면 위를 잘라 더는 줄기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옆에 나오는 결순도 제거한다.

● 수정

스스로 수정이 잘 안 되는 토마토는 실외에서는 수정벌 등을 이용하지만, 실내에서는 인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보통 토마토토나나 토마토란 등을 구해 희석한 후 사용하면 열매가 잘 발달된다. 구매가 힘들다면 환풍을 잘 시키고, 직접 면봉이나 진동기를 사용하는 정성이 필요하다.

'퇴촌토마토축제'에서 만난 친환경토마토 품종



TOP-3

240~250g의 큰 품종으로 육질이 단단하다. 초세가 강하고 과실이 잘 열리는 TOP-3는 기형과가 적고, 알곡망이 평, 근부위조병에 강하다.



도태랑플러스

저온·저일조의 환경에 재배해도 과실이 잘 열리는 도태랑플러스의 과종은 240~250g이다. 선명한 핑크색이 균일하고 얼룩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레드왕

20~22g의 원형 빨간색 미니토마토인 레드왕은 조기수확이 많은 편이다. 착색과 광택, 경도가 우수하고 열매가 갈라지는 열과현상도 적다.



미니찰

24~26g의 대추형 빨간 미니토마토인 미니찰은 당도가 9~10브릭스로 수확성이 좋다. 기형과가 적고 저온에서도 신장성이 우수한 편이다.



베타티니

23~25g의 대추모양의 빨간 미니토마토로 당도는 9~10브릭스이다. 상단 화방까지 꽃수가 적당해 과실의 균일도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블랙키스 20

20g 정도의 원형 미니 흑색 토마토로 한 화방당 10~30개 정도가 착과되는 블랙키스는 잎 색이 진하고 초세가 강하다. 품종 특유의 향이 강하다.



슈가엘로우

대추형 노랑 미니토마토로 무게가 40~45g으로 무거운 편이다. 초기 초세가 강하고 수확량이 많다. 당도가 높고, 즙이 많아 맛이 좋다.



스위트주주

15~20g의 대추형 초록색 미니토마토인 스위트주주는 과육이 단단한 편으로 상품성이 좋은 편이다. 과실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신흑수

150~200g의 초록빛색 중간크기 토마토인 신흑수는 수확시기가 빠른 품종으로 줄기의 절간이 짧고, 수확의 간격이 짧아 생산성이 높다.



오렌지오레

30~35g의 오렌지색 중형토마토로 당도와 산도의 균형이 좋아 맛이 좋다. 재배 시 저온의 생육이 강하다. 특히 토마토 모자이크바이러스에 저항성을 보인다.



지코노랑

20~25g의 노랑색 대추모양 미니토마토이다. 한 화방당 20~50개의 꽃이 피고, 크기에 비해 과육이 두꺼운 편이지만 열과가 적고 단단하다.



지코레드

18~20g의 대추모양의 빨간색 미니토마토로 고온기에 생육이 강하고 한 화방당 15~50개의 꽃이 핀다. 당도는 9브릭스 이상으로 높다.

토마토 색깔별 보관법



빨간색 토마토

수확 후 7~10일 정도 경과된 토마토로 별도의 숙성이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다. 토마토 주스로 갈아서 먹어도 맛있다. 이미 숙성이 되었으므로 냉장보관이 필요하다.

분홍색 토마토

수확 후 3~5일 정도 경과된 토마토로 단기간에 먹기에 적합하다. 숙성이 되었지만 더욱 빨갈게 먹고 싶다면 서늘한 베란다에 며칠 보관하는 것도 좋다.

유연색 토마토

수확하고 1~2일 정도 된 토마토로 오랜 시간 두고 먹을 수 있다. 빨리 먹고 싶을 때는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숙성이 빨리된다. 평균 7~10일 정도면 빨갈게 숙성이 된다.



악이 되는 잡초음식 숲과 들을 점시에 담다

인간에게 왕성한 생명력을 주는 최고의 잡초

쇠비름

쇠비름과 돼지풀이라고 한다.
1년생 초본이며 종자로 번식한다.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들이나 밭에서 자란다.
6~10월에 개화한다. 가지 끝에 달리는 꽃은 황색이다.



쇠비름 꽃

1만 2천 년 전 구석기 시대에 존재했던 그리스의 어느 동굴에서 쇠비름 씨가 발견되었다. 쇠비름이 인류가 일찍부터 식용했던 식물 중 하나임이 증명된 셈이다.



쇠비름 씨앗

쇠비름을 먹자. 쇠비름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해주는 고마운 잡초다. 2005년부터 잡초식을 시작했던 나는 2009년에 이르러 쇠비름에 '빠져' 버렸다. 하지만 다른 밭에 있는 쇠비름에는 아예는 길조차 주지 않았다.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농사짓는 밭의 풀은 먹지 않으니까. 나는 연두농장의 밭에서 나는 쇠비름만 먹는다.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재배작물도 맛의 차이가 나거늘 잡초라고 다르겠는가? 일요일 아침. 뭔가 특별한 찬거리가 없을까 하고 농장을 둘러보다가 쇠비름을 뜯었다. 고구마 밭에 널려 있는 게 쇠비름. 고구마랑 색깔이 비슷해서 고구마 새끼 줄

기로 착각할 만도하다. 쇠비름은 그냥 먹으면 토끼와 돼지도 먹지 않을 정도로 맛이 없다.

쇠비름을 뜯으면서 개비름도 뜯었다. '개'자가 앞에 들어가는 것은 대개 사람들에게 '하찮은 것'으로 취급당하는 것들이다. 잡초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개'자까지 붙어 있으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도저히 음식이 될 수 없다고 생각 해온 모양이다.

비름은 비름이되 인간의 입맛에 좋은 비름이 있고, 독특한 맛으로 인간을 현혹시키지 못한 개비름도 있지만 개비름도 '비름'인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생명력이 매우 강한 쇠비름은 식물의 영양제로도 사용된다. 쇠비름을 꾸준히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여 이름 '장명채(長命菜)'라고도 한다.

천연영양제로 쇠비름



개비름

쇠비름 효소 담그기

뜯은 쇠비름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고 잔뿌리를 다듬은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물기를 말린다. 준비한 용기에 쇠비름과 설탕을 1 : 1 비율로 켜켜이 쌓아 저장해 두고 하루에 한 번씩 뒤집어 주면 완성.



을 사용하려면 쇠비름을 모아서 흑설탕에 똑같은 중량으로 담는다. 여름에는 일주일 뒤에 뒤집어준다.

가급적이면 자주 뒤집어야 한다. 그래야 곰팡이가 피지 않고 쇠비름 줄기를 잘 절일 수 있다. 이렇게 숙성시키면 쇠비름에서 잔액이 빠진다. 그것을 쇠비름효소로 사용한다.

오래 숙성시킬수록 쇠비름의 정액을 뽑아 맛있고 영양 많은 효소를 만들 수 있다.

쇠비름이 많이 나는 한여름에 숙성시켰다가 다음 해 농사에 이용한다.

그뿐 아니라 기력이 떨어질 때 물에 타서 마시면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쇠비름은 또 약창과 종기를 치료하는데도 놀랄 만큼 효험이 있다.

다섯가지 색깔의 쇠비름 비밀

쇠비름은 흔히 '오행초五行草'라고도 불린다. 다섯 가지 색깔을 갖고 있어 그 안에 오행이 모두 담겼다는 뜻이다.

붉은 줄기는 火, 까만 열매는 水, 초록색 잎은 木, 하얀 뿌리는 金, 노란 꽃은 土를 가리킨다. 이렇듯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기를 모두 품은 잡초가 바로 쇠비름이다.

쇠비름에 오메가3라는 필수지방산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쇠비름의 인기도 급상승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쇠비름을 밭에서 찾지 않고 건강보조식품 회사에서 만든 가공품을 먹는다. 밭에 그렇게 널리고 널렸는데도.

장수에 도움이 된다하여 정명재라는 이름을 가진 쇠비름은 뇌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줄여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쉽게 지치는 당뇨병 환자에게 미네랄과 비타민을 충분히 공급하고, 혈당치는 떨어뜨리지만 몸의 기운을 빼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왕성하게 해주므로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당뇨병 환자는 즙을 내어 먹거나 말린 것을 우려서 매일 마시면 효과를 본다.

항암제로서 좋다고 하지만 이는 거의 모든 잡초들이 가지고 있는 약성이다. 쇠비름을 끓인 물에 발을 담그면 습진이나 무좀 치료에 도움이 된다. in

자료:염조_들넉 출판사

이렇게 먹자 - 쇠비름 된장무침

된장은 모든 나물에 최고의 양념이다. 저염식을 고려해서 된장의 향이 약간 날 정도만 넣어보라. 거기에 참기름을 살짝, 쇠비름과 기름의 윤기가 잘 어우러진다. 생 쇠비름보다 데친 것이 맛난다. 쇠비름이나 비름나물은 된장과 찰떡궁합이다. 이것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 나는 생김에 참해서 먹는다. 염분이 조금 들어간 티라 생김과 함께 먹으면 염분의 맛이 감해지는 반면 김의 향은 더해진다.



1 쇠비름을 흐르는 물에 흠뻑 씻어내고 잔뿌리는 다듬어 준다.



2 씻은 쇠비름은 물기를 뺀 후 적당한량의 된장을 넣는다.



3 손으로 용천된장이 잘 풀어지도록 버무려 준다.



4 적당히 무친 쇠비름에 참기름을 적당량 넣는다.



5 참기름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한번더 버무려 준다.



6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면 완성.

골프광 남편도 집에 머물다 드림 하트

주말이면 골프백을 챙겨 들고
새벽부터 나섰던 남편,
그래서 공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주말 과부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랬던 남편이 집에 머물다.
정원을 가꾸고 부터이다.



임선규, 차영희 부부

경기도 남양주에서 정원을 가꾸는 재미에 빠져 사는 부부, 임선규(60), 차영희(57) 부부는 평생 싸운 한 번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인상이다.

흔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말하는 '정 때문에 산다'는 식이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묻어난다.

남편은 '자기야', 아내는 '우리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참으로 자연스럽다. 무뚝뚝하고 투박한 애정 표현을 했던 우리네 부모님 세대에서는 보기 드문 낯선 풍경이 참 보기 좋다.

4년 전 정원을 가꾸고 나서부터 부부애는 더욱 두터워졌다고 한다. 주말이면 골프장으로 향했던 남편, 그러나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정원이 있는 지금의 주택으로 이사를 온 후부터 남편은 달라졌다.

주말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퇴근시간도 빨라졌다. 비단 남편뿐 만이 아니란다. 아내인 차씨도 변화기는 마찬가지. 쇼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책을 읽던 것이 일상이었던 부부이다. 그러나 주택에 온 후부터는 풀을 뽑고, 나무를 돌보는 등 활동량이 많아졌다.

부부가 함께 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졌다고 한다. 정원은 건강한 일상을 이끌었다. 나이가 부부 금실을 더 좋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는 부부가 정원을 드림 하트(꿈꿀 수 있는 마음의 중심지)라 부르는 이유이다.

정원을 가꾸고부터
건강한 일상을 찾다



'이렇게 큰 정원을 어떻게 관리해?' 정작 본인들보다 주변의 걱정이 더 많단다. 그러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못한다. 풀을 뽑고 나무를 손질하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차씨는 밝힌다. 일상이 고되기보다는 정원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 정원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큰 기쁨이다.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키가 자라는 등 매년 달라지는 정원 풍경과 식물의 성장은 부모가 자식의 자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다를 바 없단다. 차씨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정원에 사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특히 그렇다. 정원의 사계 중 최고를 꼽아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무안한 답변이 돌아온다. 연록의 신선함이 돋보이는 봄부터 푸르름이 절정에 달하는 여름, 붉은 옷을 갈아입는 가을, 하얀 눈꽃이 피는 겨울까지 그 것이 다른데 어찌 우열을 가리라 하느냐는 책망의 눈빛이다.

"파란 새순이 돌아나는 봄에는 봄의 전령 진달래가 첫 꽃망울을 터트리고, 복숭아, 자두, 영두 등의 과일나무와 그 바통을 이어 꽃을 핀다. 순차적으로 철쭉과 장미가 또 그 바통을 이어가며 자연은 사계절 내내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 그 위로 이름 모를 새가 날아와 노닐다 가고, 집을 짓기도 하고, 알을 낳기도 한다. 좀더 일찍 이사를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산과 소나무, 햇빛이 빛어내는 풍경과 생명력

정원 구석구석 차씨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지만, 방문객의 눈길을 특히 사로잡는 정원수는 소나무였다. 이 부부 또한 소나무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하니 소나무의 그 고고한 자태가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었을 듯 싶다. 낮게 조성된 울타리 문을 들어서는 순간, 방문객에게 첫 인사를 건네는 소나무, 화초류 중심으로 예쁘게 조성된 정원을 우아함과 품격으로 예술성을 더해준 것도 바로 소나무이다.

두 그루의 나무가 어우러져 마치 하나인 듯 심미성을 더하고, 터죽대감처럼 울긋불긋한 장승의 기계에서는 호연지기가 전해진다. 집안의 대들보처럼 그리고 수문장처럼 버티고 있는 소나무 정원을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 능선이 감싸고 있어 정원의 아늑함과 고즈넉함이 더해진다. 지금은 여름 햇빛이 뜨겁게 느껴지지만, 늘 햇살이 머무는 정원은 더욱 강한 생태계의 보고를 탄생시켰다. 소나무나 다른 초화류, 관목들이 건강한 생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게 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만의 노하우

앵두나무 손지르기

현관문 입구, 빨갛게 익어가는 영두가 예쁘다. 보는 것만으로도 입안에서는 침이 고이고 눈이 짙음 찡그러진다. 올해는 특히 더 많이 열렸다고 한다. 손님맞이로 분주한 가운데에서 주인장 차씨는 앵두나무의 손이 눈에 거슬리는 모양이다. 바로 손으로 따준다.

그는 식물의 경우 꽃이나 열매가 지나치게 많으면 영양분이 부족하여 건실하게 자랄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나 줄기나 꽃과 열매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생장점이 있는 새순을 잘라 제거해야 한다고, 이는 식물의 웃자람도 막을 수 있고 영양 생장을 촉진하여 꽃이나 열매의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손지르기는 '결노따기', '순따주기' 등으로도 불린다.





가든파티, 벗과 함께 자연을 즐긴다



기자가 찾은 인터뷰 당일, 우연치 않게 가든파티가 예정되어 있었다. 지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한 자리.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벗과 함께 자연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대부분 직접 음식을 준비하지만 오늘은 출장 뷔페를 불렀다. 오늘 파티의 메인 디쉬는 돼지 목살과 LA 갈비 바비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하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을 함께 감상하는 것이 오늘의 스케줄이다.

부부는 손님맞이를 위해 특별히 흰 철쭉을 사다 심었다. 한 그루이지만 특별한 날을 위한 포인트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모깃불도 피웠다. 지난 가을 모아두었던 낙엽을 가져다 모깃불을 피워 본래 목적인 모기를 쫓기도 하고, 하루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초저녁 여름 운치를 더해주었다. 현관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강아지 수가 뛰쳐나왔다.

손님맞이에 개가 더 신이 난 것 같다.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던 오후 늦은 시간. 그럼에도 부부는 정장 대신 작업복 차림으로 정원에서의 손놀림을 멈추지 못했다. 손님이 꽤 모이고 나사야 차씨는 옷을 갈아입고 나선다. 그러나 옷 갈아입는 시간이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차장이라는 것을 딱히 하지 않는 수수한 차림. 수더분한 그리고 털털한 그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 나만의 방식으로 관리

정원을 가꾸는 일도 그는 외모를 가꾸는 것처럼 한다. 어찌 보면 대충하는 것 같다. 그래서 보는 이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딱히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손에 보이는 대로 손을 제거하고, 물을 뺀다. 커피 찌꺼기를 가져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정원에 뿌려준다고도 한다. 이 때문에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에게는 정해진 매뉴얼이 없다. 꼭이나 반드시란 단어도 필요 없다. 생각 나거나 보일 때 틈틈이 나만의 방식으로 정원을 관리한다. 그럼에도 지난 5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선정한 경기정원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내 관청다는 정원은 다 모인 자리. 60여 곳이 참가한 경쟁한 무대에서 상위 2번째를 차지한 정원의 주인장이다. 전문 정원사의 도움 없이 부부가 일궈낸 쾌거이다. 이 부부는 정원 가꾸는 것을 굳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매뉴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정원의 생명체들과의 교감, 그리고 정성과 사랑의 손길이 최고의 매뉴얼인 듯 보인다.

마치 사골 어르신들이 학문적인 지식에 연연하지 않고 발에서 큰 수확을 거둬내듯, 그렇게 정원 생명체들이 원할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정원을 일궈내는 자양분이 아닐까 한다.



서울 집값이면 외곽에서 정원생활 즐길 수 있다

초여름 일찍부터 찾아든 더위가 이어지더니 이틀 동안 비가 내렸다. 촉촉이 내려준 단비 때문에 여름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었던 하루. 귀가 길 흘러가는 먹구름 사이로 뽀얀 그리고 파란 하늘의 속살이 드러난다. 그 맑은 하늘이 더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은 아마 이 부부의와 기본 좋은 만남 때문이었을 듯 싶다. 잘 가꾸어진 정원보다 살아가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 누구나 꿈꾸는 노후의 일상이다. 그는 말한다. 굳이 아파트 생활을 고집하지 말라고, 조그만 정원이 라도 가꾸면서 살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한다.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고 하자 그는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친다. 서울 아파트 값이면 외곽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꿈꾸는 정원을 가꾸는 생활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도 말한다. 살아가는 매 순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과감한 일탈을 하는 그들은 분명 용기 있는 자들이다. in



나만의 노하우

잡초정리법

여름은 잡초들의 생육도 활발한 시기이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잡초를 제거하는 데에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잡초이다. 그는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잡초는 보이는 대로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잡초만을 안정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노하우. 그는 잔디와 화초류 사이에서도 쉽게 잡초만을 제거한다. 대부분의 잡초는 보통 가장 아랫잎 밑에 썩는이 없다.

줄기가 땅에 닿는 지저부 아래를 칼이나 가위 등으로 잘라주면 쉽게 고사한다. 그러나 썩이나 매꿀 같은 것은 지상부의 줄기를 잘라내어도 뿌리 줄기를 이용해서 다시 썩을 틈이 있기 때문에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꿈을 꾸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앞선 힐링이라고 생각한다. 꿈을 꾸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면서 미래의 꿈이 현실이 된다면 힘들고 슬펐던 일들은 자연히 치유되지 않을까. 경기도 가평 주금산 자락에 자리한 강금순씨(69) 정원은 해발 500m 고지에 6000여 평 규모로 오솔길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주택 주변으로 잔디 정원이 넓게 조성되어 있고, 그 아래로 야생화 정원과 과수 정원, 수경 정원이 어우러져 있다.

■ 글·사진_ 우정아 가든디자이너(경기조경가든대학 강사)

정원으로 꿈 꾸는 사람들

‘약이 되는 정원’의 강금순씨



아이들을 위한 잔디 정원

강금순씨는 “주말마다 방문하는 손주들이 아파트에서의 답답함을 벗고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잔디 정원을 넓게 조성했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는 철쭉, 영산홍, 향나무, 장미, 소나무, 단풍나무, 수국 등 키 작은 나무와 백일홍, 한련화, 페튜니아, 베고니아, 풀꽃, 돌나물 등의 초화류 위주로 식재한 이유도 손주들을 위해서이다.

나무와 초화류는 여러 종류를 모아 콘크리트 하수관을 활용한 화단에 식재하여, 다소 산만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정돈하고 포인트를 주었다.

파고라와 함께 테이블과 의자를 곳곳에 놓아 어디서든 쉴 수 있도록 했고, 수변 식물 연못 주변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식물(침경물)도 비치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했다.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묻어난다.



다랭이 논에서 연못으로

강씨는 논농사를 짓기 위해 다랭이 논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리한 들쥐들이 먼저 수확의 기쁨을 가져갔다고. 논농사를 포기하고 연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연못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5개의 연못은 수로로 연결되어 있다. 백연 연못, 수련류 연못, 어리연 연못, 수변 식물 연못과 수생 식물 연못으로 각기 다른 수생, 수변 식물군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연못마다 전혀 다른 느낌이 전해진다. 각 연못은 오솔길을 따라 조성되어 있고, 이는 정원의 청량감을 더해 준다. 또한 저수 기능까지 있어서 외딴 곳이라든 물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백연 연못은 건강한 먹거리가 되는 연못이다. 연잎으로 연잎 밥을 만들고, 연꽃으로는

차를 만들고, 연근은 반찬이나 효소를 만드는 건강한 먹거리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정원

오솔길을 따라 연못과 연못 사이에 조성된 야생화 정원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성되었다고 한다. “처음 계획은 색이 같은 식물군으로 그룹을 만들어 정형화된 디자인으로 조성하려 했으나 씨앗이 날려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우세한 식물들이 더 넓게 퍼져서 심지가 않았다. 그러나 우연히 다녀온 외국 여행에서 우리나라의 사계에서 나는 식물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강씨는 그때부터 “정원을 만든다”는 생각에서 ‘자연을 빌리자’로 바뀌었다고 한다. 야생화 정원의 손질에서부터 최소한의 풀(우세

여러 가지 효소들





하여 다른 식물에 피해를 주는 식물만을 제거할 뿐, 자연이 흐르는 대로 순응하며 관리하고 있다. "사람을 위해 먼저 조성하기 시작했지만, 막상 조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식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최대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해 가며 해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정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밭이 아닌 길 위의 채소

집 뒤로는 상추, 딸기, 파, 돌나물 등이 길을 따라 자라고 있다. 처음에는 밭을 만들어 채소류를 재배하였으나, 씨가 날려서 길을 따라 자란다고 한다. 길가 지피 식물로 손색이 없다. 굳이 밭이라는 공간에 가둬 키워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도 될 것 같다. 강씨는 길을 가다가도 배가 고

프면 자연스럽게 밭길이 이곳으로 향한다고 한다. 보는 즐거움에 먹는 즐거움까지 일석이조인 것이다.

약과 먹거리가 되는 정원

마당 구석구석에서는 많은 향아리가 눈에 띈다. 그 향아리 안에서는 효소가 익어가는 중이라고 한다. 식물은 발아하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얻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약이 되고 먹거리가 되는 것들이 아주 많다. 쇠비름, 쇠뜨기, 망초, 명아주, 병꽃풀, 머위, 엉겅퀴, 냉이, 당귀, 질경이, 쑥바귀, 취, 취, 쑥, 소나무, 개살구나무, 뽕나무, 화살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등으로 효소를 만들고, 효소를 거르고

난 찌꺼기는 다시 식초를 만든다. 식초를 거르고 난 찌꺼기는 땅 속에 파투고 숙성시켜 비료로 사용한다. 또 순과 잎을 따서 먹거리로 활용하면 식물에게 자연스러운 세력 조절도 되어 식물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정원사의 꿈

강금순씨는 어린 시절 농 임업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연이 곧 생활'이었다고 한다. 그 시절의 계수나무 향기가 인이 박하듯 가슴에 남아 도심의 생활을 뒤로 하고, 19년 전 주금산 자락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막연히 되고 싶었던 정원사의 꿈을 이루어 내고 있는 것이다. in

Vacation Item

가든 바비큐 파티



Get the most out of the world's best barbecue

step
by step

담석증에 좋은 병꽃풀 효소 만들기



1 병꽃풀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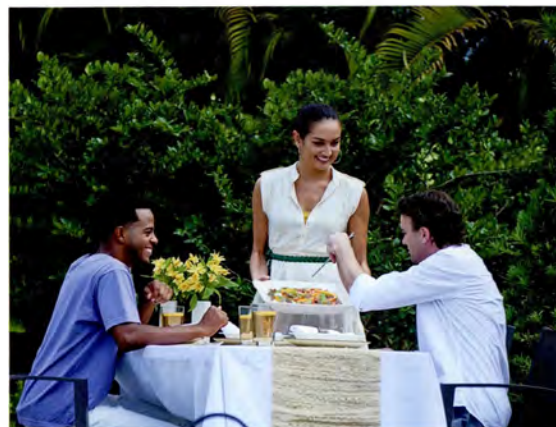
2 칼로 병꽃풀을 적당한 크기로 잘게 썰어 준다.



3 1:1 비율로 유기농 설탕을 넣고 잘 버무려 준다.



4 설탕이 완전히 녹은 후 향아리에 넣고 숙성시킨다.



한국의 전통 구이가 서양의 가든 문화와 조우했다.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삼겹살 구이.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고,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구워야 풍미를 더한다. 자연의 향과 풍광이 더해지니 당연할 터, 가든파티에서도 삼겹살은 빠질 수 없는 주메뉴 아이템이다. 서양의 스테이크 대신 한국인의 정서에는 이만한 것이 없는 듯 하다. 휴가시즌이 도래했다. 가족끼리 지인끼리 함께 모여 더위를 즐기는 계절이다. 가든에서 뿐만 아니라 호텔, 리조트, 캠핑장 등 국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삼겹살 바비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직화보다는 간접구이가 더 몸에 이롭다고 한다. 잘못된 구이 상식, '바비큐' 제대로 알고 즐기며, 건강한 여름을 나길 바란다.

■ 글·사진_바베큐타운 이광철 대표



바비큐 (Barbecue, Bar-B-Q)

바비큐는 낮은 온도에서 좋은 연기(Smoke)를 쫓이면서 오랜 시간 천천히 굽는 방법을 말한다.
낮은 온도와 함은 150~170도 정도를 뜻한다. 이렇게 굽는 방식을 통상의 간접구이와 구분하기 위해 리얼 바비큐(real barbecue)라고 부르기도 한다.
웨버 그릴은 두껍단 덮어 주면 대류열을 이용하여 근사한 훈제 바비큐가 되며, 연기가 나지 않고 저절로 완성되는 편리한 방법이다.



원 포인트존 (One Point zone)

브리켓을 한쪽으로 썰어 놓고 굽는 방법으로 가장 권장하는 요리법이다.

1. 아래 통풍구와 뚜껑 통풍구는 모두 열어 놓는다.
2. 차콜 레일 또는 차콜 바스켓을 한쪽으로 장착한다.
3. 기름 받이를 올린다.
4. 적정 브리켓(히트비드)을 한쪽 방향으로 넣어 준다.
5. 고기를 쿠킹 석쇠에 올린 훈연침을 투입한다.
6. 브리켓 반대 방향으로 뚜껑을 덮고 통풍구가 열려 있어야 한다.

요리아이템 : 삼겹살 약 2~2.5 cm, 돼지목살 약 2~2.5 cm, 닭 1 kg 1/2 토막, 생선 등
권장시간 : 삼겹, 돼지목살 1시간, 닭 1시간 40분, 생선 30~40분

직화구이 (direct grilling)

바비큐 그릴 기술은 직화구이와 간접구이가 있다. 둘 다 숯을 이용하는 것은 같지만 불과 음식물의 배치 방식 차이가 있다.

직화구이는 숯이나 브리켓에 불을 붙여 한층으로 깔고 그 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석쇠를 올려 굽는 방식이다. 불 붙은 숯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주된 열원. 이때 쿠킹 온도는 통상 200도를 넘는데 덩치가 큰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 스테이크나 채소, 생선 요리 등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석쇠 대신 불판을 올려서 불판을 가열해 고기를 굽는 전통적인 우리네 삼겹살 구이도 직화구이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연기가 많이 나서 권장 바비큐 요리 방법이 아니므로 간접구이를 통하여 연기 없이 편리하게 훈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간접구이는 그릴이 요구하는 적정 브리켓을 투입 한 후 뚜껑을 닫아 놓고 잠시 등산을 하거나 책을 보고나면 그릴이 알아서 타지 않고 적절히 훈제 바비큐를 해 주는 방식이다.



투 포인트존 (Two point zone)

브리켓을 양쪽으로 1/2로 나누어 놓고 굽는 방법으로 두꺼운 고기 또는 많은 양의 고기를 구울 때 권장하는 요리법이다.

1. 아래 통풍구와 뚜껑 통풍구는 모두 열어 놓는다.
2. 차콜 레일 또는 차콜 바스켓을 양쪽으로 장착한다.
3. 기름 받이를 중앙에 올린다.
4. 적정 브리켓(히트비드)을 양쪽 방향으로 넣어준다.
5. 고기를 쿠킹 석쇠에 올린 훈연침을 투입한다.
6. 뚜껑이 통풍구 중앙 고기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요리아이템 : 통삼겹, 통목살, 닭, 비어캔 치킨, 양지, 브리스켓, 스페어 립 등
권장시간 : 비어캔 1시간 40분~2시간, 통삼겹 2시간, 통목살 2시간, 양지 2시간, 립 1시간



간접구이 (indirect grilling)

간접구이는 원포인트존(One Point zone)과 투포인트존(Two point zone)으로 나누어진다.

불 바로 위에 조리하려는 음식물을 올리지 않고 숯을 한 곳, 또는 두 곳으로 모아 썰고 밑에 불이 없는 석쇠 위에 음식물을 올려 익히는 방식이다.
복사열과 뜨거운 공기의 대류에 의해 음식물을 익히기 때문에 조리 공간이 넓어야 하고 복사열, 반사열과 같이 뜨거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둘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그릴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통 삼겹 또는 비어캔 치킨이나 바비큐 그릴을 이용한 치킨 로스트의 경우 그릴 내부 온도는 150~190도 정도에서 편리하게 간접구이로 굽는 바비큐 그릴이 웨버 그릴이다.

MINI TIP 숯과 브리켓의 차이



◀ 숯(charcoal)

일반적인 참숯으로 화력은 좋은데 연소시간이 짧아 직화구이에 적합한 숯

브리켓(briquet) ▶

참숯을 압축시켜 딱딱한 숯. 불붙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소시간이 길어 두꺼운 고기의 훈제할 때 적합한 숯



바비큐 재료별 굽는 요령



Chicken

닭에 적정 익힘 온도는 83도로 직화구이에는 1/2로 잘라 불 관리를 잘하여 자주 위치를 바꿔줘야 하는 인내가 필요로 하는 요리이다. 간접구이로는 170도 표준 온도로 약 1시간 40분 익혀 준다. 이때 바비큐 시즈닝으로 3~12시간 정도 양념을 한다. 닭은 950g~1Kg을 권장한다.



Pork

바비큐 요리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돼지고기로, 삼겹살 목살 등갈비를 주로 사용한다. 익힘 온도는 75도로 삼겹살은 가급적 6시간 이상 또는 하루 전 양념을 해두고, 목살은 육지창을 사용해야 부드러운 질감을 얻을 수 있다. 바비큐 시즈닝으로 양념을 하여 파인애플과 함께 직화구이를 해도 맛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등갈비(Back Rib's)는 자연 해동 후 바로 근막(Membrane)을 벗겨 양념을 하여 직작으로 세워서 간접구이로 요리를 해야 한다.



Beef

쇠고기는 바짝 익히는 것보다 부드럽게 익히는 것이 육즙이 살아 있고 맛이 있다. 익힘 온도는 65도, 바비큐 용으로는 갈비나 안심을 사용하는데 바비큐 시즈닝만 뿌려 직화로 해도 바비큐의 제맛을 느낄 수 있다. 두꺼운 스테이크라면 처음에는 센불(Searing)에 표면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육즙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은 후 낮은 온도에서 구워야 한다.



Shrimp & Seafood

새우나 게 등의 갑각류는 껍질이 쉽게 타기 때문에 자주 뒤집어 가면서 구워야 한다. 해산물은 육류에 비해 지방이 적기 때문에 그릴에 들러붙기가 쉽다. 달군 석쇠에 미리 식초 또는 올리브오일을 발라주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해산물을 바비큐 할 때 화이트 와인 레몬 로즈마리 타임 등을 적절히 사용하면 향긋한 풍미를 더할 수 있다.



Sausage

소시지는 먼저 앞뒤를 칼로 X자를 3~4줄 낸다. 그릴 중앙은 열이 높기 때문에 걸만 타므로 온도가 낮은 가장 자리에서 굽는 것이 요령이며, 앞뒤로 X자가 벌어지고 노릇노릇 하면 이때 소스를 발라준다. 소스로는 볼스아이 히코리소스를 1:1 비율로 섞어 사용하면 아메리칸 소스 맛을 느낄 수 있다.



Vegetable

고구마, 감자,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사과, 마늘, 양파 등 구울 수 있는 야채는 다양하므로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야채는 금방 익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굽고, 올리브오일과 버터, 시즈닝으로 적절한 기본 간을 하면 좋다. in

바비큐 필수 용품



침니스타터

침니스타터는 차콜이나 브리켓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점화시키는 도구로 파라핀 또는 토치를 이용하여 손쉽게 불을 붙이는 도구이다. 우리는 차콜이나 숯불을 붙일 때 숯을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토치로 대충 1/2만 붙으면 고기를 굽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차콜이나 숯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먹은 고기를 먹는 경우이므로 차콜이나 숯이 하얗게 서리가 내리듯 할 때 바비큐 요리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침니스타터는 바비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차콜 바스켓

숯을 편리하게 숯통에 담아 사용하는 도구.



비어캔

맥주 또는 와인과 허브를 넣고 닭을 얹어 부드럽고 촉촉한 닭 요리 도구.



바비큐글러브

뜨거운 부분을 잡을 때 사용하는 내열 장갑.



그릴 온도계

훈제시 그릴 내부 온도를 측정 할 때 사용.



그릴 청소 브러시

바비큐 용품은 30Cm 이상 길이가 되어야 안전하고 피로감이 적다. 그릴 브러시는 한 번에 그릴링 요리를 마치고 중간에 쿡킹 그레이트가 따뜻할 때 부드러운 쇠 브러시로 닦아 주어야 하며 닦는 후에는 키친 타올로 마무리 한다.



바비큐 툴 세트

스테인리스 바비큐 조리 도구 세트로 집게 뒤지기 포크 세트.



툴 홀더

그릴에 장착하여 도구를 걸 수 있는 걸이.



바비큐시즈닝

고기에 뿌려 숙성시키거나 고기를 구울 때 뿌려주면 육즙과 허브가 어우러져 고기가 더욱 맛있어지는 혼합 양념.



훈연칩

맛 있는 훈제 바비큐 맛을 위한 훈연나무.



히트비드 브리켓

열 지속력이 매우 좋고 연기가 적어서 직화구이와 훈제구이에 적합한 고급 호주산 숯.



파라핀

숯을 쉽게 점화할 수 있는 고체 연료.

도움말



바베큐타운
이광철 대표

- Cooks Bell 총괄 Chef
- 주한미군 태권도 시범팀 출장 Chef
- US Meat Culinary Camp American BBQ 전문위원
- 바베큐협회 성년 분당 지 회장
- Out door Chef 경력 25년
- 현 bbqtown 대표이사

바베큐타운
www.bbqtown.co.kr / 031-712-1722

국내 최초의 정원용품 갤러리&쇼룸 가든카페 푸르너스

합정역 3번 출구를 나오면 길 따라 들어서 있는 아기자기한 카페들. 그 사이 통유리문으로 보이는 넓직한 파라솔과 가든플랜터들이 바로 가든카페 푸르너스의 풍경이다. ■ 글·사진_정지은 기자



카페 출입구의 깔끔한 글씨체의 간판



카페 푸르너스의 전경



아기자기한 토분들

가드닝의 첫 발걸음, 가든카페 푸르너스

카페 푸르너스는 21년 전통의 국내 몇 안되는 가드닝 전문 회사 예견에서 선보이는 카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가드닝 전문용품 업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 한창 힐링과 관련된 제품이 나 프로그램들이 현대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현재 열풍이 불고 있는 캠핑으로 연결되어진다. 자연을 즐기러 하는 도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좋은 신호탄이라 볼 수 있겠다. 선진국이나 옅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가드닝을 취미로 삼고 또한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나라도 이제 가드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정원문화 수요에 발맞춰 여러 업계

도 이에 따라 가야 한다는 전망이다. 예견은 이러한 때 시기적절하게 정원용품을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카페를 통해 선보였다. 갤러리 겸 소품형식의 카페로서 제품을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정원용품의 대중화를 꿈꾸다

막상 정원을 가꾸고자 정원용품을 찾아보면 직접 보고 구입 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는 없다. 기껏해야 양재동 코스트코에서 수입되어지는 수입품이나 인터넷으로 보는 정도. 또한 국내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정원용품은 찾아보기도 힘들 뿐더러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정원문화를 널리 알리기 힘들다는게 이

곳 카페의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원용품을 알리고 관심가지고 볼 수 있게끔 꾸민 공간이 이곳 푸르너스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곳에 진열된 용품은 수입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해낸다. 정원용품 뿐만 아니라 조경설계나 시공 등 정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직접 와서 보고 듣고 상의할 수도 있다. 제품의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특히 A/S도 매우 잘된다고 하니 디자인 좋고 가격대 괜찮으면 금세 완판되는 제품들이 많다고 한다.



플랜터에 심겨져 있는 식물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세요."

인터뷰를 하러 들린 카페에 정원용품을 사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주고객층을 보아하니, 업체와 일반인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사람들이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 이것저것 의자며 테이블 파라솔 등을 체험해보고 또한 매장내 직원에게 물어본다. 몇몇 제품들을 살펴보다. 보통 플랜터들이 제일 많이 눈에 띄었다. 모든 제품들이 실외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방수코팅이 되어있다. 각각의 플랜터 들은 어울리는 식물이 다 다르다.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게끔 식물식재도 함께 해 놓았다. 그저 플랜터만 보여주면 고객들이 생각한 것과 실제로 집에 가서 식재해 놓았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한다. 어떠한 식물을 심을지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식물식재된 플랜터도 판매가능하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주문도 가능하지만 매장에서 살펴본 식물을 보고, 구상한 것과 맞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고 구매하시라고 말하고 있다.



벽을 꾸민 조경 설계도와 판매가능한 정원테이블

대관도 가능, 여유로운 커피한잔

카페는 그저 보여주지만 하는 소품만이 아닌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다양함을 추구한다. 이러한 점을 살리기 위해 장소를 대관해주기도 한다. 프로젝트비와 마이크, 스피커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각종 이벤트행사나 세미나 등을 열 수 있다. 얼마 전에 투파캄, 티아라 등 아이돌들의 인티부도 진행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근처 출판사의 영향으로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태로 대관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도 명색이 카페이다. 로스팅방이 따로 있어 직접 로스팅한 커피로 주변의 단골들도 꽤 있다. 모던하고 심플하면서도 예코노미이 물씬 나는 정원용품 소재의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은 꽤나 여유롭다. 뜨거운 여름날 나만의 정원단들기를 꿈꾸며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 하러 카페 푸르너스를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in



동물소품



라벤더 화분



카페 한쪽을 차지한 로스팅통



황한주 신구대 교수의 꼭 가봐야 할 세계의 식물원



헤렌하우저 가든 그로브가르텐 전경

독일 정원문화의 자존심

Herrenhaeuser Gaerten

헤렌하우저 가든

헤렌하우저 가든이 있는 하노버는 매년 개최되는 세계적인 IT박람회 세빗(CeBIT)과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경기가 열린 곳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독일 니더작센(Niedersachsen)의 주도(州都)로서 2번의 세계대전 중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는 아픔을 간직한 곳이지만, 독일의 중앙에 위치하고 독일어의 표준어가 이지역 언어라는 점과 바로크 정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헤렌하우저 가든이 있어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이기도 하다.

헤렌하우저 가든은 1630년대까지는 농장으로 이용되던 부지에 1696부터 1714년 사이에 Electress Sophie에 의하여 하노버 왕가의 여름 별장지로 조성되었다. 하노버 왕가의 소피(Sophie) 왕후는 “이 정원이 내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한 애착을 가졌다고 한다. 그녀의 아들이 영국 왕 조지 2세인데, 평소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소피

왕후는 프랑스에 견줄만한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 헤렌하우저 정원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 1819년부터 1821년 사이에 Laves에 의해서 재설계되어 Welf(家)의 여름별장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세계2차대전 기간인 1943년에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된 것을 하노버 시에서 매입하여 현재 모습으로 다시 재건하였다.



하노버 Germany



그로브가르텐의 여름철 조화화단

헤렌하우저 왕궁의 정원은 크게 그로브가르텐(Grosser Garten), 베르그가르텐(Berg garden), 게오르겐가르텐(Georgien garden)과 같이 3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원예적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고 볼거리가 많은 곳은 그로브가르텐과 베르그가르텐 두 곳이다. 필자도 시간제약 등의 이유로 넓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게오르겐가르텐 지역은 관람하지 못하였다.

우선 그로브가르텐 진입로에는 대형 용기화분에 심겨진 아자수와 하와이무궁화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왕궁의 앞마당에 해당되면서 대정원이라고도 불리는 그로브가르텐은 베르사이유 궁전과 더불어 바로크 정원 양식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잘 정돈된 키 낮은 생울타리와 규칙적으로 서 있는 새하얀 조각상 사이에 다양한 조화류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정원을 여윌 게 겨널며 과거 유럽의 왕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도 여행자의 자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원은 내 인생의 전부이다’라고 한 헤렌하우저 정원의 설계 및 시공자인 소피(Electress Sophie) 왕후가 어디에선가 걸어 나올 것 같기도 하다. 그로브가르텐은 전형적인 바로크 양식을 보여주는 정원으로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상과 분수가 설치되어 있다. 회양목 및 주목 등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으로 조성한 자수화단 그자체도 볼거리이지만 관람로를 따라서 철마다 새롭게 조성하는 화단도 매우 아름답다.

그로브가르텐은 여러 작은 소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로 같은 관람로를 따라서 차근차근

곳곳을 둘러보아야 장미원과 같은 주제원을 볼 수 있다. 또한 한때 유럽에서 가장 높이 물줄기를 쏘아 올렸던 대분수(Große Fontäne)의 장관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높이가 70m를 넘는 거대한 분수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효과가 있다. 또한 프랑스 예술가인 니키(Niki)의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 모자이크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Grotto 갤러리에서는 현대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베르그가르텐은 과거 궁전의 후정(後庭)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그로브가르텐을 나와 길을 건너 입장할 수 있다. 통합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베르그가르텐은 전형적인 식물원 형태로 독일의 자생식물과 외국의 다양한 식물이 수집 및 전시되어 있다.



여름철 장미화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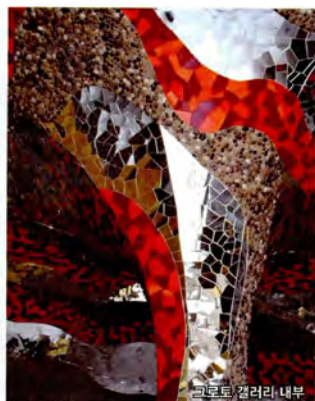
음악회가 열리는 베르그가르텐



다양한 조화류를 혼식한 모듬화단



크로사카르덴 입구 정원



크로트 걸러리 내부

우선 온실은 크게 선인장 온실, 열대식물 온실 및 난 온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의 난 온실은 전 세계에서 난과 식물을 가장 많이 수집하여 3,400여 종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선인장과 식물 2,400여 종류 및 우리에게 아프리카 바이올렛으로 알려져 있는 세인트폴리아(Saintpaulia) 원종 20여 종류를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온실 외부에는 숙근초화원, 습지원, 모델정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원이 조성되어 있다. 여름철 동안에는 바로크 양식의 불꽃놀이와 헨델의 음악을 연주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필자가 방문하였을 때에도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관객이 아름다운 꽃과 음악을 즐기면

서 동시에 맥주를 마시고 있는 광경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베르그 가르텐 입구 왼쪽에 씨 라이프(Sea Life)라는 해양생물관이 있는데 별도의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입장료 없이 공원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오르겐 가르텐은 19세기에 조성된 영국식 정원으로 독일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박물관(Wilhelm-Busch Museum)이 있다.

길이 2km에 달하는 비스타 정원형태로 조성된 피나무(lime tree)길은 하노버 시의 중심지까지 연결되어 있다.

독일의 하노버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네다섯 시간정도의 여유를 갖고서 해랜하우저 가든을 방문하여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70미터까지 치솟는 대분수

— 본 기사의 내용과 사진은 신구문화사에서 출간한 <꼭 가봐야 할 세계의 식물원 61>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저자가 재편집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

지피식물 종자와 묘종의 모든 것

땅끝야생화

문의전화
061-535-0045 / 010-4284-2655
FAX 061-535-0048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740

2013
7월 축제



청량한 여름 꽃향기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이 다가왔다.

봄철 북적이던 꽃축제들도 막을 내렸다. 그러나 여름이라고 해서 향기가 없겠는가.

여러 꽃들이 피겠지만 그중 으뜸인 연꽃 축제가 7월의 여름을 기다리고 있다. 여름밤 향기로운 연꽃 축제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여름꽃축제에 가보자.

■ 글 정지는 기자

무안을 만나면 자연이 됩니다

2013 무안연꽃축제

자연이 살아 숨쉬는 회산백련지에서 2013무안연꽃축제가 개된다. 동양 최대 10만평을 가득 채운 초록빛 연잎 사이로 고결함을 드러내듯 올곧이 하얀꽃망울을 틔우는 백련, 자연의 한가운데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여름의 낭만이 있다.

공식행사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로이 경연대회 조계종에 여는 총무원장 및 대형사찰 초청 법회, 야간특별 공연 등을 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연등길 행사와 장엄등 전시, 수생식물 생태전시관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군민참여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며 연등 밝히기나 내손으로 소원지 달기, 연꽃길 보트탐사 등 체험 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행사기간 2013. 7. 24(수) ~ 7. 28(일)

행사장소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행사주최/주관 무안군/불교조계종 호남 6교구본사

행사문의 무안 관광문화과 061-450-5472





연(Lotus)

학명 *Nelumbo nucifera* Gaertn.

마나리아재비목 수련과의 여러해살이 수초로서 연꽃은 만다라화, 부용이라고도 한다. 뿌리줄기는 흰 색이고 가늘고 길며 진흙 속을 기는데, 끝부분은 비후하여 연뿌리가 된다. 잎은 긴 잎자루가 있으며 수면에 뜨는 잎과 수면 위로 올라온 잎이 있다. 연꽃은 붉은 꽃을 피우는 홍련이 대부분이고 흰 꽃을 피우는 백련은 매우 귀하다.

사랑 그리고 낭만을 찾아서

제11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부여서동연꽃축제는 무왕의 탄생설화가 깃든 공남지를 중심으로 천만송이 연꽃향이 가득한 부여 서동공원(공남지)일원에서 개최된다.

부여서동연꽃축제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13문화관광축제중 "유망축제"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축제기간은 물론 연꽃이 피는 7월초부터 8월 중순까지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연꽃축제는 예년과 달리 스태프형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했다. 연지 주변에 서동의 탄생설화와 선화공주와의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연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백제의 역사를 재미있게 둘러볼 수 있게 기획했다. 또, 축제개절이 여름철이다 보니 주간보다는 야간중심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아울러 축제장내 휴게 공간 확충과 연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국 최고의 생태문화축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2013. 7. 18(목) ~ 2013. 7. 21(일)

행사장소 서동공원(공남지) 일원

행사주최/주관 부여군/부여문화원

행사문의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041-830-2921~2922



꽃의 황제, 백합꽃의 등극

2013 태안 백합 꽃 축제

태안튤립축제 성공에 이어 "희생, 그것은 사랑"이란 주제로 남면 신온리 일대 약 26만㎡의 대지에서 펼쳐지게 될 '제6회 태안 백합 꽃 축제'는 백합이 주인공이 되는 꽃 축제이다.

이번 백합꽃축제는 태안꽃축제의 모태가 된 축제이며 올해로 6회를 맞는다. 전 세계적으로 백합을 노지에 식재하여 축제를 여는 곳은 대한민국 태안이 유일하다. 르네, 시베리아, 소르본느, 발디솔레, 블랙아웃 등 다양한 색의 백합꽃들이 만개될 축제장은 조상들의 지혜와 땅이 녹아있는 민속박물관, 태안관광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태안홍보관, 20여 품종의 특색 있는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호박터널 등으로 꾸며진다.

체험행사로서는 동물먹이주기체험, 물고기먹이주기체험, 낚시체험, 조개껍질공예, 꽃만들기체험, 비누방울만들기체험, 페이스페인팅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한편 태안꽃축제는 백합꽃축제에 이어 20일부터는 조명과 꽃이 어우러진 태안빛축제(Taean Lighting Festival)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2013. 6. 22(토) ~ 2013. 7. 5(일)

행사장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168-3번지 일원, 네이처월드

행사주최 태안군꽃축제추진위원회

행사문의 041-675-7881



씨부터 뿌리까지 악용이 되는 연

연의 거의 모든 부분이 악용된다. 한방에서는 연뿌리의 마디를 우절, 잎을 하엽, 잎자루를 하경, 꽃의 수술을 연수, 열매 및 종자를 연실, 꽃턱을 연방이라 하여 생약으로 쓴다. 잎·수술·열매·종자에 는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어 다른 생약과 배합하여 위궤양·자궁출혈 등의 치료제로 쓴다.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꽃

연꽃은 '순결', '청순한 마음'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으며, 물 밖으로 웅장한 잎과 맑고 순박한 꽃을 피어 올려 험난한 인간세계에서 살아 가고 있는 고달픈 중생을 구원한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맑은 꽃을 피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를 상징한다.

여름향기 무궁화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올해로 23회를 맞는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전북 완주군에서 화려한 막을 연다. 무궁화 테마식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름향기 무궁화'라는 주제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펼쳐진다.

특히 캠핑대회, 서바이벌게임대회는 6월 10일부터 사전접수를 받으며, 신청방법은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캠핑대회는 선착순 80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서바이벌게임대회는 최대 15팀의 신청을 받아 토너먼트식의 경기로 진행된다. 참가한 최종 우승팀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별자리 관측과 캠프파이어가 연이어 진행된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도 이색적이다. 아욱과에 속하는 무궁화는 잎과 꽃잎을 먹을 수 있는데, 축제장에서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산휴양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에코어드벤처 체험, 어느 곳 보다도 즐겁고 재미가 쏠쏠하다.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가족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행사기간 2013. 7. 19(금) ~ 2013. 7. 21(일)

행사장소 전북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구(무궁화테마식물원)

행사주최/주관 산림청/완주군

행사문의 완주군 산림공원과 063-290-2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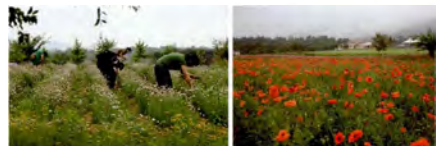


보랏빛 물결과 향기

2013 강원고성 라벤더축제

매년 6월이면 마을과 농장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라벤더가 만개한다. 누구나 동경하는 보랏빛 언덕, 영화의 한 장면으로나 볼 수 있었던 보랏빛 물결과 향기 속에서 향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양귀비의 아름다운 자태 산골마을의 자연과 어우러진 꽃들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즐겨보자.

매주 주말 솔리파날리기 대회같은 소소한 이벤트와 포토콘서트 등이 열린다. 또한 전시회, 향수추출체험, 꽃다발 수확 등 각종 라벤더와 관련된 체험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라벤더축제는 작은 이벤트와 체험이 가족 친구, 연인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행사기간 2013. 6. 15(토) ~ 2013. 7. 7(일)

행사장소 강원 고성 하늬라벤더팜

행사주최/주관 하늬라벤더팜

행사문의 033-681-0005





검정꽃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붓꽃

■ 사진 · 글_이명호



이명호
돌꽃사랑연구회 회장
두산백과사전 식물부문 집필위원
1980년부터 32년째 야생화 사진 촬영 및 연구
이명호의 야생화
(www.skyspace.pe.kr)



노랑붓꽃



보라노랑무늬붓꽃

활짝 핀 붓꽃의 모습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름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지만, 꽃봉오리의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쉽게 붓을 연상하게 된다. 대개 식물의 이름은 꽃이나 잎, 또는 열매의 모습을 따서 붙인 경우가 많은데, 붓꽃은 특별히 꽃봉오리가 붓을 닮았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부터 7월까지 상당히 긴 편이다. 대개 키가 작은 붓꽃들은 4월에 핀다. 종류는 각시붓꽃, 난장이붓꽃, 솔붓꽃, 금붓꽃, 노랑붓꽃, 노랑무늬붓꽃 등이다. 이들은 꽃과 잎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피지만, 꽃이 잎보다 먼저 위로 볼록 올라와서 피었다가 지면서 밑에 있던 잎이 위로 올라오면서 길게 자란다. 키는 대략 20~30cm 정도이다.



기쁜 소식 혹은 사랑의 메시지란 꽃말을 지닌 보랏빛 붓꽃

번식법

9월경에 받은 종자는 냉장보관이나 일방적 보관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물에 2~3일간 담궈 두어야 한다. 이는 종자 겹질 이 두터워 수분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키기 위함이다. 뿌리나누기는 봄이나 가을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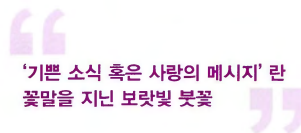
관리법 화단에 심어 물 관리는 자주 해 주지 않아도 좋으며,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두어야 한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6~7월에 피는 붓꽃 종류들은 대개 키가 큰 편인데, 이들은 기본종인 붓꽃을 비롯하여 흰붓꽃, 부채붓꽃, 제비붓꽃, 타래붓꽃, 대청붓꽃 등이다. 키는 대략 사람의 허리 높이인 60~80cm 정도여서 사진을 찍거나 서서 관찰을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높이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대개 붓꽃 종류들의 꽃잎 안쪽에 들어있는 여러 색깔의 무늬는 상당히 어수선한 편이고, 이와 비슷한 꽃장포 종류들의 노란색 줄무늬는 가지런한 편이지만, 붓꽃 종류들 중에서 유독 제비붓꽃만은 날렵한 제비의 모습을 닮아서 그런지 꽃잎 안쪽에 들어있는 흰색의 줄무늬가 제비 가지런한 편이다. 누가 봐도 유선형으로 빠진 제비의 날렵한 몸매 그 자체를 연상시킨다.



흰노랑무늬붓꽃



“**‘기쁜 소식 혹은 사랑의 메시지’란 꽃말을 지닌 보랏빛 붓꽃**”

꽃에 얽힌 전설과 꽃말을 잠깐 소개해 본다. 중세시대 이탈리아에 아이리스라고 하는 한 미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명문의 귀족 출신으로 마을에서도 착했으며 고귀한 성품을 지녔다. 그러던 아이리스는 어린 시절 부모님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해 로마의 한 왕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아이리스가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복할 리 없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왕자가 병으로 죽고 아이리스는 홀로 되었지만, 그녀의 미모와 교양은 한층 더 무르익었다.

따라서 결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녀는 그 누구의 청혼에도 응하지 않고 항상 푸른 하늘만 마음속으로 동경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리스는 젊은 화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화가는 아이리스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혼을 해보았지만 아이리스는 좀처럼 응하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해서 구혼하는 화가의 열정에 감동해서 “정 그렇게 결혼을 원하신다면 조건을 붙여서 받아들이지요.”

아이리스가 제시한 조건이란,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꽃을 그리라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 그림은 비비가 날아와서 앓을 정도의 생동감 넘치는 그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화가는 온 정열을 기울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해 만에 마침내 그림을 완성하였다. 아이리스는 그림을 본 순간 자기가 오랫동안 원하던 꽃 그림이라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였다. 그러나 짐짓 못마땅한

투로 말했다. “이 그림에는 향기가 없네요.” 그때였다. 어디선가 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그림 꽃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날개를 차분히 접고 꽃에 키스를 하는 것이었다.

아이리스는 감격에 찬 눈을 반짝이면서 화가의 품에 안기며 키스를 했다. 그 그림의 꽃이 바로 붓꽃이었다. 그리하여 붓꽃의 향기는 화가와 아이리스가 처음 나누었던 키스의 향기를 그대로 간직하여 지금도 꽃이 필 때면 은은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는 것이다. 꽃말은 꽃의 색깔에 따라 각각 다른데 보라색 꽃의 붓꽃은 ‘기쁜 소식 혹은 사랑의 메시지’이며, 노란색의 붓꽃은 ‘슬픈 소식’, 흰색의 붓꽃은 ‘사랑’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in**



붓꽃 봉오리



붓꽃 열매



노랑무늬붓꽃



제비붓꽃

한국 고유의 美를 담은

소나무

■ 글_이소저 원에프로그래밍 지도자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셨던 고 최순우 박사는 영지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분별없는 무딘 눈과 분별없는 무딘 손들이 조상들의 명원을 송두리째 뒤엎고 유지한 왜식의 손길이 이것을 함부로 더럽히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행한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좋은 안목을 지닌 사색하는 눈들이 우리의 명원들을 건사하고 좋은 손을 가진 원정(園丁, 정원사)들이 흥겨워서 우리 정원의 혼탁한 때를 벗겨줄 때가 되면 우리 후원 별당에 겨울 한밤 내 다시 촛불이 밝혀질 것인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사, 기업의 사옥,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인 주택에 이르러까지 정원을 만들어 초목을 심어 꾸미고 가꾸는 일이 일상화된 듯하다. 그러나 경쟁하듯 만들고 있는 녹색 공간들이 '분별없이 무딘 눈과 무딘 손' 그리고 상업성까지 끼어들면서 획일화되거나 혼탁한 때로 찢든 경우들이 많아졌으니 돌아가신 최순우 박사의 말이 떠오르는 것이다.

나무는 무릇 한 민족의 품성이나 기상과 관련을 맺는다. 특히 소나무와 한국인이 맺는 상징적 관계는 그 역사가 매우 길다. 한국인들은 태어날 때 대문의 금줄에 매다는 소나무 가지로 시작하여, 죽을 때 역시 소나무로 만든 칠성판으로 매듭을 짓는다. 죽고 난 이후에도 소나무와의 관계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무덤 주위를 둘러싼 나무 역시 소나무로 도래술이라 부른다. 이 같은 소나무와 한국인의 관계는 정원 가꾸기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부분의 정원들은 소나무 두어 그루가 중심을 이루거나 아예 소나무 숲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 정원수의 으뜸은 소나무를 능가할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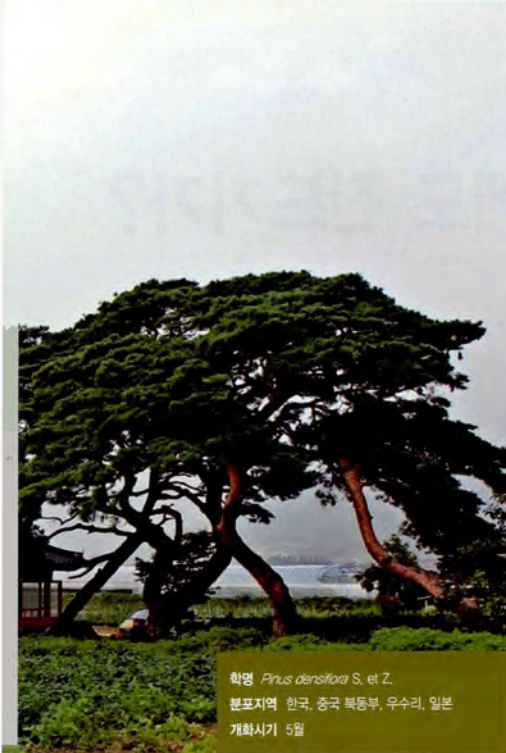
많은 이들이 소나무 정원수를 어떻게 가꿔야 하는가, 즉 연중 관리에 쏟는 관심이 큰 반면 소나무 정원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 소나무 정원수를 어떻게 즐



자연이 만든 운봉면 삼산마을 소나무 숲



일본의 영향이 짙은 정원수(위)와 주변 건물과 어울리지 못한 채 생동감있게 조성된 소나무 숲(아래)



학명 *Pinus densata* S. et Z.

분포지역 한국, 중국 북동부, 우수리, 일본

개화시기 5월



조선화가 이인문의 수로한거도 속 소나무(위)와 송계한담도 속 소나무(아래)



Mini Tip 좋은 조경수 고르는 방법

- 잔뿌리(수염)가 사방으로 고르게 많이 있는 것
- 묘목의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뻗고 눈이 큰 것
- 병충해 피해가 없고, 나무에 상처가 없는 것
- 잎이 정상적인 크기로 성장한 것
- 품종이 확실하게 보증된 것
- 밑동에서 첫 가지가 너무 멀지 않은 것
- 가지가 뭉친 곳이 없는 것

겨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편이다. 오랜 세월 곁에 두고 가꾸고 바라볼 정원수라면 마땅히 선택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와 수령의 소나무 정원수들을 살피고 관찰하면서 내 눈이 끌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다면 소나무 정원수의 선택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요즈음은 특수목(조형소나무)이라 하여 2.5~3미터 높이에, 철사 걸이를 하여 일본의 분재와 같은 형태로 만든 소나무들이 값도 비싸고 고급목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수목들은 이른바 기술자들이 공을 많이 들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정교하고, 안정감을 갖추고 있어 보기에 그럴 듯하다. 그러나 오래 보며 생각을 하노라면 그 인위적인 형태와 요소들이 눈에 거슬리고, 유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특수목들이 갖는 아름다움은 한국 고유의 미적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소나무다움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소나무라면 줄기의 흐름과 수피, 가지의 구성과 배열, 잎에 이르기까지 소나무다움이 물씬 배어 있어야 한다. 또한 소나무를 가꾸는 과정은 물론 즐기는 과정에서도 이 '소나무다움'이란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고유의 미적 전통에 걸맞는 소나무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17세기 이후, 즉 조선시대 영정조 시대부터 그 이후의 한국 문인화를 일별하는 것이다. 산수화를 포함하여 이들 그림 속에는 우리의 옛 선비들이 즐기던 소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을 구별하여 살펴보면 '좋은 안목을 지닌 사색하는 눈들'이 즐겨 찾아 관찰하던 소나무의 형태와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정원 가꾸기를 꿈꾸고, 특히 정원에 소나무를 심어 즐기자 한다면 한국인들에게 소나무가 갖는 상징과 의미, 소나무를 관찰하고 즐기는 우리의 전통들을 한 번쯤 뒤돌아 볼 것을 제안한다. 제한된 몇 사례를 소개했지만 인터넷을 잠시만 뒤져도 수많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우리의 정원에 한국 고유의 미적 특징이 고스란히 담긴 소나무들이 즐비하게 자라는 날을 기대해 본다. 다음 호에는 소나무의 연중관리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n

앗! 식물에도 진드기가?

요즘 '진드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현재 몇 명이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었는지, 벌써 몇 명이 숨졌는지 등등..., 방송은 호재를 만난 듯 소식 알리기에 열심이다. 주말마다 나가던 야외 나들이를 중단한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잘도 뒹굴던 잔디밭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



충북대학교 식물학과 차병진 교수

진드기가 좀 더 일찍 나왔더라면 이제 막 올라오는 씨를 보호하기 위하여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띠를 두를 필요도 없을 것을 그렸다. 아니, 어쩌면 내년부터는 이른 봄 잔디밭에 그저 '진드기 조심'이라는 팻말만 하나 세워두어도 자연스레 잔디 새싹이 보호될지도 모른다. 그깟 진드기를 가지고 그렇게들 난리인 것은 진드기보다는 그것이 옮기는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그리고 이런 난리법석이 한 번 있어서인지 지금까지는 '진드기'라든 '지겹게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모르는 성가신 사람' 또는 '존재' 정도로만 알고 있던 사람도 진드기가 벌레라는 것을 알았고, 또, 어떻게 생겼다는 것까지 알게 된 경우도 많다.

진드기, 거미와 같은 식구?

'진드기'는 '진드기목'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생물들을 일컫는 말이다. 분류학적으로 동물계(kingdom Animalia), 절지동물문(phylum Arthropoda), 주형강(또는 거미강, class Arachnida), 진드기목(order Acarina)에 속하며, 네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머리와 가슴, 배가 뚜렷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융합되어 있다. '주형강' 또는 '거미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드기는 거미와 같은 집안에 속하는 벌레인데, 거미는 허리가 있어서 배와 가슴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진드기와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진드기는 크기가 1밀리미터 이하이며,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그중에서도 식물을 먹고 사는 것은 더 작아서 맨눈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 사람들은 흔히 거미도 곤충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미는 곤충과는 완벽히 다른 생물이다. 곤충과 거미는 둘 다 벌레이고, 둘 다 조그맣고, 둘 다 징그럽다는 등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도, 완전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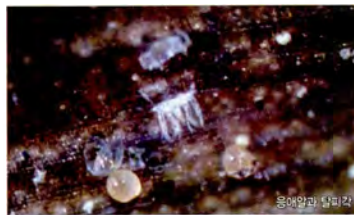
른 생물이다. 곤충은 거미와는 달리 다리가 세 쌍이며, 몸체는 세 부분(머리, 가슴, 배)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쉽게 말하자면 곤충은 거미보다는 이목구비가 훨씬 더 뚜렷한 생물이다. 즉, '진드기'가 곤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다리 두 개를 떼어내어 버리고 열심히 운동하여 허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건 농담입니다. 생물이 이럴 수는 없다는 것, 다 아시지요? 진드기는 곤충과 같이 잘록한 허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미'강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응애도 진드기다

진드기목에는 '진드기(tick)'와 '응애(mite)'가 있다. 이 중 응애는 일반적으로 진드기보다도 더 작고 단순하게 생겼으며, 집 안의 이부자리에 많이 사는 집먼지진드기를 비롯하여 식물을 먹고 사는 것들도 모두 여기에 속한다. 즉, 식물을 먹고 사는 진드기는 진드기라 하지 않고 응애라고 부른다. 응애의 몸 색깔은 투명한 것부터 붉은색, 검은색 등 다양하며, 발생 시기에 따라 색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크기가 불과 0.5밀리미터도 되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말기암의 응애피해



눈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집안으로 모여 살며 거미줄 같이 보이는 가느다란 실을 뽑아 표면 또는 가장자리를 덮으므로 응애를 직접 보기는 어렵더라도 응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특히, 응애의 밀도가 높아지면 거미줄 같은 실을 따라 응애들이 많이 움직이고, 끝 부분에 뭉치듯이 모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눈에 띄기도 한다. 응애는 대부분이 잎의 뒷면에 서식하고 있으며, 구기(입)를 잎 세포 속으로 찔러 넣고 엽록소 등 세포 내용물을 빨아먹는다. 따라서 잎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잎 전반에 걸쳐 먼지가 않은 듯이 색이 흐려지며, 자세히 보면 바늘 끝 같이 작고 흰색이나 누런색의 점들이 잎에 널리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응애는 어린잎 보다는 이미 다 자란 잎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은 주로 큰 잎들에 잘 나타나고, 지금 새로 나와서 자라고 있는 잎들은 깨끗한 경우가 많다. 응애의 피해를 받은 잎들은 일찍 떨어지며, 꽃은 형성이 불량할 수도 있다. 응애는 알로 번식하여 한 해에도 여러 번 발생한다. 겨울에는 주로 번식하여 한 해에도 여러 번 발생한다. 겨울에는 주로 번식하여 한 해에도 여러 번 발생한다.

응애와 진드기의 사촌들

응애와 진드기는 분류학적으로 '주형강'에 속하는 미소동물로서 적어도 수만 종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주형강에는 응애 이외에도 전갈, 거미 등이 있다.

거미

대부분의 거미는 특수한 기관에서 정액을 생산하고 분비하여 거미줄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이다. 그러나 거미라고 모두 거미줄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물거미, 게거미, 강충거미 등은 거미줄을 만들지 않는다. 일부 거미는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기피되는 동물이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등 이로온 동물이다. 거미는 주로 곤충을 먹고 사는데, 곤충의 몸에 소화



율이 되면 수정한 암컷 성충이 식물의 틈이나 지면의 잡초, 낙엽 등에서 활동한다. 알은 주로 잎 뒷면에 낳으며, 응애의 종류에 따라 알에서 성충까지 짧으면 닷새, 길면 스무날 정도 걸리기도 한다. 응애 역시 다른 거미류와 마찬가지로 번데기 과정 없이 새끼(약충)에서 바로 성충이 되는 불완전변태를 한다. 응애의 다리는 네 쌍이지만, 갓 태어난 부화유충은 다리가 세 쌍 밖에 없다.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응애의 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한다.

가느다란 실이 보인다면 응애 피해

식물을 가해하는 응애는 종류가 굉장히 많으므로 거의 모든 식물이 다 응애의 피해를 받는다고 하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따라서 텃밭이나 실내 식물에서도 응애 피해는 가장 흔히 나타나는 피해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사람들까지도 물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식물을 먹고사는 응애들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식물은 이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며, 때로는 응애 때문에 거의 말라죽기까지도 한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놈들이 수없이 달려들면 커다란 식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집 텃밭이나 베란다의 화분을 들여다보자. 웬지 잎이 오래 된 듯이 색깔이 칙칙하고 뿌연 것 같이 보이지 않는가? 거미도 없는데 잎에 거미줄 같은 것이 쳐있지는 않은가? 저런, 우리 식물에 응애가 끼었구나. 다음 호에서는 만사 제쳐 놓고 원예식물에 잘 생기는 응애와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겠다. [in](#)



참박이응애



차응애

점박이응애와 차응애 구별법

차응애와 점박이응애는 모두 암컷이 0.5mm, 수컷이 0.4mm 내외로 크기와 피해양상이 비슷하다. 이에 구분하기가 어렵다. 여름철 암컷의 형태를 보면 점박이응애는 담황 또는 황록색 바탕에 좌우 한 쌍의 검은 무늬가 선명하다. 또 다리가 거의 흰색에 가깝다. 차응애는 붉은빛을 띤 초콜릿색을 띠고 있다. 또 암다리 선단부에 연한 황적색이 보인다. 휴면암컷은 차응애는 붉은색, 점박이응애는 황적색이다.

액을 주입하여 내부를 소화시킨 뒤, 그 체액을 빨아 먹는다. 야외에 사는 거미들은 매미충 등 농업해충들을 잡아먹는 것이 많아서 농업에 사용하는 귀중한 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거미를 잡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거미의 존재가 해충의 밀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에 약 3만 종 중 한국에는 약 600종이 분포한다.

전갈

전갈목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으로서, 꼬리 끝 부분에 독침을 갖고 있어서 독충으로 유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1천 종이 넘는 전갈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가 다 무서운 독충인 것은 아니며, 약 25종 정도만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



요즘 문제시 되는 살인 진드기



우리꽃 아카데미 체험! 도시 원예 속으로

박선영씨가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 마치 미국 드라마 속 부농인 같다. 우리꽃 아카데미는 실용정보 외에도 이색 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트랙터를 타고, 전동톱으로 전정도 했다.’ 도시 생활 속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농부의 일상, 그러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고된 생업인의 모습이 아닌 외국 잡지나 드라마 속에서 볼직한 화보 같은 부농(富農)인의 일상이 그려졌다. 제4기 수업을 시작한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의 첫 수업 풍경은 그렇게 이채롭고 흥미로웠다. 단순한 재미 위주가 아닌 실용 실습이 가득해 더욱 관심을 끌었다. 도시원예 아카데미만의 독특한 색깔, 그것은 이 계절 정원을 장식한 수목 같다. 화려하지만 탐스럽고, 속이 꽉찬 듯 빈틈이 없다.

실습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UP

본지가 주관하는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가 드디어 개강했다. 여전히 마니아층의 높은 참여 속에 지난 5월 말 2013년 상반기의 문을 열었다. 이번이 4번째 수업. 수강 회원들 가운데는 얼굴들도 눈에 띈다. 그중에는 4회 수업을 모두 참여한 회원도 있었다. 도시원예아카데미에 대한 신뢰 및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

이다. 그 신뢰 때문이었을까. 강사진들의 열의는 더 높아졌고, 프로그램은 더욱 강화됐다. 이미 지난 기수를 통해 기본기를 마스터한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강사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유용한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제4기의 첫 수업은 우리꽃 박공영 대표의 ‘꽃, 아름다운 정원, 도시원예’를 주제로 시작했다. 농림부로부터 신지식인 농업인상을 수상하고 조경용 식물 가이드북의 저자이기도 한 박 대표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 정원문화의 트렌드를 설명했고, 이어 여름철 정원에서 해야 할 일 등을 직접 시연했다.



트랙터 체험을 하고 있는 송영선씨



윤경림씨



박선영씨

현장에서 배우는 시즌 관리법

1만여 평의 이천 농장은 강사는 물론 배우려는 회원들을 위한 훌륭한 실습 무대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던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 했던가. 미니골프장과 함께 조성된 정원은 계절의 화려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보는 것만으로도 눈에 호사, 배움의 공간이었다. 그 다양한 화초와 수목의 종류만큼이나 무성하게 자란 잡초, 그 불청객을 올바르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졌다. 아름다운 정원을 위한 수목 관리, 전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시도됐고, 전지가위는 물론 난생 처음 전동톱도 사용해 봤다. 그리고 트랙터도 운전해 봤다. 선진 유럽에서 부상하고 있는 채소와 화초의 ‘혼성’ 텃밭에 대해 이론과 실습이 이뤄졌으며, ▲비닐하우스와 방충망을 활용한 옥상정원 만들기, ▲여름 휴가철에 식물 물줄기는 요령, ▲빨래집게를 활용한 가지 유인방법, ▲앞은 부직포를 활용한 텃밭의 방충과 보습 효과 등 다양한 정원 관리 방법도 소개됐다.

전문 강사진의 명품 강의

한편 도시원예아카데미는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6월 넷째 주에는 그린페이퍼 김귀순 대표(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실내 정원 관리에 대한 수업이 진행됐고, 이어 일산호수공원을 설계하고 다양한 저서를 낸 (전) 상명대학교 김광두 겸임교수의 조경 수목관리 강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김귀순 대표의 수경가든 만들기과 김광두 교수의 조경 수목 관리 등은 다음 8월호에 연재할 계획이다.



정진걸 씨가 조팝나무 전정을 하고 있다.

step by step

라벤더 심기

1. 땅을 잘라보고 적절한 땅을 찾는다.

2. 식물과 함께 심고자 하는 자리에 옮겨온다.

3. 뿌리가 다치지 않게 화분에서 분리한다.

4. 땅을 잘라놓은 자리에 분리한 식물을 넣고 깊이를 잴다.

5. 자리를 잡은 식물 주변으로 흙을 채워 준다.

6. 마무리로 덮어준 흙을 잘 다져준다.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고경희씨는 제 1회부터 4회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는 고정 회원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다는 그가 전지가위로 조팝나무를 손질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웃는 모습이 예쁜 그이다.

고경희씨의 전동톱 체험

“이천은 나를 바꿨다”

지금까지 가든인을 관심 있게 지켜본 독자라면 낯설지 않은 얼굴, 미모의 고경희씨이다.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의 고정 회원이라 불릴 만큼 첫 시작부터 이번 4기까지 모두 함께한 열혈 회원이다.

그런데 그의 참여 동기는 의외다. ‘단순히 이천에 오는 것이 좋아서’라고 말한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 그가 밝히는 이유이다. 다소 실망스런 답변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아니면 ‘다른 조경대학과는 달리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니면 ‘다양한 소재의 정원이 있어서 실수를 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등 아카데미 운영 취지에 걸맞는 조금은 그럴듯한 호평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단순히 마음이 편해져서란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한 찬사가 어디 있을까. 정원을 가꾸는 것은 자연과 함께 건강한 삶을 찾겠다는 것에 근본 취지가 있다는 것. 그 힐링의 취지를 잠시 잊었던 것 같다.

전동톱, 나 오늘 너를 이긴다

이천 도시원예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고씨는 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얼굴빛이 밝아졌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말. 무엇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생기를 찾았다고 한다. 실습 현장에서 그의 변화는 목격됐다. 전동톱 시연에 자처하고 나섰다. 다른

수강회원들이 뒤로 머뭇거리는 사이, 그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섰다. 전동톱이라는 것이 원래 소리로 일단 사람을 제압하는 도구가 아니던가. 누구든 선풍 나서기란 쉽지 않은 두려운 존재다.

거침없는 손놀림, 노련하다

그는 전동톱으로 삼색 조팝의 수형을 만드는 데에 나섰다. 무성하게 잘 자란 나무였다. 일찍 찾아온 초여름의 강한 햇볕이 이 조팝나무의 성장을 독려했을 터. 그러나 전동톱의 칼날 위에 진정한 미를 찾아간다. 위아래, 좌우로 거침없는 손놀림. 마지막 전지가위로 마무리하기까지 거침이 없다. 그러나 깎고 또 깎고 하는 사이, 조팝의 키는 반이나 줄어들었다. 수형이 나오지 않으니 정원사는 칼날을 멈추지 않았고, 보는 이는 너무 한그루가 통째로 없어질까봐 가슴을 졸였다. 숨을 죽여 지켜본 후 칼질을 멈추니 휴우 한숨부터 나온다. 박수가 절로 쳐진다. 과감한 용기에 보내는 갈채, 무사히 사고 없이 끝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이를 잘 견디고 버텨준 나무에 대한 감사. 이런 복합적인 재미가 있었던 전동톱 시연이었다.

임대하기 위해 머리를 자른 신병처럼 삼색 조팝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짧게 깎은 머리가 다소 어색해보였지만 금방 익숙해졌다. 더 성숙된 미래를 준비하는 군인처럼, 조팝도 아름다운 내년을 기약하는 준비 과정을 가진 것이다.

전문가 따라잡기

고경희씨의 도전



초여름 햇볕 아래서 삼색 조팝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 이발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야성미도 나쁘지는 않았다.



고경희씨가 선배답게 용기를 냈다. 소리가 요란한 전동톱도 그녀의 미모 앞에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다.



거침없는 손질이 옆면에까지 이어진다. 상하, 좌우의 가지가 정리되면서 제법 단정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형 잡기. 수형의 선택은 정원사의 마음이란다. 정원의 규모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 된다.



둥근 수형으로 정했다. 네모난 조팝은 본적이 없으니 둥근 게 맞다. 제법 그럴싸한 수형이 나왔다. 전문 정원사 같다.



큰 전지가위로 미처 자르지 못한 큰 가지들을 잘라냈다. 전동톱은 소리에 비해 생각보다 쉬운 듯 보인다. 선배의 노련함이 드러났다.



작은 가위로 마무리 작업을 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모르겠지만 첫 도전치고는 스스로 만족한 듯, 가위질 또한 거침없다.



제법 모양이 완성됐다. 생각보다 키가 낮아지지도 않았다. 정원 관리에 소질이 있다. 최장수 수강생의 면이 섰다.



수강 회원들이 텃밭을 만들고 있다. 선진 유럽에는 채소와 화초류를 함께 심는 혼성 텃밭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 텃밭을 조성하고 있다.

유럽의 新 트렌드

채소& 화초의 혼성 텃밭

우리꽃 아카데미의 6월 둘째 주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선진 정원 문화의 간접 경험이다. 유럽의 정원박람회 사진과 함께 유럽의 신 트렌드가 소개되었다. 신 트렌드의 핵심은 꽃과 채소를 혼합 혼성하여 텃밭을 조성한다는 것. 종전까지 텃밭이 먹거리를 수확하는 생산적 개념이 강했다면, 신 트렌드는 생산 개념을 넘어 관상적 가치를 더한다는 개념이다. 텃밭에 채소와 화초류를 함께 식재해 볼거리 먹거리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신개념이다.

아카데미 수강 회원들은 이러한 선진 트렌드를 적용해 실습했다. 약 5평의 텃밭에 라벤더, 버베나, 페튜니아 등의 화초류와 적근대, 깻잎, 상추, 케일 등 10여종의 채소를 혼합 식재했다. 먼저 텃밭을 디자인한 후 각 식물들의 위치를 정했다. 식물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수확시기에 따라, 또는 꽃의 색깔과 향 등을 고려해 박 대표의 도움을 받아 식재할 위치를 정했다. 각 식물에도 공활이 있다는데, 화초와 채소의 합궁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지 보는 이도 자못 궁금한 가운데 텃밭 만들기는 진행됐다.

점심 식사 후 10여명이 손을 모았지만, 유럽형 혼합 텃밭은 5시를 넘겨서야 완성됐다. 화초와 채소의 첫 조우, 첫 만남이 어색하기는 사람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새 터로 이사 온 식물이 아직은 어색해 보인다. 그러나 사람은 것처럼 하루 이틀 지나면 제자리를 잡아갈 터, 다음 주의 모습이 기대된다. in



디자인한 텃밭에 채소와 화초류를 식재했다. 텃밭이 생산과 수확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예술미의 공간으로까지 거듭났다.



선진 트렌드를 도입하여 텃밭을 디자인했다. 채소와 화초류를 혼합 식재하는 유럽식 텃밭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텃밭에 바실, 상추, 고추 등의 채소와 라벤더, 백옥국, 페튜니아 등의 다양한 화초를 심었다.



GARDENING Reader

야매가드너의 가든다이러리

무 대신 무꽃을 선택했다!

가든다이러리를 쓰고 연재를 하다보니 나는 가드너라기보다는 농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화단의 예상모습까지 디자인해 나름 의기충만하게 꽃씨를 뿌렸건만 예상치 못했던 잡초와 이듬모를 야생화들에 밀려 하나도 꽃을 피우지 못했기에 그저 옥상텃밭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잡초의 위력을 절감한 나날이었다. 그래도 난 꽃을 사랑하는 가드너라고 굳게 믿고 싶다. 무에 꽃이 달렸는데 그 꽃을 보는 재미에 무 수확기까지 놓쳤으니 말이다.

■ 글 · 사진_김지태

포인세티아, 고추나무 분갈이

2013. 05. 24



허접한 화분에서 자라던 포인세티아를 분갈이 해주기로 했다. 야산에서 퍼온 흙에다 심어봤더니 물빠짐이 안되고 흙이 썩어가는 느낌이었다.

뿌리를 캐보니 생각보다 훨씬 빈약했다. 상토를 사다가 준비해 놓은 겨자색 화분에 옮기고 영양제를 뿌려줬다. 고추는 하나에 천원하는 묘종을 사다 한 곳에 심어 놓았는데 너무 잘 자라서 큰 화분에 독립시켜줬다. 고추나무 뿌리가 생각보다 엄청 깊고 튼실했다.

허브 중에서 바질에 유독 신경을 썼는데 계속 실패했다. 오기가 생겨서 대량 생산을 해보기로 했다. 이태리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지중해 특산 바질 씨앗을 구해서 묘종판에 옮겨 심었다. 이 중 한 녀석이라도 살아남겠지,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피마자라는 식물의 위용

2013. 06. 02



초봄,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아몬드 만한 큰 씨앗을 하나 받았다. 피마자라고 했다. 말라서 겹칠도 떨어져나갔기에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세치 포트에 심어 놓았다. 며칠 새에 지렁이같은 줄기와 10원짜리 동전만한 떡잎을 내더니 자라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무섭게 자라나고 있다. 세치 포트로는 아림도 없겠다 싶어 얼른 큰 화분을 구해서 옮겨준 후 옥상에 올렸다. 세치 포트 안에는 뿌리들이 실타래처럼 촘촘히 얹혀 있었다. 피마자, 이름처럼 썩 식물이다.

라벤더와 바질, 로즈마리 그리고 잡초

2013. 06. 09



허브와 식물들은 비슷한 거 같지만 다 개성이 다르다. 로즈마리는 물을 안주거나 햇빛에 노출을 안 시켜도 죽지 않고 잘 자라는 것 같다. 그러나 자라는 속도가 엄청 느리다. 마치 성장을 거부한 아이처럼. 바질은 떡잎 나오는 속도도 빠르고 잘 자라는 편인데 물을 때맞춰 줘도 어느 순간 죽어버리는 까다로운 식물이다. 묘종판에 심어 놓은 바질씨앗들이 10일만에 예쁜 떡잎을 냈다. 라벤더는 귀하게 얻은 지중해 품종인데 기특하게도 예쁘게 싹을 틔우고 있다.

무꽃의 탄생, 상추꽃을 기다리며

2013. 0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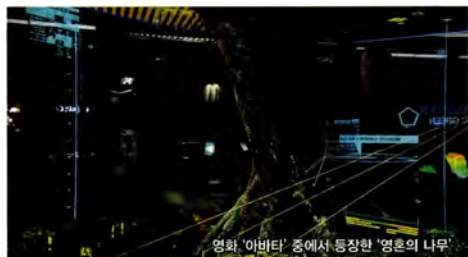


무에서 이렇게 예쁜 보라색 꽃이 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너무 신기해서 인터넷 식물 카페에서 만난 고수들에게 물어보니 꽃이 피기 전에 뿌리를 캐야지만 튼실한 무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는 안 먹어도 좋다. 꽃이 핀 게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그대로 두었다. 무 대신 무꽃을 선택한 것이다. 생각보다 무꽃은 오래가서 관상용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상추도 꽃을 피우기 위해 꽃망울을 풍성하게 틔우고 있다. 다음달에는 이 토종 상추의 씨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피마자는 이제 흑시 마리화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왕성하게 자라고 있다. 옥상이 온통 피마자로 덮이기 전에 옮겨줘야 할 거 같은데 대체 얼마나 큰 화분에 옮겨야 할지 대략 난감이다. in

식물, 스스로 방어한다

식물이 갖고 있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은 다양하다. 특히 식물 체내에서 외부의 공격에 반응하는 화학적인 물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화학물질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무기인 셈이다.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놀라운 식물의 방어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 글_ 정승환 기자 / 자료협조_ 국립농업과학원 안승준 박사



영화 '아바타' 중에서 등장한 '영혼의 나무'

영화에서의 식물이 현실에도 존재

영화 '아바타'를 보면 식물과 관련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온다. 판도라 행성에 서식하는 식물들의 뿌리가 뇌 신경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비족의 지도를 받은 '영혼의 나무'는 숲의 모든 동물에게 인간에 맞서라는 명령을 내린다. 지시를 받은 행성의 모든 식물들은 반응하게 된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미국 온라인 과학

사이트 Science Daily에서는 "식물들은 서로에게 경고를 보내는 대화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열기, 토끼풀, 갈대 등의 초본류들은 자연적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화학물질로 같은 또는 다른 종들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는 생물현상을 알레로파시(allopathy), 우리말로 타감작용이라 한다. 'alle'는 그리스어로 '서로'라 하고 'pathy'는 '해로운'이라는 뜻을 가졌다. 소나무는 성장하면서 스스로 주변에 방해 물질을 내뿜는다. 이 물질을 '갈로탄닌(Gallotannin)'이라고 부른다. 이 물질은 뿌리, 줄기 등 모든 곳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것은 주변의 토양미생물이나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햇빛이 없으면 성장에 제한되는 정도가 심한 소나무는 다른 나무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집에서 많이 키우는 허브 등의 향기는 해충을 쫓아내는 강력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보통 허브를 많이 키우는 집은 벌레가 많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파이토알렉신은 송충이 애벌레가 잎을 갉아 먹을때의 타액과 잎의 상처가 혼합되어 나오는 휘발성 물질로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식물과 말벌은 SNS 친구?

식물은 화학물질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식물은 자신을 먹는 곤충을 대상으로 곤충의 생리나 생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곤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식물의 잎이 애벌레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 식물의 세포벽은 구성성분인 딱딱한 리그닌(lignin)을 겹겹이 쌓고, 화학물질을 발생한다. 이 화학물질이 바로 파이토알렉신(Phytoalexin)이다. 이 화학물질은 애벌레로부터 잎을 공격받고 있을때 천적인 말벌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내가 공격받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 달라." 마치 요즘의 SNS처럼 신호체계가 바로 연결된다. 이런 신호는 휘발성인 화학물질을 통해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애벌레에 의해 상처를 받은 잎에서 애벌레의 타액과 갉아먹은 잎의 상처가 혼합해 휘발성물질이 발생되어 기생 말벌을 유인한 것이다. 기생말벌은 책기벌레 안에 알을 부화시켜 말벌의 애벌레는 책기벌레를 영양분으

로 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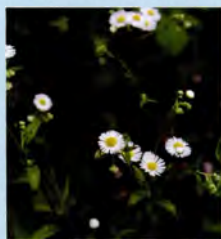
파이토알렉신을 내뿜는 식물의 예로 소나무와 배추를 들 수 있다. 애벌레가 갉아 먹을 때 배추의 상처부위에서 나오는 물질을 '세키테르펜'이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동물에 의해 식물이 피해를 당할 때 휘발성 물질을 방출해 주변에 서식하는 같은 종들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이런 채널은 토양의 곰팡이 또는 박테리아 등을 통해서도 이뤄진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살충제 등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고추다. 고추의 캡사이신(Capsaicin)은 향료로 강력한 항균 및 항충 효과를 갖고 있다. 요즘은 자연농법으로 고추를 우리거나 즙액을 오일과 혼합해 해충 제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유기농업연구자들은 여러 식물들의 생리와 특성을 파악해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 식물을 이용한 기피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내 정원에 식물끼리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재미있을법하다.

화학물질을 이용한 방어하는 식물들



개망초 뿌리에서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내면서 번식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의 방해 없이 큰 군락을 이룰 수 있다.



고추 고추의 '캡사이신'은 매운 맛을 내는 화학물질이다. 이것은 강력한 항균 작용과 기피 효과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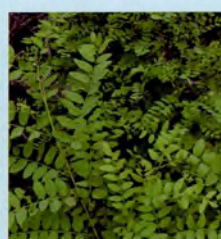
담배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경보 물질을 발산해 같은 종들에게 알린다. 다른 담배들은 바로 신호를 받아서 면역 물질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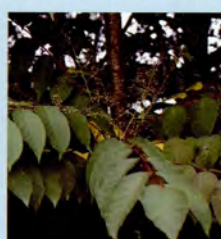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곤충의 침입을 받았으면 맛있는 식물로 보이기 위해 떨어뜨린다. 화학적 작용에 의해 잎의 식감을 떨어뜨린다.



호두나무 잎과 나뭇가지에서 화학물질을 내보내면 이 물질이 땅속에 침투해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한다.



아까시나무 꽃을 개미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미에게 독이 되는 물질을 분비하여 벌레에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욱나무 율나무를 만지면 특이코덴드롤이라는 독이 개인차는 있지만 염증을 일으키거나 가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포도 식물내 유독한 효소는 해로운 균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균류의 생육을 저해시키며 영양물질로 바꾸어 흡수해 버린다.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 소장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김귀순
(사) 그린패티머 대표



안완식
농학박사
씨드림 상담대표



이종석
서울예대 명예교수
한국도시농업 연구회 회장



김광두
전 상원대학교
산림대학 겸임교수



이정식
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식물에게 해가 되는 무당벌레도 있습니다.



이런 무당벌레는 해충이에요!

Q 베란다에 키우는 화분으로 무당벌레가 날아 왔어요. 무당벌레는 좋은 벌레라고 생각하는데 지인이 이것은 해충이라고 합니다. 좋은 무당벌레 구별법이 있나요?

A 무당벌레는 진딧물이나 응애를 잡아먹고 사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충이 아니고 익충이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베란다에서는 분비물로 인해 벽이 지저분해지거나 무당벌레를 좋아하는 또 다른 벌레들이 모여들게 되므로 없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무당벌레 중 하나가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입니다. 이것은 유충과 성충이 모두 검자, 가지, 토마토, 고추 등 가지과 식물의 잎을 가해합니다. 이 무당벌레는 등에 점이 28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가 전체 무당벌레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죠. 다음부터 이런 무당벌레를 보게 되면 좋지 않은 감정으로 봐주는 것이 좋겠지요. 이외에도 이십이점무당벌레나 열석점긴다리무당벌레 등도 작물에게 해를 입히는 해충입니다. 물론 익충인 무당벌레가 많습니다. 식물의 진딧물을 먹는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무당벌레로 등에 7개의 점이 있는 칠성무당벌레, 노랑무당벌레, 애홍점박이무당벌레, 달무리무당벌레, 남방이무당벌레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집안으로 들어오는 무당벌레에 관심을 갖고 봐주세요.

2009년 경기도 고무나무를 위협했던 총채벌레 “조심하세요”



Q 베란다에서 고무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까만색의 씨앗보다 작은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관엽류 화분에 옮겨 퍼졌습니다. 이 벌레가 무엇이고,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고무나무에 작은 벌레들이 생겼다면 깍지벌레나 온실가루이나 응애는 아닌 것 같고, 총채벌레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관엽류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고무나무관총채벌레’라고 있습니다. 크기가 2~3mm의 작은 총채벌레로 발생 초기에는 발견이 어려워 생리장해나 병해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말린 잎 속에 벌레가 숨어 있어 방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로 고무나무류의 어린잎을 가해하며 피해 초기에는 흡즙에 의한 갈색 반점이 나타나고 점차 흑갈색으로 변합니다. 베란다 온도가 높아질 무렵 흰 종이를 잎 아래에 대고 손으로 톡톡 쳐보세요. 벌레가 종이위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벌레가 개미처럼 생겼다면 총채벌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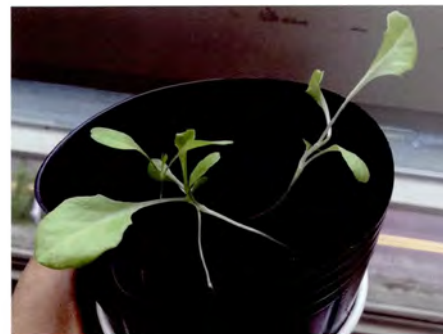
식물이 햇볕에 의해 시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Q 해바라기 씨앗을 두 개 심었어요. 한개는 짧고 굵게 자라고 나머지 하나는 가늘고 길게 자랍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해를 보고나더니 짧은 것은 생생한데 긴 것은 잎이 다 사들해졌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A 해바라기는 토질이 좋고, 햇볕이 강한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늘에 있던 것이 갑자기 강한 햇볕을 쬌리게 되면 조직이 연하게 되어 잎이 타거나 줄기가 시들해지고 집니다. 아마도 그늘에서 자라던 것을 갑작스럽게 강한 햇볕을 쬌리게 한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같이 광을 좋아하는 식물은 뜨거운 해에 잠시 수축하여 외관상 시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수분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식물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환경에 적응되면 좋아질 것입니다.

상추는 서늘한 온도에서 생육이 좋은 원예 작물입니다.



Q 상추 씨앗을 심었어요. 싹이 난지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새싹이 힘없이 자라요.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아닌지 비료를 줘야하지 잘 모르겠어요.

A 상추는 온도가 낮고 햇볕 쬌음이 비교적 적은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즉 저온성 채소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기온이 15~20℃ 정도 되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온도가 높고 햇볕 쬌음이 길어지면 꽃이 피게 되고, 잎이 굳어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생육기간 중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쓴맛이 증가하고 생리적 고온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할 때 빨리 식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치자꽃에 하얀 거미줄 같은 무언가가 생겼어요. 닦아도 자주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향이 너무 좋아서 예쁘게 잘 키우고 싶는데 도와주세요.



잎에 하얀색이 보이면 깍지벌레류의 피해를 의심해 보세요.

A 가정원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온실가루이라는 해충이거나 깍지벌레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여러 나무줄기나 잎 뒷면에 붙어서 양분을 흡즙하는 해충으로 배설물로 등에 하얀 분비물을 배출하는 해충입니다. 은행잎이나 마늘을 먹서기로 즙을 내어 잎 뒷면에 두서너 번 뿌려보세요. 가정이나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물 2ℓ에 목초액 40cc를 희석하여 두세 번 뿌려주시면 방제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농약방에 가서 깍지벌레 전문약제를 2~3회 정도 뿌려 주셔도 좋습니다.

생명력 강한 복분자의 삽목은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복분자가 삽목이 잘된다고 들었습니다. 복분자 삽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복분자, 뽕나무, 두릅, 엄나무 등은 생명력이 강해 삽목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복분자는 마사토 같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자란 직경 0.3~1.5cm의 줄기를 15~20cm로 절단하여 그늘에서 1일간 보관 후 밑부분은 발근제를 바르고 줄기 상부에 뚫려 있는 구멍은 촛물로 막아줍니다. 발근의 양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삽수의 밑은 2~3개(10cm 내외)를 땅속에 묻는 것이 좋습니다. 삽수는 직경 0.3~0.7cm의 삽수가 발근이 잘되며 1.0cm 이상 굵은 줄기는 발근율이 좋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토는 모래와 펄라이트를 2:1로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80%정도 차광상태에서 30~35℃의 높은 온도와 산소량이 풍부한 90~95%의 높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삽목 시기는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경이 적당합니다.

Q 집에 있는 율마가 이사를 한 뒤로 아래부터 노랗게 말라가더니 전체가 다 말라버렸어요. 해가 잘 드는 베란다에 두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시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토양 속의 산소만 충분하다면 절대 식물은 죽지 않아요.

A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율마를 두었는데 율마가 노랗게 말랐다는 것은 화병이 말랐거나 베란다 온도가 너무 높았거나 통풍이 전혀 안 되는 곳에 두었을 때입니다. 작물은 아무리 온도가 높고 햇볕 쏘임이 강한 상태에서도 토양 속에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환기만 잘되면 전혀 시들지 않는답니다.

맛있는 수박도 먹고, 씨앗으로 수박을 키워보세요.

Q 며칠 전 마트에서 수박을 사다 먹었습니다. 가족끼리 맛있게 먹고, 남은 씨앗을 보니 흠에 심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을 흠에 심으면 수박이 열릴까요?

A 잘 익은 수박씨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종자들은 종자회사에서 개인이 임의로 증식하지 못하도록 교배종으로 팝니다. 즉, 열매를 심어서 모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히긴 하지만, 품종 고유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고, 상품가치가 전혀 안 되는 수박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도 수확의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일반 흠 또는 배양토에 심어보세요. 심을 때는 종자를 축축한 수건이나 휴지에서 발아시킨 후 파종하면 좋아요. 온도는 씨가 나올 때 28~30℃정도가 좋고, 4~5일이면 종자껍질을 벗고 떡잎이 나옵니다. 본잎이 4~5매가 될 때까지 모를 기른 후 밭에다 옮겨 심는 것이 좋습니다. in



Garden In News

JULY 2013

농진청 정명일 박사 연구팀

유치원 옥상정원 평가회 실시



아이들이 웃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아이들의 웃음만한 꽃이 또 있을까.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회색도시의 아이들의 웃음마저 잠식해버리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만큼은 지켜내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 최근 학교정원, 옥상정원 등이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밭 벗고 나서 어린이를 위한 정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수원시의 영통제일유치원에 조성된 옥상정원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아이들의 관찰 학습장이고 자연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제일유치원의 옥상정원은 작지만 큰 꿈을 이뤄내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꽃을 지정해 가꾸고 있었고, 재활용 PET병을 활용해 물조리개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고, 생활의 지혜도 배워가는 아이

들,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정원에는 허브류, 습지비오름, 잔디마당,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어 체험은 물론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파고라(쉼터), 텃밭도구함, 수전과 개수대 등까지 갖춰져 아기가자함과 쉼터의 역할까지도 더했다. 영통제일유치원 옥상정원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수원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추진한 시범 옥상정원이다. 유치원생을 위한 4계절 관찰용 옥상정원의 모델로 이날 현장평가회를 실시한 것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이를 보기 위해 모였다.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정명일 박사는 옥상정원 조성과 관련 "2007부터 2012년에 걸쳐 옥상정원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식물자원 226종(초본식물 96, 목본식물 74, 허브식물 23, 텃밭채소 33)을 선별했으며, 이들 식물을 활용해 제일유치원에 시범 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현장평가회를 통해 보급형 옥상정원과 옥상텃밭에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흥시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이달 11~14일, 호수공원 일원

시흥시가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첫 문을 여는 제1회 시흥시 도시농업박람회는 '농업과 생명이 살아 있는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슬로건으로,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정왕 4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흥시 도시농업박람회는 기존 생태자원을 그대로 드러내고 박람회와 일상생활이 연계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든다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학교, 거리 등 도시생활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대거 선을 보인다.

프로그램은 희망의 숲, 지혜의 샘, 생명의 물, 풍요의 호수로 나눠 오감을 만족하는 체험 전시 위주로 진행된다. 지혜의 샘인 호수공원에서는 생명과 형평을 주제로 유형별 도시텃밭을 조성해 도시농업의 다양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시흥시 김윤식 시장은 "박람회라는 형식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우리 시 도시농업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도시농업박람회
<http://www.shcityfarm.com>

가드너들 사이에 시민정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인증제를 도입한 시민정원사는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정원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

는 시민을 말한다.

시민정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경가든대학을 수료했거나 원예, 조경, 산림학과 관련학과와 졸업생이어야 한다. 이들 대상자 중에서 총 120시간(이론 36시간, 실습 84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시민정원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필수와 재량이수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식물의 이해에서부터 식물의 관리, 정원 조성 관련 수업은 필수로 이수해야 된다.

시민정원사 교육은 상하반기 1년에 2회 실시된다. 상반기 수업은 지난 4월 시작해 오는 1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8월부터 하반기 교육이 시작된다.

수업은 8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총 30주, 주 1회 4시간씩 진행된다. 20명 1개 반으로 수강료는 10만원, 이달 말(7월30일)까지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www.gga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문의 경기농림진흥재단 녹화사업부
031)250-2733

정원에서 즐기는 한여름 밤의 영화
순천만정원박람회 **혹서기 문화 체험 행사 확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체임 및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확대, 후시기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지난날 개장 60일 만에 200만 입장객을 돌파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7월을 제2의 약기로 삼고, 다양한 생태 문화체험의 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 대폭 확충 및 신설 계획도 세웠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우선 다양한 문화 공연을 준비했다. 7일 장사의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비보이 댄스경연

대회를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 무속 임수민의 희망가요를 28일 박람회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한여름 밤을 시원하게 장식해 줄 심야연회에도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또한 육서기의 관광개편의의를 위해 다양한 쉼터 및 편의시설을 다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동천개펄공원에 대형 텐트를 설치했고, 습지센터 공원장에도 점프식 그늘막을 설치했다. [in](#)

문의 02천안국제정원박물관 1577-2031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부학교 무료 교실 운영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0월까지 각 자치구(25곳) 별로 도시농부학교 무료 교실을 운영한다. 그 일환으로 이달 7일에는 서초구청과 강서구청에서 도시농부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3일로 예정된 서초구청 도시농부학교는 반포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진행된다. 이달 수업은 텃밭가꾸기이다. 옥상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텃밭 채소 가꾸기 및 친환경 농법에 관한 기초 상식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강서구청의 도시농부학교는 7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도시농업(17일, 강서여성문화나눔센터 6층)과 텃밭채소가꾸기(18일, 강서과학주말농장)를 주제로, 오후 3시부터 5시 10분까지 2시간 정도 수업한다.

문의: 서울시농업기술센터 02-459-8992



7월 가든인
구독자를 위한
할인 이벤트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할인권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031-645-20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16.6% OFF
정기구독 안내

가든인 1년 정기구독시 2만원 **SALE**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사은품 가든도구 5종세트, 꽃씨증정
 무통장입금 예금주: 벽화수(주)
 농협 355-0023-7618-13
 (입금후 꼭 가든인에 알려주십시오.)
 문의 031-712-7009

Gardenin July 2013

정성껏 만든 이번 달 〈가든인〉,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좋았던 기사
등 무엇이었는지 적어 〈가든인〉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채택된 엽서의 주인공께는
가든도구 선물을 보내드리며, 그 결과는
다음 달 'Gardening Reader' 코너를
통해 발표됩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 《월간 가든91》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voice!

▶ 예도지 엮서를 발송하시면 시연 채택 및 선물 배송과 관련된 개인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든 인 라이프
스토리를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집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 나 가드너로서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된 독자분께는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6.6% OFF Garden in 정기구독
1년(12권) 10만원(정가 12만원)



신청하시는 분

이름	성별 (남, 여)
이메일	직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 원할한 우편 발송을 위해 정확한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도 업서를 발송하시던 사원 제재 및 신원 검증과 관련된 개인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하여 60일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독기간	2013년	월호부터 1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 입금 (농협) 355-0023-7618-13	예금주 백화수(주)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 031)712-7009		

테르메덴 50% 할인권

이용 안내

- 본 이용권은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 (사우나 이용 제외)
- 본 이용권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은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물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031)712-70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우 편 업 서

보내는 사람 (남, 여) _____

주소 _____

직업 _____

전화번호 _____

나이 _____

□□□-□□□□



Garden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가든인

4 6 3 - 8 2 5

우 편 업 서

보내는 사람 (남, 여) _____

주소 _____

직업 _____

전화번호 _____

나이 _____

□□□-□□□□



Garden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가든인

4 6 3 - 8 2 5

월간 Gardenin 7월호

발행인 박화수(주)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이순영 前 한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박공영 우리꽃 대표 / 농학박사

전문위원 김광두 전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중요(주) 대표

김귀순 (주)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우정아 경기조경가든대학 강사/가든디자이너

유희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형원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편집장 소순복 goll108@hanmail.net

취재기자 정승환 saintlylove@hanmail.net

정지은 kkom8@hanmail.net

강은지 foxbeam@naver.com

객원기자 김지태 jssummer@gmail.com

황주리 jurie777@hotmail.com

편집 디자이너 변해인 bhi0429@naver.com

인쇄 부광프린팅(주)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전화 031-712-7009, 070-4811-2505~6

팩스 070-4811-2518



설치가 쉽고 간편한 포켓 걸이용 화분

유럽형 벽걸이 화분

포켓가든

공간 제약 없이 가볍고 간편하게
풍성한 화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시, 아파트 베란다, 실내 벽면 등에 간편하게 설치하세요.

평면, 난간, 곡면 등 어떤 형태의 구조물에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 포켓가든은 벽면이나 창가 등에 부착하여 식물을 식재하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 포켓이 크고 내구성이 강하여 다양한 식물을 식재 가능합니다.
- 다른 식물로의 교체가 용이하여 채소를 돌려서 재배 가능합니다.
- 아파트 베란다 창가나 거리의 도로화분 대신 고급스러운 경관 연출에 적합합니다.
- 중간 부위 조절 밴드로 자유로운 크기의 텃밭 연출이 가능합니다.
- 부직포 재질로 가볍습니다. (규격: W 50cm x H 37.5cm)
- 가정원예용으로 꽃 뿐만 아니라 상추, 쑥갓, 토마토 등 다양하게 재배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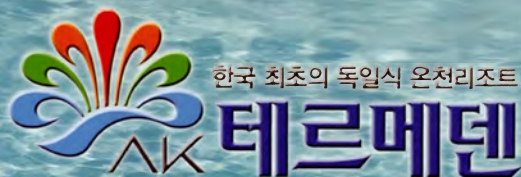
도시원예, 가든 도우미 쇼핑몰

가든조

Tel. 031-712-7001

www.gardenjoa.com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유일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칼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치료 후 회복과 건강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AK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031)645-2000 www.termeden.com

테르메덴 50% 할인
출간 가든인 109p
확인하세요!

